

연구보고(수시과제) 09-R20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연구

책임연구원 : 모상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 김영지(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선임연구위원)

김희진(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전문연구위원)

정익중(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 교수)

연구보조원 : 김미영(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연구보조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1. 연구목적

○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상황에서 생활의 불안정과 빈곤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취약계층 아동·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가늠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제공하고자 함.

○ 심화된 경제위기에 노출된 빈곤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 실태와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여 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에 필요한 대책마련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 경제위기의 위협에 놓인 빈곤 아동·청소년을 지원하기 위한 보호요인을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고하고자 함.

○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빈곤 아동·청소년을 적시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을 확대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 함.

2. 주요 내용

○ 2008년도 경제위기 이후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비(非)빈곤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의 생존과 발달을 둘러싼 전반적인 삶의 영역에서 경제위기의 위협은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보이고 있음.

- 기초생활 관련 건강실태 조사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중간층에 비해 만성질환과 피부병 발병 비율이 현저히 높았으며, 치료를 요하지만 경제적 이유로 치료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는 비율도 월등히 높게 나타남.

-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및 주관적 차별과 무시에 대한 반응

및 가출에 대한 충동이 빈곤층 집단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음.

- 급격한 소득 감소로 인한 필요물품 구입중단·학원(과외)교습 중단·여가활동중단(감소) 같은 사안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의 수위가 중간층에 비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

- 경제위기에 따른 부모와의 관계악화·부모에 대한 부정적 인식·부모가 겪는 심리적 고통·가정폭력 인식 같은 가족관계의 변화양상을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함.

- 경제위기 이후 아르바이트의 시작·가족 구성원과의 이별여부·부모님의 실직 등과 같은 사안에 대해 빈곤층의 경우 그 정도가 높게 나타남.

- 빈곤층 아동·청소년집단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며 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중간층에 비해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신체적 체벌 경험 여부·부모로부터 모욕감과 수치심 경험여부· 부모로부터 모멸감을 자극받는 언행 경험여부·부모로부터의 방치여부 등에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심각하게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음.

-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대해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중간층에 비해 낮은 만족도와 부정적인 인식을 보여주었으며, 지역사회에 대해서도 보다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일상적인 비행·일탈행동 경험 및 비행행동을 통한 용돈조달 경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부적응 수준이 중간층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석일수 빈도도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진학 불가능 여부에 대해서 성적보다 경제적인 요인을 비진학 이유로 꼽은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중간층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남.

- 방과 후 혹은 주말 여가활동의 장애요인을 빈곤층의 경우 비용부담을 주요 요인으로 꼽아 시간부족을 주 장애 요인으로 언급한 중간층과는 차이가 있었음.

-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사회복지서비스(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의 이용 빈도가 24.7%에 불과해 조사대상 빈곤아동·청소년의 1/4만이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회복지서비스를 받은 것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빈곤 아동·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빈곤층이 중간층에 비해 기본적인 성장·발달에 있어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3. 정책제언

○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종합적 지원마련과 서비스 전달체계와 재원 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시설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외에 실제적으로 그들이 처해 있는 고통과 위기 상황을 고려·결정하여 현실적 실태에 근거한 지원책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함.

○ 경제위기 상황에 놓인 빈곤 아동·청소년을 적시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확대해야 함.

○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기본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우선적 서비스의 제공과 함께 의료, 교육, 주거 욕구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 서비스의 질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일원화된 서비스 전달체계의 구축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복지 서비스의 제공과 운영이 유기적으로 작용·기능할 수 있는 통합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을 위한 핵심 복지 기관의 증설이 요구됨.

○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계층의 지속적 증가는 이들에게 필요한 전문 인력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인력의 확보와 역량강화가 필요함.

목 차

- I. 서론 1
 -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 2. 연구내용과 방법 5
 - 1) 연구내용 5
 - 2) 연구방법 5

- II. 경제위기, 빈곤과 아동·청소년발달 7
 - 1. 경제적 상실과 빈곤의 상대적 중요성 12
 - 2.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발현되는 메커니즘 16
 - 1) 빈곤아동·청소년의 개별적 속성 19
 - 2) 빈곤아동·청소년의 가정생활 23
 - 3) 빈곤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27
 - 4) 빈곤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환경 30

- III.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와 욕구 33
 - 1. 조사개요 35
 - 1) 조사항목 35
 - 2) 조사방법 37
 - 2.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실태 41
 - 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질병을 앓은 경험과 치료유무 .. 42
 - 2)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 46
 - 3)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 62
 - 4)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정서적 건강상의 변화 64
 - 3.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 66
 - 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66
 - 2) 학교 선생님 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 70
 - 3) 지역사회 의식 및 경험 75
 - 4) 용돈 마련 방법 75
 - 5) 비행행동 경험 76
 - 4.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사회복지서비스 77

1)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학교생활적응과 대학진학 가능 여부	77
2)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여가활동	83
3)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85
5. 실태조사결과 요약	91
IV. 경제위기 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	99
1.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	101
2.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106
3.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109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전달체계의 구축	109
2) 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한 핵심 기관의 증설	111
3) 아동·청소년 전문인력의 활용과 역량강화	116
4.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원	116
5. 아동·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	118
V. 요약 및 제언	123
1. 요약	125
1)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실태	125
2)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	127
3)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사회복지서비스	128
2. 제언	129
1) 긴급위기에 빠진 빈곤아동·청소년사례의 발굴	129
2) 장기적·지속적인 개입	131
3) 이세대 프로그램(two-generation program)	131
4) 포괄적 개입	132
5) 통합적 사례관리	132
참 고 문 헌	135
부 록	153
1. 설문지	155
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세미나	168

표 목차

<표 III-1-1> 2009년 경제위기 설문지 문항 구성 체계	36
<표 III-1-2> 표집 기준 및 지역	38
<표 III-1-3>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역	38
<표 III-1-4> 2009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지역	39
<표 III-1-5> 2009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학교명단	40
<표 III-2-1> 질병을 앓은 경험-성별	42
<표 III-2-2> 위장 및 내과질환을 앓은 경험 -성별·부모님결혼상태	43
<표 III-2-3> 피부질환(아토피, 습진, 부스럼 등) -성별·경제수준	43
<표 III-2-4> 결핵 및 폐질환-부모님결혼상태	44
<표 III-2-5>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교급	44
<표 III-2-6> 충치 및 잇몸질환-교급	44
<표 III-2-7> 백혈병, 암 혹은 만성질환 (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등)-경제수준	45
<표 III-2-8>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경제 수준 간 비교	46
<표 III-2-9> 나는 더 외롭다고 느낀다 -성별·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47
<표 III-2-10>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 -성별·교급·경제수준	48
<표 III-2-11> 나는 자신감이 없어졌다 -성별·교급·경제수준	48
<표 III-2-12>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교급·경제수준	49
<표 III-2-13> 나는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50
<표 III-2-14>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성별·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51
<표 III-2-15> 나는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 한다-경제수준	52
<표 III-2-16>	나는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교급·경제수준	53
<표 III-2-17>	나의 문화체험, 수련활동 등의 여가활동이 줄었거나 중단하게 되었다-교급·경제수준	53
<표 III-2-18>	나의 용돈이 줄어들었다-교급·경제수준	54
<표 III-2-19>	나는 부모님 대신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교급·경제수준	55
<표 III-2-20>	우리집은 옷이나 신발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교급·경제수준	56
<표 III-2-21>	우리집은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간다 -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56
<표 III-2-22>	우리집은 집을 줄여 이사하여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성별·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57
<표 III-2-23>	우리집은 이웃이나 친척, 공공기관(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복지재단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58
<표 III-2-24>	우리집의 수입이 줄어 부모님 사이가 나빠졌다 -교급·경제수준	59
<표 III-2-25>	나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 -교급·경제수준	60
<표 III-2-26>	우리집은 가족 간에 폭력을 쓰며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60
<표 III-2-27>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 하신다 -교급·경제수준	61
<표 III-2-28>	나는 용돈과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62
<표 III-2-29>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 - 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63
<표 III-2-30>	최근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었다 -교급·경제수준	63
<표 III-2-31>	경제수준에 따른 변화 차이(초등학교+중학교)	65

<표 III-3-1>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실태 1	67
<표 III-3-2> 나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성별·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68
<표 III-3-3> 부모님이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69
<표 III-3-4>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실태 2	70
<표 III-3-5>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교급	71
<표 III-3-6>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교급·경제수준·부모학력수준	72
<표 III-3-7> 학교생활 만족도 -성별·교급·경제수준·부친학력수준	73
<표 III-3-8>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 경험	74
<표 III-3-9>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고 한다	75
<표 III-3-10> 부모로부터 용돈수령·절도와 강탈·성매매나 원조교제	76
<표 III-3-11> 흡연·절도경험·강탈경험-경제수준별 비교	76
<표 III-4-1> 학교생활 적응 정도 -교급·경제수준·부모결혼상태 비교	77
<표 III-4-2> 학교에 가지 않은 날 수 -교급·경제수준·부모학력·부모결혼상태 비교	79
<표 III-4-3> 학교 결석 이유-성별·교급·경제수준별 비교	80
<표 III-4-4> 대학 진학 가능 여부	81
<표 III-4-5> 대학진학을 못하는 이유 -성별·교급·경제수준별 비교	82
<표 III-4-6> 현재 여가활동 (복수응답)	83
<표 III-4-7> 여가활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사항 -교급·경제수준별 비교	84
<표 III-4-8>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참여 -일부 세부변인별 비교	86
<표 III-4-9>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만족도	

-일부 세부변인별 비교	88
<표 III-4-10>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급식, 상담, 후원 등) 이용 여부 -교급·경제수준별 비교	89
<표 III-4-11> 사회복지서비스(급식, 상담, 후원등)에 대한 인식 -교급·경제수준	91
<표 IV-1-1> 자립지원 필요 및 당면 위기 아동· 청소년의 규모	103
<표 IV-1-2> 위기 단계 및 유형별 위기 청소년의 규모	103
<표 IV-1-3> 학업중단, 가출, 빈곤 등 위기 아동·청소년 현황(9~18세)	105
<표 IV-2-1> 특별지원 청소년의 지원내용과 종류	108
<표 IV-2-2> 특별지원 청소년의 지원내용 건수와 금액	108
<표 IV-3-1>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	110
<표 IV-3-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차별 확대계획	114
<표 IV-3-3> 보호시설 현황 및 가용인원(일평균 실 인원)	114
<표 IV-3-4> 연차별 청소년쉼터 확대계획	115
<표 IV-4-1> 드림스타트 사업지역과 예산	117

그림 목차

[그림 Ⅲ-2-1] 최근 질병을 앓은 경험 - 전체·성별 비교	42
[그림 Ⅲ-2-2] 치료를 받지 않는 이유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46
[그림 Ⅲ-2-3] 최근 경제위기 후의 심리적 변화I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49
[그림 Ⅲ-2-4] 최근 경제위기 후의 심리적 변화 II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51
[그림 Ⅲ-2-5] 최근 경제위기 후의 생활상의 변화I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54
[그림 Ⅲ-2-6] 최근 경제위기 후의 생활상의 변화II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58
[그림 Ⅲ-2-7] 최근 경제위기 후의 가족관계 변화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61
[그림 Ⅲ-2-8]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변화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64
[그림 Ⅲ-3-1] 가족 내 갈등 실태 I - 경제수준별 비교	66
[그림 Ⅲ-3-2] 가족 내 갈등 실태 II - 경제수준별 비교	69
[그림 Ⅲ-3-3] 학교 선생님과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71
[그림 Ⅲ-3-4] 학교 선생님과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73
[그림 Ⅲ-4-1] 학교생활 적응 정도-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78
[그림 Ⅲ-4-2] 대한 진학이 가능 여부-전체·경제수준별 비교	80
[그림 Ⅲ-4-3] 대학진학을 못하는 이유-전체·경제수준별 비교	81
[그림 Ⅲ-4-4] 여가활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사항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84
[그림 Ⅲ-4-5]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참여도 -전체·전체비교	85
[그림 Ⅲ-4-6]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만족도 -전체비교	87

[그림 Ⅲ-4-7]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이용 여부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89
[그림 Ⅲ-4-8]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전체비교	90

1. 서론

1. 연구목적과 필요성
2. 연구내용과 방법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아동·청소년의 빈곤률이 증가하고 계층 간 불평등이 심화되는 등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이 요구되고 있다. 아동·청소년 절대빈곤률은 2001년 5.4%에서 2006년 8.5%로 증가하였으며, 상대빈곤률도 중위소득 50% 기준에서 살펴보면 2001년 9.9%에서 2005년 11.0%로 증가하는 추세이다(통계청, 가계조사 각 년도, 보건복지가족부 외, 2008). 또한 1~5분위 간 사교육비 지출격차는 2003년 4.8배에서 2006년 6.1배로 증가하는 등 소득계층 간 교육기회 격차가 증가하고 있다(통계청, 소득 5분위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조사 각 년도).

빈곤은 아동·청소년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부정적 경험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취약한 아동·청소년의 평생의 복리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관심은 매우 중요하다. 실제로 빈곤은 아동·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참여 등 기본적 권리를 위협하고 빈곤 아동·청소년의 방치는 실업, 범죄, 복지수요 발생을 야기하여 더 큰 사회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 또한 빈곤아동·청소년의 학습 결손, 정서발달 장애, 신체 발달 부진 등은 학교 부적응 및 학업성취 저하와 문제행동 발생 가능성을 높여 빈곤 대물림에 기여하며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빈곤아동·청소년의 심각한 생활 악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갑작스런 빈곤층 양산으로 새로운 빈곤아동·청소년을 양산하고 있기도 하다. 글로벌 경제위기에 따른 경기침체 가속화와 이로 인한 실업 증가 및 소득하락으로 가정해체 및 가족기능이 저하되고 아동·노인·장애인 방임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악화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는 다양한 형태로 실제 드러나고 있다.¹⁾

1) '대구 초등생 집단 성폭력은 누구의 죄인가... 빈곤으로 인한 오랜 방임'(한겨레21 2008.5.8), 'SOS 벼랑 끝의 아이들-절대빈곤 속 생존권 위협'(동아일보 2008.5.26),

90년대 말과 같은 경제위기 재현 시 국내 전체 가구의 20.9%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이며 17%의 복지 사각지대가 예상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제외하고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10%(1분위)의 경우 경제위기가 닥치면 60.3%가 기초생활보장이나 고용보험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가족의 부양기능 약화는 취약집단인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킬 것이며, 실제로 '97년 외환위기 시기 요보호 아동은 '97년 12천명에서 '98년 15천명으로 27% 급증했고(보건복지가족부, 2008. 12) 아동·청소년의 정신적·경제적 불안정이 증가하여 사회문제로 대두한 바 있다.

지속적인 경기악화로 생계가 어려워진 빈곤층과 실직자가 늘어나는 등 중산층이나 서민층이 빈곤층으로 전락하면서 경제기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위기 과정에서 낙오되는 신빈곤층에 대한 사회지원과 사회안전망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경제위기는 특히 취약계층인 아동·청소년을 위협과 고통에 노출시키게 되므로 이들에 대한 실태와 욕구과약을 통해 빈곤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는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과약을 통해 사회적 지원대책 마련의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결과는 경제위기 지속·심화에 따른 빈곤아동·청소년 실태관련 기초자료 생산과 이후 본격적인 빈곤아동·청소년 연구를 위한 시사점 제공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위험한 사회 대한민국 시리즈물(중앙일보 2008.11.3~5)’, ‘중산층을 살려라 시리즈물(문화일보 2008.11.3)’, ‘불황 한파 맡겨지는 아이들 급증’(문화일보 2008.12.19), ‘가난에 학교 떠나는 아이들’(서울신문 2009.1.7), ‘아이들 셋을 굶길 수는 없었어요’(뉴시스 2009.1.12), ‘두 번 버려진 아이들 시리즈물(중앙일보 2009.1.14~16)’, ‘외환위기...금융위기... 거리 내몰린 10대들(중앙일보 2009.1.14)’

2. 연구내용과 방법

1) 연구내용

(1) 경제위기와 빈곤아동·청소년 관련 선행연구 검토

경제위기와 빈곤과 아동·청소년 발달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통해 경제위기 및 빈곤문제와 아동·청소년 발달과의 관계 및 영향력에 대한 선행 논의들을 파악하도록 한다.

(2) 빈곤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파악

설문조사를 통해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빈곤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를 파악하도록 한다. 연구 시급성으로 인한 예산 및 시간제약으로 서울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거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다.

(3) 빈곤아동·청소년 정책과제 제안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한 빈곤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와 욕구 및 빈곤아동·청소년 관련 정책현황 분석을 통해 향후 빈곤아동·청소년 지원을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제안하도록 한다.

2) 연구방법

(1) 문헌연구

경제위기 및 빈곤과 아동·청소년 발달에 관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정부 및 민간의 다양한 빈곤아동·청소년 지원대책 현황에 대한 문서와 정책자료들을 검토한다.

(2) 전문가 자문

연구방향 설정 및 설문지 개발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함으로써 연구

목적에 부합하는 세부 연구내용 및 방법설계와 조사도구 개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전문가 자문은 이메일을 통한 온라인 자문으로 2회에 걸쳐 진행되었다. 1차 자문은 전반적인 연구방향 설정 및 연구설계에 대한 내용을, 2차 자문은 조사도구 개발 및 표집설계와 관련된 보다 세부적인 의견을 수렴하였다.

(3) 설문조사

서울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거주 빈곤아동·청소년(초등학생 5학년, 중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표본 추출을 위해 선정된 학교는 총 14개교(초등학교 및 중학교 각 7개교)이며 조사는 2009년 2월 4일부터 약 1주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설문조사에 응한 초·중학생의 수는 총 814명이었다(조사방법에 대한 세부내용은 본문 참조).

(4) 긴급정책세미나 개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현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아동·청소년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빈곤아동·청소년을 위한 정부, 학계, 현장의 대책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009년 2월 27일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이라는 제목의 긴급정책세미나를 개최하였다(세미나 세부일정은 부록 참조).

II. 경제위기, 빈곤과 아동·청소년 발달

1. 경제적 상실과 빈곤의 상대적 중요성
2.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발현되는 메커니즘

II. 경제위기, 빈곤과 아동·청소년발달

세계적으로 금융 및 실물경제 위기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금융위기가 실물경제위기를 낳고 실물경제위기가 다시 금융위기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이 심화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 경제는 1997년 말 외환위기 상황처럼 급성은 아닐지라도 그때에 못지않게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11년 전 경제위기는 아시아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국제통화기금(IMF)의 긴급 지원을 받기가 비교적 쉬웠고, 세계경제의 호황으로 수출이 늘어나 우리나라의 위기 조기극복을 견인했다. 또한 그때까지만 해도 건전했던 국가재정의 힘으로 금융의 부실을 보완할 수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세계적인 차원에서 금융과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다발로 확산되면서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대상국인 미국, 중국, 유럽연합(EU)에서도 경기침체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내수 시장이 작아 수출마저 추락하면 경제의 활로를 찾기 어렵게 되는데, 이미 수출은 급격한 감소율을 보이고 있다. 세계 최고수준의 국내기업들도 영업적자를 내고 있고 더 심각한 수준에 있는 건설 및 조선업체들은 이미 구조조정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경제위기가 심각해지면서, 경기변동에 가장 취약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 ‘서민경제’에서부터 직격탄을 맞고 있다. 최근 2개월 사이에 42만명의 자영업자가 도산하거나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09년 1월 자영업자수는 558만7천명으로 2개월 전인 2008년 11월의 600만3천명에 비해 41만6천명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어다. 이는 순감소된 인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시기에 창업한 인원을 감안하면 도산하거나 폐업한 인원은 42만명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몇 년간 계속된 구조조정에 전대미문의 경기침체라는 대형 악재까지 겹치면서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가시화되고 있다. 자영업 경기는 심각한 수준에 있으며, 자영업자들이 현재 체감하는 고통은 이미 위험 수준까지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중소기업계에서도 업종에 따라 이미 부도, 감원, 무급휴가 등 IMF 외환위

기 때의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다. 중소기업들을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악재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통화옵션상품(키코)의 피해를 본 중소기업들은 물론이고, 매출 부진에 따른 부도나 감원이 잇따르고 있다. 키코의 피해를 본 기업들이 이미 흑자도산을 한 상태이며, 나머지 기업들 가운데 상당수도 부도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키코 피해 기업의 부도가 바로 하청업체의 부실로 연결되어 대량 실직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내수시장에 기반을 둔 업종에서도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고, 이는 업체의 매출 감소로 연결되기 때문에 이미 부도업체가 나오기 시작하고 감원설도 돌고 있다. 수출 중소기업은 세계적인 수요 감소로 납품 물량이 줄고 있고, 수입업체는 환율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싹틔줄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한파가 덮치고 있다.

최근 두 차례 경제위기의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는 과거에 비해 전체 실업자 중 기혼 실업자의 비중이 미혼 실업자보다 크게 증가한 점이다. 또한 두 차례 경제위기에서 볼 수 있듯이 자영업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준비되지 않은 계층에게 그 피해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이는 위기의 충격이 경제 활동 당사자 개인에게 한정되지 않고 그 가족 특히 그 자녀들에게까지 확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구인회, 2003a). 이렇게 우리나라를 뒷받침하던 서민 경제는 몰락하고 경제위기의 직격탄이 빈곤가정을 강타하면서 신빈곤층이 증가하고 절대빈곤계층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다. 이 때문에 가정해체 현상이 뚜렷해졌고 이로 인해 빈곤아동·청소년문제도 골이 깊어졌다. 특히 이번의 경제위기는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동반하여 쉽게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문제의 골은 더욱 더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빈곤은 인간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나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빈곤문제는 급속한 경제성장의 과정에서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1997년 말의 IMF 외환위기를 계기로 빈곤은 중요한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고 빈곤아동·청소년들의 심각한 실태가 알려지기 시작하였다. 최근 빈곤은 부모세대 빈곤의 만성화와 자식세대로의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특징 지워진다. 우리나라에서 절대빈곤층이 차상위 계층 이상으로 소득수준

이 상승하여 실질적으로 빈곤을 벗어나는 비율을 나타내는 ‘빈곤탈출률’은 불과 6%로 나타났다(김대일, 2004). 이는 최근 빈곤층으로 추락한 사람들이 ‘빈곤의 함정’에 빠져 쉽게 빈곤에서 탈출하지 못하여 빈곤이 만성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빈곤의 함정’ 현상이 지속되면 사회계층의 양극화가 심각해지고 빈민집단이 사회불안을 야기하게 된다. 어느 사회에서든 다수의 빈민이 존재한다는 것은 빈곤하지 않은 다른 계층과 집단에게 심각한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

또한 빈곤문제는 대부분 인간의 삶을 황폐하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낳는다. 여러 연구에서 빈곤은 이를 경험하는 모든 사람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아동기의 빈곤 경험은 특히 그 해악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빈곤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아동들이 가장 심각한 피해자가 되고 있는 셈이다. 빈곤은 아동·청소년에게 정상적인 발달과업을 성취하는데 장애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그 장애들이 누적되어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빈곤이 세대 간에 대물림되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 이러한 빈곤의 대물림 현상은 빈곤부모에게는 자녀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하고 빈곤아동·청소년에게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버리게 함으로써 사회통합을 어렵게 한다.

빈곤은 그 상황에 처해있는 개인과 가족에게는 삶과 죽음이라는 인간생존 자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다(최일섭, 2000). 이들에게 빈곤은 인간에게 필요한 기본적인 의식주 생활을 불가능하게 한다. 또한 빈곤은 이들이 유해하고 불결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하고, 교육의 기회가 제한될 수 있어 경제활동에 쉽게 참여할 수 없게 한다. 부적절한 영양 상태와 의료혜택의 부재로 인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도 없게 한다. 이렇게 빈곤은 삶의 기본적인 것을 제한하는 성질을 띤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빈민들은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항상 굴욕과 열등감을 갖고 대인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으며 심한 경우 사회의 도덕과 규범에 위배되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빈곤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것이 비행, 범죄, 알코올 중독 등 수많은 병리현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이다.

특히 빈곤이 아동·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발육부진, 발달지체 등과 같은 신체발달의 문제에서 저(低)지능, 학업부진, 학교중퇴 등과 같은 인지발달의 문제, 우울·불안 등과 같은 내면화 문제 및 공격성·비행 등과 같은 외현화 문제 등을 포함한 심리사회발달 문제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아동기 결식문제에서 비롯된 영양의 불균형은 성인기에 골다공증(칼슘 부족), 위암, 뇌졸중(염분 과다섭취), 당뇨(비만)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며, 특히 철분결핍성 빈혈은 인지능력의 저하와 관련된다는 보고도 있다(Pollite et al., 1985). 이런 연구들은 간접적이거나 빈곤아동·청소년들이 장기적으로 열악한 건강수준을 가질 수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성주현, 2003). 또한 빈곤은 아동·청소년을 다양한 환경적 위협에 노출시키기 때문에 비행의 근본 원인 중의 하나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발달상의 문제는 곧 빈곤의 세대 간 전이가능성과 연결되므로 빈곤가정에서의 아동·청소년발달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빈곤아동·청소년은 가정의 부적절한 환경으로 인해 사회·정서적인 어려움이나 학습·학교생활에서의 부적응 행동 등이 다른 계층의 아동·청소년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아동기 초기에는 그 문제의 정도가 현저하지 않으므로 자칫 간과하기 쉽다. 이로 인해 청소년기에 더 큰 문제로 악화되는 경우도 쉽게 발생할 수 있다(Dubow & Ippolito, 1994; Garnezy, 1991).

1. 경제적 상실과 빈곤의 상대적 중요성

경제위기는 실직이나 소득상실 등을 통한 경제적 상실(economic loss)을 급속하게 확산시킨다. 이미 빈곤한 사람에게는 경제위기 효과의 크기는 그렇게 크지 않다. 경제적 상실과 빈곤은 둘 다 아동·청소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틀림없지만 둘 중 어느 것이 더 아동·청소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경제적 상실과 아동·청소년발달을 관련시키는 연구에 내재된 전통적 가정 중의 하나는 경제적 스트레스가 만성적인 경제적 궁핍보다는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상태의 급속한

변화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이다. 급격한 경제적 상황의 악화는 일상적인 생활방식을 붕괴시키고 가족의 욕구와 자원 사이에 고통스러운 불일치를 발생시켜 만성적인 빈곤보다 훨씬 크게 스트레스를 초래한다는 것이다(Elder & Caspi, 1988). 이에 대한 대립적 주장은 빈곤은 경제적 궁핍 상태 중에서도 가장 극심한 수준의 궁핍을 나타내는 것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상실이 미치는 영향은 경제적 상실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경제적 상실이 초래한 빈곤상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본다(Augustyniak, Duncan, & Liker, 1985; Pearlin, Liebman, Menaghan, & Mullan, 1981). 따라서 경제적 상실보다는 경제적 상실이 가져오는 빈곤 그 자체가 더 심각한 영향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한다.

실직과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상실은 이를 경험하는 개인과 가족에게 우선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하지만 그 고통이 경제적인 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니다(구인회, 2003b). 실직은 개인의 정신건강과 가족관계, 아동·청소년의 발달 등의 개인과 가족의 삶에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로는 Elder(1974)의 연구가 있는데, Elder는 대공황기에 약 10세 아동들을 60대가 될 때까지 추적한 자료를 분석하여 대공황이라는 역사적 사건이 인간발달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를 장기연구를 통해서 조사하였다. 아동·청소년은 부모의 실직과 같은 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집단일 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은 이들 평생의 복리수준에 지속적이고 누적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Elder, 1985; McLanahan & Sandefur, 1994).

실직과 소득상실 등의 경제적 상실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발달에 관련을 갖는다.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동·청소년의 건강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며,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안녕감이나 행동상의 문제, 교육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Voydanoff, 1990). 경제적 궁핍(economic hardship)은 부모의 지지적 양육행위를 줄이고 훈육방식의 일관성을 떨어뜨리고 청소년의 심리적 디스트레스를 증대시킨다(Lempers, Clark-Lempers, & Simons, 1989). 소득상실은 부의 자의적이고 비일관된 훈육방식을 증가시키고 모의

양육태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쳐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초래한다(Elder, Van Nguyen, & Caspi, 1985; Elder & Caspi, 1988). 경제적 스트레스는 아동·청소년의 인지적, 학업적 발달과 교육성취에도 영향을 미친다(Conger, Conger, & Elder, 1997; McLoyd, 1998; Gutman & Eccles, 1999). 갈등적인 가족관계와 부모 양육행위의 변화와 자녀의 학업에 대한 관여 감소는 청소년의 학업적 성취 수준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rody, Stoneman, & Flor, 1995; Gutman & Eccles, 1999; McLoyd, 1989).

우리나라의 절대 다수의 연구가 실직이 성인 개인이나 부부관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고, 발달단계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그 부정적 영향이 가장 크게 우려되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직의 영향을 분석한 연구는 극히 드물다. 소수의 연구만이 부모실직과 아동·청소년의 정서상 문제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인지적 기능이나 학업적 발달, 교육성취 등의 아동·청소년 발달과 관련된 다른 중요 지표에 대해서는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부모실직과 아동·청소년의 정서상 문제의 관계를 다루는 연구로는 이훈구·윤소연·정혜경(1998)이 있다. 이 연구는 초등학교 4·6학년에 재학 중인 아동·청소년 336명을 대상으로 실직가정과 비실직가정 아동·청소년 사이에 정서적 문제에 차이가 있는지 정서문제 차이에 관련이 있는 요인은 무엇인지를 분석하였다. 아버지의 실직과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발달의 관계에 대한 분석의 결과 비실직가정에 비해 실직가정의 초등학생 자녀가 높은 수준의 우울, 불안 상태에 있음을 밝혔다. 또한 실직가정과 비실직가정 아동·청소년 사이에는 아동·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태도와 문제행동, 가족결속력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한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비해 자녀에 대해 적대감이나 거부나 학대행위를 보이고 애정표현이 적으며 무관심, 방임의 경향을 보인다. 또 실직한 아버지는 그렇지 않은 아버지에 비해 정서상의 문제나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에서 갈등적, 회피적 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이훈구·윤소연·정혜경, 1998). 이 연구에서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분석결과는 실직이 아버지의 정서상의 문제를 일으키고 이것이 다시 부부관계와 가족관계의 갈등, 아버지의 양육행동 악화를 초래

하여 아동·청소년의 우울, 불안을 증대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구인회(2003b)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의 실직은 청소년의 학력연수와 대학 입학확률과 부적인 관계를 보였다. 부모의 실직이나 소득상실이 학력연수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았지만, 대학입학에는 영향을 크게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대학입학이 개인 평생의 복리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할 때, 이러한 결과는 외환위기로 인한 부모의 실직이나 소득상실이 청소년의 생애 기회에 심각한 제한을 가했음을 보여준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부모실직이나 소득상실의 부정적 영향은 여자청소년에게서는 일관되게 나타난 반면, 남자청소년에게서는 부정적 영향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여자청소년이 남자청소년에 비해 경제적 상실이라는 동일한 위험에 대해 취약성(vulnerability)이 커서 부모실직이나 소득상실의 영향이 여자 청소년에게 강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부모실직이나 소득상실은 가족 소득을 통제한 후에도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소득수준 또한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며 빈곤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력은 월평균소득이나 욕구 소득비의 영향력의 몇 배의 크기에 이른다. 부모실직이나 소득상실의 영향은 매우 커서 빈곤의 효과에 비교할 수 있는 정도라는 점을 알 수 있다.

서구의 많은 연구들이 경제적 상실이 부모의 양육행위를 매개로 하여 아동·청소년의 사회정서적 기능이나 학업성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Elder, 1974; Elder, Liker, & Cross, 1984; Elder, Nguyen, & Caspi, 1985; Lempers et al., 1989; Conger et al., 1992; McLoyd, Jayaratne, Ceballo, & Borquez, 1994). 최근 우리나라의 관련연구도 지난 경제위기가 가족과 아동·청소년에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실업은 가족관계에서 긴장을 증대시키고 아동·청소년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장혜경·김영란, 1998; 임인숙, 2000; 조성희, 1999;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구인회, 2002; 이훈구·윤소연·정혜경, 1998; 장혜경·김영란, 1999). 이러한 설명은 빈곤의 영향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어서 영향의 메커니즘은 단순히 빈곤이 경제적 상실로 치환되었을 뿐인 것으로 판단된다.

경제적 상실과 빈곤의 비교는 급성 스트레스와 만성 스트레스의 비교로 간주될 수 있다. 급성 스트레스지만 시간이 길어진다면 만성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향 메커니즘은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그 충격의 여파가 어느 정도 미칠지는 발달단계마다 다를 수 있다. 영유아기의 경제적 상실은 영양결핍을 가져와 인지능력의 지체를 가져올 수도 있고, 청소년기의 경제적 상실은 자존감의 심각한 손상을 가져올 수도 있다. 청소년기의 만성적 빈곤은 자존감의 상실보다 학습능력의 누적된 결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어떤 문제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경제적 상실과 빈곤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아동기의 만성적 빈곤을 경험한 아동은 우울이나 사회적 위축 등 내면화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급격한 경제적 상실을 경험한 아동은 공격성이나 비행 등 외현화 문제를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급속한 경제적 상실은 남자보다는 여자에게 더 부정적 영향이 드러나고 있다. 발달단계, 문제유형, 성별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기 때문에 경제적 상실과 빈곤 중 어느 것의 영향이 더 부정적인지는 쉽게 결론내리기 어렵다. 하지만 경제적 상실과 빈곤은 모두 부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만은 확실하다. 경제적 상실이 만성적인 빈곤으로 전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면 급속한 경제적 상실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효과를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만성적인 빈곤이 가져오는 폐해까지 동시에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2. 빈곤의 부정적 영향이 발현되는 메커니즘

경제적 상실과 빈곤 중 무엇이 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경제적 상실과 빈곤은 비슷한 메커니즘을 통해 아동·청소년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여기서는 경제적 상실과 빈곤을 구분하지 않고 빈곤의 부정적인 영향이 발현되는 메커니즘을 생태체계적 관점을 통해 검토하도록 한다. 빈곤이 아동·청소년에게 부정적인 영향

을 미친다는 사실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면 모든 빈곤아동은 문제청소년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회에는 빈곤하지만 적응을 잘하여 건강한 성인으로 자라나는 빈곤아동·청소년들이 많이 존재한다. 빈곤영향의 부정적 메커니즘만으로는 이들을 설명할 여지가 없다. 단순한 위험모델에서는 빈곤아동·청소년이 잘 적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빈곤하지 않은 아동·청소년들보다 더 많은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음을 강조한다(Huston, 1991; McCormick & Brooks-Gunn, 1989; Parker et al., 1988). 즉, 빈곤아동·청소년들은 출생시 저체중,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 실직, 모성의 우울, 사회적 지지의 결핍, 스트레스적인 생활사건, 또는 부적절한 양육행동과 태도 등과 같은 생물학적·환경적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있고 이러한 빈곤관련 요인들은 아동·청소년발달과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것이다(Brooks-Gunn, 1993; Huston, 1991; Liaw & Brooks-Gunn, 1993; McLoyd, 1990, 1998).

위험모델은 동일한 빈곤 상황에서도 경험하는 위험요인의 개수와 종류에 있어 상이할 수 있음을 제시함으로써 빈곤아동·청소년들 간의 적응정도 차이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논리로는 위험에 많이 노출될수록 아동·청소년의 적응 수준은 떨어져야 한다. 현실에서는 빈곤이라는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도 잘 적응해가는 아동·청소년이 존재한다. 위험모델은 이들의 존재를 설명할 여지가 전혀 없다. 특히 고위험의 상황에서도 역량과 장점을 회복하고 더 높은 적응수준을 보이는 속성 즉, 적응유연성을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빈곤아동·청소년의 발달을 설명하는 이론에서 점점 보호요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이는 빈곤이라는 상황에서 적응의 개인차를 보다 적절히 설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Hernandez, 1993; 박현선, 1998a, 1998b). 보호요인이란 취약한 환경조건 하에서도 위험요인과 작용하여 부정적인 발달산물의 가능성을 경감시키는 요소이다. 예를 들어 가족 중 적어도 한 사람과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고, 어린 시절부터 양육자와 기본적인 신뢰를 통해 안정적인 애착관계를 형성했으며, 서로 가족내 역할에 협조적이고, 통제와 애정이 적절하게 균형잡힌 민주적인 양육태도가 이루어질 때, 적응유연성이 발달할 수 있는 가족분위기가 된다. 또한 자녀와 부모가 가치를

공유하고, 부모가 자녀의 미래에 대한 낙관적인 견해를 가지며, 가족 내 의사소통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며, 가족응집력이 높고 부모 및 자녀의 역할이 잘 규정되어 있는 가정이 보호적인 기능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lock & Block, 1980; Clark, 1983; Garnezy, 1991; Kirby & Fraser, 1997; Rutter, 1990; Werner, 1990; Werner & Smith, 1987). 이외에도 학교 분위기 자체가 학생의 욕구에 반응적이고 뚜렷한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예측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며, 믿고 따를 수 있는 교사가 존재하고, 아동·청소년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교과과정 및 그 이외의 과외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때 심리사회적 발달에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Garnezy, 1991, 1993; Werner, 1990).

최근 연구에서 빈곤과 관련이 있는 다양한 위험요인들과 보호요인들이 점점 밝혀지고 있다. 특히 부모의 양육행동이나 태도, 또래집단의 유형과 상호작용, 그리고 아동·청소년들이 생활하는 지역사회 사회의 사회적 지지 또는 사회통제와 같은 특성들이 빈곤의 영향을 매개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연구는 다양한 위험 혹은 보호요인들의 빈곤과의 통계적인 상관관계만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이 빈곤과 아동·청소년발달의 인과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다. 단지 위험요인이든 보호요인이든 요인(factor)에 대한 관심만으로는 빈곤아동·청소년을 둘러싼 전체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다.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에 내재된 과정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야 빈곤아동·청소년의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확대가족의 사회적 지지라는 요인이 빈곤아동·청소년에게 도움이 된다고 단순히 결론짓기보다 “왜” 또는 “어떻게” 이러한 상관관계가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것이다. 부모는 친척들의 지지를 통해 도움을 받게 되고 이는 부모의 양육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양육행동은 아동·청소년의 긍정적인 사회정서적 발달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나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이후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개입이나 이론 형성에 큰 도움을 주게 된다.

빈곤아동·청소년 내에는 개인에 따라 빈곤에 대한 취약성과 빈곤 위험에 대한 극복 가능성에 있어 커다란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의 연구들은 횡단적

상관관계를 통해 밝혀진 빈곤아동·청소년의 특성을 일반화하기보다는 빈곤이 아동·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다양한 개념 및 모형들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즉, 빈곤의 영향을 과정이나 메커니즘 개념을 통해 종단적으로 살펴보거나, 일부 빈곤아동·청소년들의 긍정적인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적응 유연성의 개념이나 관찰대상 중심적(person-centered) 모형을 도입하기도 하였다. 기존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관찰변수 중심적(variable-centered) 접근에서는 모든 아동·청소년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평균 발달궤적을 밝히는데 중점을 두는데 반하여, 관찰대상 중심적(person-centered) 접근에서는 다양한 발달궤적(developmental trajectories)을 제시한다(Chung, Nagin, Hawkins, & Hill, 2001). 관찰변수 중심적 접근은 일반적인 경향을 밝히는 데는 유용하지만 같은 유형의 집단 내에서 다양한 차이를 밝히는데 한계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 반면 관찰대상 중심적 접근에서는 동일집단 내 다양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빈곤아동·청소년내의 개인적 차이를 밝히는데 용이하다.

1) 빈곤아동·청소년의 개별적 속성

정보처리 이론(social information-processing theory)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은 특정 상황에서 갈등적이거나 일탈적인 해결책을 피하고 사회적으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내는 것을 어렵게 하는 인지능력의 결핍 때문에 일어난다(Dodge, 1991, 1993; Crick & Dodge, 1994; Chung, 2004). 빈곤가족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들은 이러한 인지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자원이나 기회 획득의 가능성이 낮다. 즉 빈곤한 가족은 책, 장난감, 컴퓨터 등과 같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빈곤가족에서 성장하는 아동·청소년은 인지적으로 자극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할 확률이 낮아진다(Mayer, 1997a; Downey, 1994; Gerard & Buehler, 1999; Seccombe, 2000).

빈곤은 인지능력의 부족이나 학업성취의 실패를 가져오기 때문에 정보처리의 모든 단계에서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인지능력이 개발되면 특정 갈등

상황에서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생각해내고 그 중 사회적으로 적절하고 바람직한 해결책을 선택할 수 있다. 반면 아동·청소년이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공격성이 높으면 상대방이 보내는 신호(cues)에 둔감할 뿐만 아니라 적대적인 신호에만 선별적으로 관심을 집중한다(Dodge & Newman, 1981; Gouze, 1987). 그리고 신호의 의도를 해석하는 데도 문제가 있으며, 무슨 신호든 그 의도가 적대적인 것으로 귀속(귀인)시켜 버리는 편견(attributional bias)을 보인다(Dodge & Feldman, 1990; Dodge & Coie, 1987). 또한 초기 반응이 성공적이지 않았을 때 다른 종류의 반응을 찾아내는 것도 어려워한다(Rubin et al., 1991). 이러한 아동·청소년들은 반사회적 행동을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반사회적 행동을 가장 적절한 반응으로 선택할 확률이 높다(Garber et al., 1991; Dodge et al., 1990).

빈곤아동·청소년들은 수준 높은 단어의 사용, 글씨에 대한 흥미 등 언어적 측면의 발달이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빈곤가정의 언어적 결핍을 확연히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이재연·백정재, 1997; 권중돈, 2000). 빈곤 아동·청소년의 낮은 언어능력은 대다수의 빈민지역 부모들이 저녁 늦게까지 근무를 해야 하는 등의 불규칙한 직업을 가지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시간이 없거나 피곤하거나 생활에 여유가 없어서 자녀들과의 충분한 대화를 할 수 없거나 기피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이 경우, 1988). 빈곤아동·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낮은 언어발달은 이렇게 부모와 아동·청소년사이의 상호작용 부족과 잘못된 양육태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박소혜, 1995). 또한 지역사회로부터도 바람직한 언어 모델을 제공받을 수 없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들은 자연히 바람직한 언어를 발달시키기가 어렵게 된다. 이러한 언어적 능력이 개발되어 있지 않으면 갈등상황에서 언어적 방법을 통한 이해와 설득보다는 강압과 폭력과 같은 물리적인 방법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기 쉽다.

일반적인 지적 능력을 살펴보면, IQ 및 표준화된 지능검사를 실시한 많은 연구에서 빈곤아동·청소년은 중산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유의미하게 낮은 IQ를 보임을 알 수 있다(Korenman, Miller, & Sjaastad, 1995; Peters & Mullis, 1997; Smith, Brooks-Gunn, & Klebanov, 1997; 한충효, 1982). 그러

나 빈곤아동·청소년도 높은 지능을 가질 수 있으며, 이러한 높은 지능은 빈곤아동·청소년의 적응과 부적응을 구분하는 중요한 보호요인 중의 하나이다(Werner & Smith, 1992; Luthar, 1999). 지능이 높은 아동·청소년들은 높은 문제해결능력과 대처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 행동의 결과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할뿐만 아니라 쉽게 만족을 지연시키며 충동을 억제한다. 또한 높은 지능은 학업성취와도 연결된다. 하지만 빈곤과 관련성이 높은 생활상의 어려움이나 정서적 스트레스의 누적 등과 같은 부정적 상황에서 높은 지능의 이러한 보호적 효과들은 약화되기 쉽다. 지능이 높은 빈곤아동·청소년들은 지능이 낮은 아동·청소년보다 학교적응과 관련된 변수에서 더 나은 것으로 나타나지만, 부정적인 상황이 누적되면 이러한 장점은 사라지고 지능이 낮은 아동·청소년들과 학교적응 면에서 비슷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Luthar, 1999).

천성적으로 착하고 기질적으로 순한 영·유아는 아동기에 빈곤 등과 같은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적응유연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erner & Smith, 1992). 반면 까다로운 기질은 빈곤과 관련된 위험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질적으로 까다로운 아동은 빈곤 상황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인내심이 약해진 양육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한층 악화시킨다(Farber & Egeland, 1987). 또한 높은 자아존중감을 가진 아동·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아동·청소년에 비해 학교에의 규칙적인 출석, 높은 성적 등과 같은 긍정적인 교육적 발달산물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onnell et al., 1994). 빈곤 아동·청소년에게도 자아존중감이 학업성취, 정신건강, 또래집단이나 성인과 의 관계 등 여러 가지 영역에서 보호적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Cicchetti, Rogosch, Lynch, & Holt, 1993).

빈곤이 아동·청소년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아동·청소년의 성별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 빈곤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연구에서 아동기 초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일련의 가족기능의 문제에 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Luthar, 1999). 예를 들어 유아기에 모성의 정신병적 증후에 노출될 경우 이후 아동기에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은 정신병적 증후를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Shaw et al., 1994). 또한 학령전기에 모성의 높은 분노나 우울증에 노출된 남아는 여아에 비해 적응문제를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Wall & Holden, 1994). 유사하게 초등학교 시기에도 남아는 여아보다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더 많이 보임으로써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에 훨씬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Bolger et al., 1995).

남아는 여아보다 불안이나 우울 같은 내면화 문제보다 공격성이나 과잉행동장애와 같은 외현화 문제로 자신의 스트레스를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 아동·청소년들의 행동문제들은 일반적으로 양육자의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는데, 문제를 일으키는 아동·청소년이 남아일 경우 이러한 반응이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남아의 공격성은 또래집단의 부정적인 반응과 성인들의 처벌을 더 많이 불러오는 경향이 있으며, 이러한 반응들은 시간이 갈수록 행동문제의 심각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Rutter, 1990). 반면 연령이 높은 빈곤아동·청소년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여아가 가족기능과 관련된 스트레스에 남아보다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Luthar, 1999). 또한 여아가 남아보다 대인관계와 관련된 스트레스적인 경험에서도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인관계에서 일반적으로 양보하고 타협하도록 사회화되는 경향이 높은 여아가 대인관계에 대한 민감성이 높기 때문에 대인관계 문제와 관련된 사건에 훨씬 더 상처를 많이 받고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여자청소년의 경우 남자청소년보다 가족 내 대인관계 관련 스트레스에 더 반응적일 뿐만 아니라 빈곤한 부모의 상태에 대해 더 많이 걱정하고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높은 책임감은 때때로 보호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 또한 부모의 실업은 여자청소년보다 남자청소년의 부모·자녀간의 갈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lanagan, 1990). 아버지의 취업상태가 불안정할 경우 남자청소년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을 잃고 아버지의 권위에 더욱 도전하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빈곤상황에서 여자청소년들은 남자청소년보다 가사의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되고 가족 의사결정에서 더 많은 역할을 행사하도록 요청받는다.

이러한 책임감은 여자청소년의 역량강화를 가져와 행동발달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이에는 비용이 따른다. 즉 빈곤한 여성 한 부모가 자신의 개인적 혹은 경제적 문제를 아동·청소년과 함께 공유하여 책임을 나누는 정도는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스트레스 정도와 관련이 있다(McLoyd & Wilson, 1991; McLoyd et al., 1994). 빈곤상황에서 여자청소년은 가사의 책임을 주로 맡게 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족 내의 불화와 긴장에 많이 노출되게 되지만 남자청소년은 가족 밖의 취업을 통해 가족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대하게 되고 가족 스트레스로부터 덜 영향 받게 된다(Elder & Caspi, 1988, 구인회, 2003b에서 재인용). 게다가 빈곤한 부모가 여자청소년의 가족 내 역할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면, 이는 여아에게 교육에 대한 부모의 낮은 지지로 보이게 되고 이는 학교탈락의 가능성으로 이어진다(Connell et al., 1995). 따라서 책임감은 단순하게 보호요인이라 말할 수 없다. 성인으로서의 책임감이 주는 잠재적 효과는 이것을 통해 희생되는 비용에 비추어 잘 계산되어야 한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부모는 가족 내 경제적 자원이 부족할 때 성차별적 자원배분을 초래하여 여자청소년의 교육성취를 위한 투자에 대해서는 남자청소년의 경우보다 더욱 소극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다(구인회, 2003b).

2) 빈곤아동·청소년의 가정생활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가정환경 속에서 적절한 부모역할이 제공되어야 한다. 아동·청소년은 독립된 성인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까지 성인의 보호에 의존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관한 일차적인 책임은 부모가 맡게 된다. 부모는 보호와 애정을 통하여 자녀들의 기본적인 욕구를 충족시켜야 하고,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역할을 제공해야 한다. 부모가 부모역할을 순조롭게 수행할 때 아동·청소년은 건전한 성인으로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부모가 이들 역할들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는 다양한 요인들이 있으며,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빈곤이다(Plotnick, 2000). 빈곤가정의 자녀들은 안정된 주거환경을 제공받지 못하거나 적절한 의료적 보호나 교육환

경을 제공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빈곤가정의 부모들은 대개 생계를 위해 장기간, 혹은 불규칙한 노동을 하게 되어 기본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거나 육체적으로 피곤하여 아동·청소년과 제대로 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거나 부적절한 양육태도를 보인다(박소혜, 1995; 이경우, 1988). 빈곤가정에서 자녀에게 제공하는 환경적 자극의 질적 수준은 전반적으로 중산층 대상 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 전체적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양육행동에 있어서도 '아이에게 소리지르기', '아이 때리기' 등의 직접적인 표현이 많았고, 부모 특히 어머니가 유아와 직접 상호작용하는 빈도가 적었다. 빈곤부모들은 중산층 부모에 비해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많이 하는 반면 아동·청소년의 기능발달을 촉진시키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적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이영·신은주·나종혜, 1995). 또한 빈곤아동·청소년은 부모가 수행해야 할 역할을 대신 맡게 되는 등, 일반적인 아동·청소년의 역할 이외에 가사 부담을 더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

빈곤이 아동·청소년발달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주로 가족의 특성과 연관지어 설명할 수 있다(Lemper, Clark-Lempers & Simons, 1989; Parker, Greer & Zucherman, 1988; Sampon & Laub, 1996). 빈곤한 사람들 특히 여성들은 열악한 생활조건과 경제적 어려움, 자신들이 처해있는 환경을 스스로 통제할 수 없다는 불안감이나 재화·서비스를 필요할 때 가질 수 없다는 무력감, 수치감, 혹은 자존감의 상실 등으로 스트레스나 우울증에 빠져들기 쉽다(김인숙, 1994; Adler et al., 1993; McLoyd, 1990). 이러한 부모의 스트레스는 빈곤이 아동·청소년 발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부모의 스트레스와 우울은 부모의 양육행동과 태도에 영향을 주는 동시에 부부간이나 가족 간 갈등을 유발한다(Conger et al., 1994; Liaw & Brooks-Gunn, 1994; McLoyd, Jayaratne, Ceballo, & Borquez, 1994; Brooks-Gunn & Duncan, 1997).

비행에 관한 일련의 연구에서 빈곤이 아동·청소년의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이기보다는 가정 내의 부모 요소라는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간접적인 것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McLoyd & Wilson, 1991). 빈곤은 부

모의 지도감독이나 양육방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이것이 아동·청소년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에서, 빈곤부모들은 훈육이 비일관적이거나 위협적·강압적이며, 부모·자녀 간 애착이 약하다. 또한 빈곤부모들은 아동·청소년행동 자체 혹은 아동·청소년이 어떤 친구들과 어디서 노는지 등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하고, 언어적인 훈계보다는 신체적인 체벌을 더 자주 사용하고, 자녀들과 질적으로 낮은 수준의 상호작용을 하며, 아동·청소년에 대한 정서적 지지의 수준 역시 낮다(McLeod & Shanahan, 1993; Hanson, McLanahan, & Thomson, 1997; McLoyd, 1998; Conger, Conger & Elder, 1997). 그리고 아동·청소년과 부모 간에 단절된 정서적 유대는 우울증이나 낮은 자아존중감 등 아동·청소년의 내적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Cicchetti & Toth, 1998).

부정적인 부모·자녀 관계는 학업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부모의 가혹한 대우나 거부적인 훈육은 자녀의 자기가치를 훼손하고 자기능력에 대한 신뢰감을 손상시킨다(Conger, Conger, & Elder, 1997). 이렇게 자기신뢰를 상실한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학구적 노력이 미래에 결실을 맺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학업성취에 있어 방해를 받게 된다. 또한 부정적인 부모·자녀관계는 아동·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스스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자기통제 기능을 약화시킨다(Dubois, Eitel, & Felner, 1994). 반면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격려와 관여는 자녀의 높은 학업성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Steinberg, Lamborn, Dornbusch, & Darling, 1992). 부모의 자녀에 대한 일반적 태도가 비지지적이고 적대적인 상태에서는 부모의 자녀 학업에 대한 격려와 관여도 감소하게 될 것이다. 또한 부모 사이의 갈등에 자주 노출된 아동·청소년들은 상당한 심리적 스트레스를 경험한다(Brody, Stoneman, & Flor, 1995; Lempers & Clark-Lempers, 1997). 이러한 갈등적인 가족관계 경험은 청소년의 자기통제력과 자신감을 떨어뜨리며 이는 낮은 학업성취로 이어진다(Gutman & Eccles, 1999; McLoyd, 1989). 또한 최근 연구는 경제적 상실과 청소년 학업성취와의 관계에서 가족 과정이 매개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부모의 실직이나 소득상실 같은 경제

적 상실은 경제적 어려움의 증대를 가져오고 이는 부모의 생활만족도를 떨어뜨리고 가족관계를 악화시켜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인회, 2003a, 2003b).

빈곤가족들은 가족 내 갈등이나 공격성을 통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렇게 공격적이고 부정적인 가족 상호작용은 가족 성원들에게 심리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의 스트레스는 아동학대와 방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아동학대 발생율은 7배나 높았으며(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발생하는 학대의 수준도 저소득층에서 보다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Downs, Costin, McFadden, 1996). 빈곤가족 내에서 특히 방임의 비율이 높다(Sedlak & Broadhurst, 1996). 여성개발원의 조사연구에 의하면 영세지역의 빈곤부모가 일하고 있는 동안 주로 취하는 아동보육의 유형을 보면 준방치나 방치의 경우가 65.6%에 이른다(안덕순 외, 1988). 피학대, 방임아동은 나이가 들수록 학업성취가 떨어지고, 정서적 문제, 성 문제, 알콜 및 약물중독을 경험하며, 심각한 비행과 범죄를 저지를 확률이 높아진다(English, 1998; Starr, MacLean, & Keating, 1991).

한 부모가구라는 지위 자체가 가구의 빈곤위험을 높이는 원인이지만, 이와 함께 자녀에 대한 부양부담 역시 여성 한 부모가구의 빈곤율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동은 경제적으로 의존적이므로 가구소득에 대한 욕구를 증가시키지만, 가구주의 소득활동을 제약함으로써 소득의 창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이용우, 2006). 한 부모가정의 자녀들이 여러 가지 발달산물 측면에서 양부모가정의 자녀들보다 취약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McLanahan & Sandefur, 1994; McLanahan, 1997). 이는 소득수준을 통제했을 때에도 마찬가지였으며, 사별한 여성한부모의 자녀보다 결혼한 적이 없거나 이혼으로 인한 여성한부모의 자녀에게서 그 위험이 더 증가하였다. 가족구조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메커니즘이 완전히 설명되지는 않지만, 여성 한 부모가정의 아동들은 아버지가 제공하는 경제적 및 사회정서적의 자원에 결핍되어 있다는 것은 명백하다. 여성 한 부모가정의 경우 아버지가 존재하

는 일반가정에 비해 3-4배 정도 빈곤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여성 한 부모가정 아동들은 관심과 정서적 지지를 제공하는 아버지를 가질 확률이 낮으므로 발달상에 있어 불리하다. 아동과 공동의 활동에 참여한다든지 아동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한다든지 하는 아버지의 긍정적인 관여 (father involvement)가 높은 가정에서 비행, 약물남용, 불안, 우울증 등과 같은 아동기 문제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Amato & Rivera, 1999; Harris, Furstenberg, & Marmer, 1998; Harris & Marmer, 1996; Zimmerman, Salem, & Maton, 1995). 그러나 동일 가구 내에 같이 살고 있지 않은 아버지 (nonresident father)의 관여가 아동에 미치는 영향은 같이 살고 있는 아버지의 영향보다 덜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버지가 폭력, 정신건강, 약물 남용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을 경우 아버지의 관여는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에게 유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한 부모가정이라는 지위가 반드시 문제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도시빈민밀집지역 내 여성 한 부모가정에서 자라나는 남아청소년의 경우 부모로부터 더 많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도 있다(Zimmerman, Salem, & Maton, 1995). 이는 여성 한 부모가 아버지의 부재를 보상하기 위해 남아에게 더 많은 지지를 제공하는데 노력해서 얻어진 결과이다. 게다가 아버지가 동일 가구 내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여성 한 부모가정의 많은 남아들은 그들의 아버지로부터 지지를 계속해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부재한 가정 청소년의 2/3가 아버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모델이라고 보고 있다(Zimmerman et al., 1995). 이는 널리 퍼진 고정관념과 달리 동일가구 내에 거주하지 않는 아버지도 부모로서의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 자녀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3) 빈곤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학교는 대부분의 아동·청소년이 가정 다음으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이며 아동·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신체적·지적·정서적·사회적 발달을 도모할 수 있는 곳이다. 따라서 학교생활을 성공적으로 영위하는 것은 아동·

청소년의 건전한 발달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학교적응은 빈곤아동·청소년의 사회적 성취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김현아, 2000). 학업성취는 아동·청소년의 학습습관, 학습환경, 가정환경 등의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아동·청소년들의 학업성적은 아동·청소년들이 학교생활 전반, 수업, 교사에 만족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김진용, 1988).

빈곤가정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독립적인 공부방 등 적절한 학습공간을 제공하거나 학업에 필요한 물품이나 자료제공을 하지 못하여 학업성취를 저해하기도 한다(이승양, 1982). 빈곤 혹은 부모의 낮은 교육수준은 부모들의 자녀양육방식 및 자녀교육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는 다시 아동·청소년의 학업성취 및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기도 한다(이주리, 1994). 빈곤 또는 가정의 낮은 경제적 수준은 아동·청소년의 낮은 자아존중감 또는 역량지각과도 관련성을 가지며(김영이, 1994; 이주리, 1994), 낮은 자아존중감은 다시 낮은 학업성취와도 관련성을 보여주고 있다(Dweck, 1986). 또한 빈곤아동·청소년의 낮은 학업성취는 가정에서의 지원이 부족한 점 이외에 교사들의 이들에 대한 기대가 낮은 것에 기인한다. 빈곤지역의 학교는 중산층 지역에 비하여 교육예산이 적기 때문에 학습기자재가 부족하고 교사의 질도 낮으며 교육자체가 부실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모든 요인들이 빈곤층 자녀들은 학업성취도가 낮을 것이라는 자성예언으로 작용하여 그들의 학업실패를 자초하는 것이다.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 상황에 처한 아동·청소년들에게 중요한 보호 요인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학교 세팅에서는 무엇보다도 교사의 지지와 또래집단, 즉 친구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교사와 친구들의 지지는 아동·청소년의 적응과 안녕에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하며 아동·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에 대한 완충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에 대한 교사의 관심과 지지의 부족은 아동·청소년의 학업 및 학교에 대한 무관심을 유발할 수 있다.

친구의 지지는 아동·청소년의 자아존중감에 큰 영향을 주며(Harter, 1986) 또래로부터 지지 부족은 또래로부터 거부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

년의 사회, 정서적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Boivin & Begin, 1989; Crick & Grotpeter, 1996; Patterson et al, 1990). 교사와 또래집단의 사회적 지지는 특히 학교관련 자아존중감과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박영애, 1995; 한중혜, 1996). 또래관계에서 거부당하거나 무시당하는 아동·청소년은 그 이후 성장하여서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기도 한다(Coie, 1990).

빈곤아동·청소년은 문제해결에서 언어적인 방법보다는 물리적 방법을 선호하며, 친구들을 때리고, 욕을 하고, 질서를 지키지 않는 등의 이유로 친구 및 교사들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다(Mayer, 1997a; Seccombe, 2000; 유희정, 1996). 이러한 특징을 보이는 아동·청소년들은 특히 또래집단과의 관계에서 소외되기 쉽다.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peer rejection)는 좀 더 심각한 비행의 원인인 동시에 초기 부적응 행동의 결과이기도 하다(Coie & Miller-Johnson, 2001).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된 공격적 아동·청소년들은 일반 공격적 아동·청소년보다 훨씬 더 만성적 비행에 빠져들 위험이 높다. 청소년기가 되면 소외받던 아동·청소년들끼리 비행 또래집단을 형성하게 되고, 이러한 또래집단은 심각한 비행의 좋은 훈련장소가 된다(Patterson & Bank, 1989; Patterson, Capaldi, & Bank, 1991).

정보처리 단계에서의 여러 형태의 결핍도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소외를 가져온다. 이러한 소외는 항상 타인의 신호를 적대적인 것으로 귀속시켜버리기 때문에 좀더 심각한 형태의 반응적인 공격성을 가져오게 된다. 귀속(귀인) 편견은 또래집단으로부터 소외된 아동·청소년이 다른 아동·청소년들의 행동에 좀 더 공격적이고 보복적인 방식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다른 아동·청소년들도 그 소외된 아동·청소년을 좀 더 심하게 집단따돌림 시키도록 한다(Hymel, Wagner, & Butler, 1990; Perry, Kusel, & Perry, 1988). 이는 부정적인 정보처리의 모든 단계가 다시 한번 반복되면서 좀 더 심각한 공격성으로의 증폭과 심각한 비행으로의 이행을 가져온다.

학교는 학습과 성장의 장소이기도 하지만 또래폭력의 가해 또는 피해와 같은 부정적 경험이 발생하는 장소이기도 하다. 또래폭력의 피해학생은 등

교를 거부하거나, 학교활동 및 친구들과의 일상적인 상호작용을 기피하고, 자신의 안전에 대한 불안을 느낀다(이상균, 1999; Boulton & Underwood, 1992; Olweus, 1993). 신체적 상해로 인해 입원 또는 사망할 수도 있으며, 정신과 치료를 받아야 하거나, 자살시도 또는 자살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경험이 있는 아동·청소년들은 학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또는 태도를 갖게 되며(Kochenderfer & Ladd, 1996),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감이 떨어질 수 있다(Olweus, 1993). 또래 괴롭힘을 경험한 아동·청소년들은 우울, 불안, 낮은 자존감을 가질 수 있으며(Olweus, 1993) 이는 낮은 학업성취와 학교부적응의 원인이 된다(송미원, 1999; 최진희, 2000; Hoover & Hazler, 1991).

4) 빈곤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환경

빈곤부모들은 그들 가족이 살 지역사회나 자녀들이 갈 학교를 선택함에 있어 제한을 받기 쉽다. 따라서 빈곤 때문에 지역사회 해체(social disorganization)나 사회적 소외(social isolation)로 특징 지워지는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Chung, 2004). 지역사회 해체는 범죄, 실업 등으로 그 지역사회에 사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집합적인 지도감독이 불가능하며 지역사회 구성원들간의 비공식적인 네트워크가 부족한 경우를 말한다(Sampson, 1991; Sampson & Wilson, 1994). 사회적 소외는 주류사회를 대표하는 기관이나 개인과의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그 지역사회에 사는 아동·청소년이 따를만한 역할모델이 존재하지 않고 문화적 학습기회를 상실하는 것을 말한다(Wilson, 1987, 1991). 이러한 지역사회에 살게 되면 긍정적 역할모델의 결핍과 부정적 역할모델의 과잉,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의 부족과 사회규범의 약화 등으로 비행과 반사회적 행동에 빠져들 위험이 더욱 커지게 된다(Coleman, 1988; Hagan, 1994; Herrenkohl et al., 2001).

초등학교를 시작하면서부터 남아는 여아에 비해 표준화된 시험에서 더 낮은 결과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Eckenrode, Rowe, Laird, & Braithwaite, 1995). 고등학교까지도 남아는 여아에 비해 낮은 학업 성취와 출석률을 보이고, 높은 교실 내 문제행동과 정학 및 퇴학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Connell,

Spencer, & Aber, 1994). 이는 지역사회관련 영향에 대한 취약성에 있어 성별 차이가 있다는 것과 연결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중산층 이웃의 존재 여부와 같은 지역사회자원은 남아의 높은 표준화된 시험점수와 더 강하게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Entwisle, Alexander, & Olson, 1994). 또한 중산층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빈곤 남자청소년이 다른 청소년에 비해 개인적 및 가족적 요인들을 통제 한 후에도 고등학교를 졸업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Ensminger, Lamkin, & Jacobson, 1996). 이러한 지역사회 효과는 여아에게는 발견하지 못했다. 이러한 지역사회 효과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는 남아가 여아보다 지역사회관련 요인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점으로 설명된다. 남아는 여아에 비해 지역사회활동에 더 많이 참여한다. 따라서 남아는 중산층 지역의 수준 높은 자원으로부터 더 많이 혜택을 받는다. 반면 위험한 지역사회에서 여아의 경우 가정 내로 활동범위를 제한 받는 경우가 많아서 남아에 비해 부정적인 지역사회 영향으로부터 더 많이 보호받는다(Ensminger, et al., 1996).

가정에서 부모가 적절히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면, 사회가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박현선(1998a)은 빈곤과 관련된 다양한 위험요소가 부정적·갈등적 가족과정을 가속화하고 궁극적으로는 빈곤아동·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학교·지역사회 등으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관심을 받으면 심리사회적 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면서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지원에 대해 강조하였다. Moffitt(1993)도 빈곤 상황에서 많은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라 하더라도 성장하는 가운데 부모, 기타 양육자, 지역사회 주민들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 적절한 관심과 반응을 보이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지만, 가정·학교·이웃 등의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면 이러한 문제들이 대개 증폭되고 긍정적인 변화 가능성은 감소하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Ⅲ.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와 욕구

1. 조사개요
2. 기초생활실태
3. 사회지원체계현황
4. 문화여가 및 사회서비스 실태

Ⅲ.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와 욕구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2008년 이래로 심화되고 있는 경제위기 상황에서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청소년의 실태와 욕구를 조사할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빈곤가정의 아동·청소년들은 최근 급속히 악화되는 경제 불황으로 인해 현재 그들이 겪는 고통이 매우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본 연구는 현 경제위기상황에서 생활의 불안정과 빈곤으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의 경제·신체·정신적 실태 및 욕구를 파악하여 그들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가늠해 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기초자료의 제공 및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조사항목

본 설문지의 문항 구성 체계는 2008년 하반기 몰아닥친 경제 위기 이후 한 학기 동안의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겪는 경제·신체·정신적 고통과 실태 및 욕구를 조사를 위해 전체 4개의 대분류체계로 기초하고 있으며 조사항목 중 일부는 기존에 사용했던 문항들을 현 설문지 체계에 맞도록 재검토하여 사용하였다. 대분류체계는 I. 경제위기에 대한 아동의 인식 및 심리적 적응영역, II. 기초생활 영역에서의 변화양상, III. 사회지원체계 실태, IV. 교육·문화·사회서비스실태 영역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수준의 하부 조사지표로 구체되어 있다. 대분류 체계 II는 아동·청소년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겪는 기초적 변화 양상을 조사했으며 의료·보건, 정서적 건강, 경제위기에 수반된 심리적·생활상·가족관계의 변화 그리고 실직유무에 따른 경제적 고통을 묻는 지표로 하위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사회적 지원체계를 묻는 대분류 지표 III은 하부영역으로 가족·학교·지역사회·비행행동의 양태를 조사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분류체계 IV는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서비스에 대한 실태

를 알아보기 위해 교육, 정보·문화, 여가활동, 복지서비스와 같은 하부 척도로 세분화되었으며 경제위기에 의해 야기된 실태파악에 초점을 두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2009년 빈곤 아동·청소년 경제위기 조사지표와 세부적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표 III-1-1> 2009년 경제위기 설문지 문항 구성 체계

대분류	조사영역	세부내용	참 고
I		1. 경제위기에 대한 인식과 인식 경로 2. 경제위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 3. 경제위기에 대한 부모의 태도 4. 부모와의 관계 5. 경제위기로 인한 아동의 스트레스 6. 경제위기로 인한 가정 수입변화 7. 가정의 경제상태 변화	
	의료·보건	8. 질병 종류 및 치료 유·무 8-1. 치료받지 않은 이유	'06 ²⁾ 3번 선택지 보완
II 기초생활	정서적 건강	11. 자아존중감 ³⁾ 12. 사회심리적 적응 ⁴⁾	'06 4번, 5번 수정
	경제위기에 따른 변화	9. 4단계 척도 1)~6) 심리적 변화(6) 9. 7)~16) 생활상의 변화(11) 9. 17)~20) 가족관계의 변화(4) 10. 그렇다/그렇지 않다 1) 생계형 아르바이트 시작 2) 경제문제로 가족해체 3) 부모 실직 4) 생계형 성매매 시도	'99 ⁵⁾ 문항 : 7)~9), 11), 14)~17), 19) * 타 영역 중 유사 문항도 있으나 이 부분에서는 특히 경제위기 이후 '변화'에 초점두어 질문
		16. 생활비나 용돈마련 방법	'06 61번 문항축소
III 사회지원 체계	가족	13.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⁶⁾	'06 12번 문항축소
	학교	14. 학교 선생님 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	'06 16번 문항축소
	지역사회	15. 지역사회 의식 및 경험 ⁷⁾	'06 17번 문항축소

2) 김경준 외(2006). 청소년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3) Rosenberg, M.(1979). *Conceiving the Self*. New York: Basic Books. Instrument reproduced with permission of Morris Rosenberg.

	비행	17. 흡연, 음주, 절도, 폭력, 결석, 가출, 성인사이트 접속 경험(한 학기)	'08복지부 아동청소년종합실태조사 수정(한 달 이내)
IV 교육·문화·사회서비스	교육	18~19. 학교생활 부적응과 결석 이유(한 학기) 20. 대학진학 가능성 여부와 이유	'06 23~24번(지난 1년간) 선택지 수정
	정보·문화	21. 인터넷 가능 컴퓨터 보유현황 22. 휴대폰 보유 여부	'06 28~29번 수정
	여가활동	23. 현재 여가활동 및 희망 여가활동 24. 여가활동 장애 요인	'06 31~32번 수정
	복지서비스	25. 복지서비스 이용경험 및 만족도 26. 복지서비스 이용 시 느낌	서울아동패널10번 '06 36번 문항축소

2) 조사방법

본 조사의 대상으로 서울시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선정하였으며, 해당지역은 주로 영구임대아파트와 같은 서민층 주거시설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조사대상자의 학령기를 보면 아동은 초등학교 5학년, 청소년은 중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초·중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 엄밀한 의미에서 조사의 객관적 타당성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표집선정이 전국 단위에 기초한 확률표본 추출방식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지만, 본 조사에서는 시안의 시급성과 시간적 제약으로 인해 이 점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비록 조사지역이 전국단위가 아닌 서울시 특정 지역에 한정시켰고, 본 조사목적에 반영해 저소득층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의표집이 이루어졌지만, 표본의 선정

- 4) Achenbach, T. M.(1991). 아동용 행동 체크리스트(Child Behavior Check List : CBCL) 중 우울에 관한 문항을 사용함.
- 5) 황창순·이혜연·김희진(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6) Straus(1990). 갈등전술척도(Conflict Tactics, CT)와 중앙 아동학대예방센터(2002). 아동학대척도를 사용함.
- 7) Sampson, Raudenbush, & Earls(1997). 지역사회응집력 척도

은 부분적으로 층화표본추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1) 표집지역 및 표본추출

빈곤 아동·청소년의 표집을 위해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 재산세 납부 순위, 2) 재정자립도 비율, 3)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과 같은 평가기준에 따라 하위 7개 자치구가 조사대상 지역으로 선정되었으며 각 평가기준에 따른 하위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III-1-2> 표집 기준 및 지역

평가기준	지역
2008년 재산세 하위 5개 자치구	강북구(최저)→금천구→중랑구→도봉구→은평구
2008년 재정자립도 하위 5개 자치구	노원구(최저)→중랑구→관악구→은평구→강서구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지역	강서구, 양천구, 강동구, 관악구, 은평구, 강남구, 영등포구, 중랑구, 노원구, 강북구

재산세 납부, 재정자립도와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지원 사업 대상에 기초한 각 기준의 중복 여부에 가중치를 두어 선정된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역은 아래와 같다.

<표 III-1-3> 서울시 저소득층 주거지역

평가기준	지역
재산세와 재정자립도 모두 하위이며 교복사업 대상 지역	은평구, 중랑구
재산세 하위면서 교복사업대상	강북구
재정자립도 하위면서 교복사업대상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재산세, 재정자립도 하위에는 속하지 않지만 교복사업대상	양천구, 강동구, 강남구, 영등포구

위의 결과를 기초로 빈곤 아동·청소년 실태조사 표집지역으로 선정된 저소득층 자치구는 <표 III-1-4>에 기술되어 있다. 강남구의 경우 재산세 및 재

정자립도 기준으로는 중산층 거주 지역에 속할 수 있지만 임대주택의 규모가 다른 자치구보다 크다는 사실에 기초, 해당 임대주택 단지지역을 저소득층 밀집지역으로 선정·추가하였다.

<표 III-1-4> 2009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지역

지 역	표집 근거
①번 은평구, 중랑구 ②번 강북구 ③번 노원구, 관악구, 강서구	총 6개 자치구 내에서 특히 저소득 밀집지역 학교 표집
④번 강남구	재산세, 재정자립도로 저소득지역은 아니지만 저소득층 밀집지역이 있는 곳 중 임대주택 규모가 큰 지역임
전체 표본은 강남/북, 강서/동 등 서울전역에서 골고루 표집하여 총 7개 자치구로 구획함	

위에서 밝혔듯이 본 연구에서 표집지역의 선정은 조사자의 연구목적에 따른 유의표집에 근거하고 있으며 표본선택을 위해 사용된 추출방법은 저소득층이 밀집해 있는 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무작위로 선택, 한 학급을 표본으로 추출하고, 표본학급 내 전체 학생을 조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저소득층 주거지역 내에서도 주로 빈곤층가정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한 학교들을 대상표본으로 표집하였다. 조사대상은 자치구별로 교급 수준에 따라 (초등학생 5학년 남·여 학생, 중학생 2학년 남·여 학생) 초등학교·중학교 각각 한 곳씩을 선정하였다. 강북구의 경우 사전표집대상으로 선정된 해당 중학교가 자체 일정상의 이유로 인해 표집을 위한 실사를 거부했으며 이를 대체하기 위해 관악구에서 추가로 한 곳의 중학교를 선정, 대체표집이 실시되었다. 표본 추출을 위해 선정된 학교 수는 초등학교·중학교 각 7곳, 총 14교에 달하며(<표 III-1-5> 참조), 조사는 2009년 2월 초에 시작하여 약 1주일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설문조사에 응한 초·중학생의 총 수는 814명이었다.

<표 III-1-5> 2009 빈곤아동·청소년 실태 및 욕구조사 조사 학교명단

지역	학교	소재지
은평구	A초등학교	서울 은평구
	B중학교	서울 은평구
중랑구	C초등학교	서울 중랑구
	D중학교	서울 중랑구
강북구	E초등학교	서울 성북구
노원구	F초등학교	서울 노원구
	G중학교	서울 노원구
관악구	H초등학교	서울 관악구
	I중학교	서울 관악구
	J중학교	서울 관악구
강서구	K초등학교	서울 강서구
	L중학교	서울 강서구
강남구	M초등학교	서울 강남구
	N여자중학교	서울 강남구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학생은 395명으로 전체의 48.5%였으며, 여학생은 419명으로 51.5%를 차지하여 여학생의 비율이 남학생보다 약간 더 높았다. 교급 별로는 초등학생 405명으로 전체의 49.8%, 중학생은 409명인 50.2%로 교급 간 차이가 거의 없었다. 가정의 경제수준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는 814명 모두 결측 없이 답변에 응답하였지만, 부모의 결혼 상태에 대한 질문의 경우 무응답 비율이 5%인 41명, 부친의 학력수준은 36.4%에 달하는 296명, 모친의 학력수준에 대한 무응답 비율도 부친에 대한 무응답 비율과 비슷한 37.6%로 306명에 이르고 있다.

경제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자신의 가정이 빈곤층에 속하는 “어려운편이다”가 202명(24.8%), “보통이다”가 590명(72.5%)에 달하는 반면, 중산층 이상인 “잘사는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2.7%에 불과한 22명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의도한 유의추출에 의한 저소득층 중

십의 표집방식이 적절하게 수행되었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양·한부모와의 거주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부모의 결혼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681명(88.1%)이 양부모에 해당하는 “결혼·재혼”에 답하였고 92명(11.9%)은 한부모와의 거주를 의미하는 “이혼·별거·사별”에 응답하였다.

부친의 학력별로는 중학교 졸업 이하가 59명(11.4%), 고등학교 졸업이 159명(30.7%), 대학교 졸업이상이 300명(57.9%)으로 대졸이상의 학력이 고졸 항목의 두 배에 달하는 높은 비율을 보였다. 모친의 학력수준은 중학교 졸업 이하가 64명(12.6%), 고등학교 졸업이 216명(42.5%), 대학교 졸업이상이 228명(44.9%)으로 고등학교 졸업비율보다 약간 높았다.

2.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실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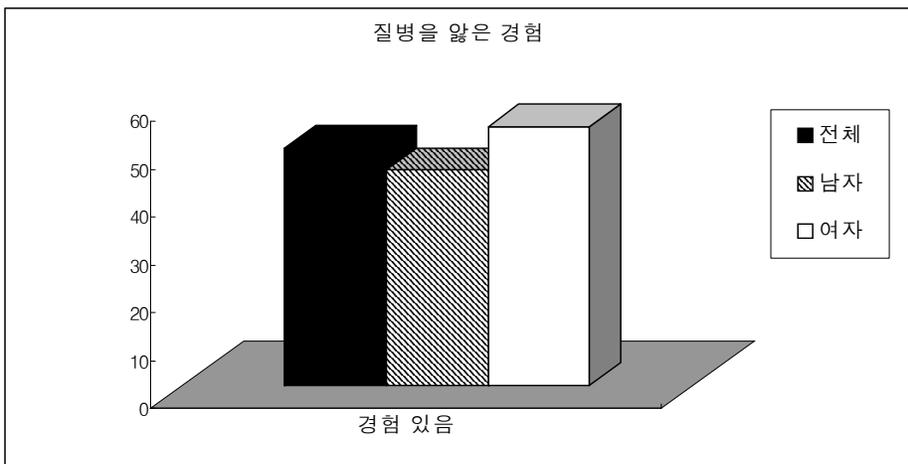
2008년 하반기 이후 한 학기 동안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료·보건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 정서적 건강정도 그리고 경제위기에서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다양한 변화의 양상에 대해 조사하였다. 본 실태 조사를 위해 설정된 독립 변수 중 특별히 경제수준 요인이 집단 간 분석을 위한 중요 변수로 고려될 수 있다. 서두에 밝혔듯이 경제 위기 상황에서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고통수준에 대한 명확한 자료를 얻기 위해서는 경제적 빈곤 집단⁸⁾을 비(非)빈곤 집단으로부터 정확히 분류할 수 있는 기준이 필요하며 인구통계학적 변인들 중 경제수준 요인은 이를 탐색할 수 있는 유의한(relevant) 변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분석결과는 경제적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되었으며 여타 다른 변인에 의한 분석 결과의 기술은 함께 첨부된 표를 참조하여 파악할 수 있다.

8) 표집대상 지역이 서민층 거주지역이라는 특성을 반영해 그 중에서도 경제형편이 ‘어렵다’는 가정은 ‘빈곤’으로 ‘보통이다’는 비(非)빈곤 집단인 ‘중간층’로 분류했다. 중산층 정도를 의미하는 ‘잘사는 편이다’는 전체 표본의 3%미만으로 나타나 분석에서 제외했다.

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질병을 앓은 경험과 치료유무

성별 특성에 따른 질병을 경험 유무 비율로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 아동·청소년 가운데 여학생의 54.2%, 남학생의 45%정도가 2008년 2학기 이후 질병을 앓은 적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여학생의 질병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두 성별 집단 간 질병 경험 유무 비율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I-2-1] 최근 질병을 앓은 경험 - 전체·성별 비교



<표 III-2-1> 질병을 앓은 경험-성별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50.2	49.8	100(814)
성별	남자	54.9	45.1	100(395)
	여자	45.8	54.2	100(419)

$\chi^2 = 6.755^{**}$

위장 및 내과질환을 앓은 아동·청소년의 비율분포는 성별특성과 부모님과 의 정상적인 생활여부를 의미하는 부모의 결혼 유형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여학생(19.6%)이 남학생(12.4%)보다 위장·내과 질환을 앓은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양부모와 함께 생활하는 아동·청소년들(14.8%)이 기타범주9)에 속하는 아동·청소년(27.2%)들 보다 유의수준에서 질병경험과 관

련하여 현격히 낮은 비율을 보여주었다.

<표 III-2-2> 위장 및 내과질환을 앓은 경험-성별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¹⁰⁾
전 체		83.9	16.1	100(814)
1) 성별	남자	87.6	12.4	100(395)
	여자	80.4	19.6	100(419)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85.2	14.8	100(681)
	기타	72.8	27.2	100(92)

1) $\chi^2 = 7.731^{**}$ 2) $\chi^2 = 9.050^{**}$

아토피·습진·부스럼 같은 피부질환의 경험 유무는 아동·청소년들의 성별 특성과 경제수준 정도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여학생은 0.2%만이 피부질환을 앓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남학생은 2.3%가 ‘경험 있음’에 답변해 성별 간 해당 질병 경험 유무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경제수준 별 조사결과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의 ‘경험 있음’에 대한 응답비율(3.0%)이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아동(0.7%)의 응답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다.

<표 III-2-3> 피부질환(아토피, 습진, 부스럼 등)-성별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8.8	1.2	100(814)
1) 성별	남자	97.7	2.3	100(395)
	여자	99.8	0.2	100(419)
2) 경제수준	빈곤층	97.0	3.0	100(202)
	중간층	99.3	0.7	100(590)

1) $\chi^2 = 6.972^{**}$ 2) $\chi^2 = 6.343^*$

9) 부모의 결혼 유형 중 “결혼”은 결혼 및 재혼을 포함하는 양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생활유형을 함의하며, “기타”는 이혼, 별거, 사별, 혹은 모른다라는 응답은 그 외의 거주상태를 의미한다.

10) 각 세부변인별 결측치의 차이로 전체 표본수와 세부변인별 표본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폐질환을 앓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아동·청소년의 응답 비율은 부모님의 결혼 패턴에 따라 현격한 차이를 나타냈다. 기타(3.3%)집단은 결혼집단(0.4%)에 비해 해당 질병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약 8배 이상 높았다.

<표 III-2-4> 결핵 및 폐질환-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9.2	0.8	100(77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9.6	0.4	100(681)
	기타	96.7	3.3	100(92)

$$\chi^2 = 8.371^{**}$$

감기나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의 발병률은 중학생(15.2%)에 비해 초등학생(22.2%)에게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난 반면, 충치나 잇몸질환 같은 치과질환의 발병비율은 초등학생(3.5%)에 비해 중학생(7.3%)에게서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초등학생이 중학생에 비해 독감 같은 호흡기 질환에 대한 면역체계가 취약한 것으로 보였다.

<표 III-2-5>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 질환-교급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81.3	18.7	100(814)
교급	초등학교	77.8	22.2	100(405)
	중학교	84.8	15.2	100(409)

$$\chi^2 = 6.685^*$$

<표 III-2-6> 충치 및 잇몸질환-교급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4.6	5.4	100(814)
교급	초등학교	96.5	3.5	100(405)
	중학교	92.7	7.3	100(409)

$$\chi^2 = 5.986^*$$

백혈병·암 혹은 만성질환의 발병비율은 가정의 경제 수준 정도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여준다. 경제적으로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의 7.4%가 해당 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경제 수준이 중간층인 집단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경험 있음'에 응답한 비율은 3.6%에 그쳐 2배 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III-2-7> 백혈병, 암 혹은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등)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경험없음	경험있음	전체
전 체		95.5	4.5	100(792)
경제수준	빈곤층	92.6	7.4	100(202)
	중간층	96.4	3.6	100(590)

$$\chi^2 = 5.185^*$$

다음은 한번이라도 특정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부상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아동·청소년이 속한 가정의 경제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살펴볼 수 있었다. 항목 중 '증상이 가벼워서'라고 응답한 비율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48.9%, 경제수준이 보통인 아동·청소년은 59.6%였다. 세부 항목 중 특히 치료를 받지 못한 이유가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17%에 달해 경제수준이 보통인 집단(1.8%)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높았다. '고쳐지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비율도 중간층(1.8%)에 비해 빈곤층(6.4%)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3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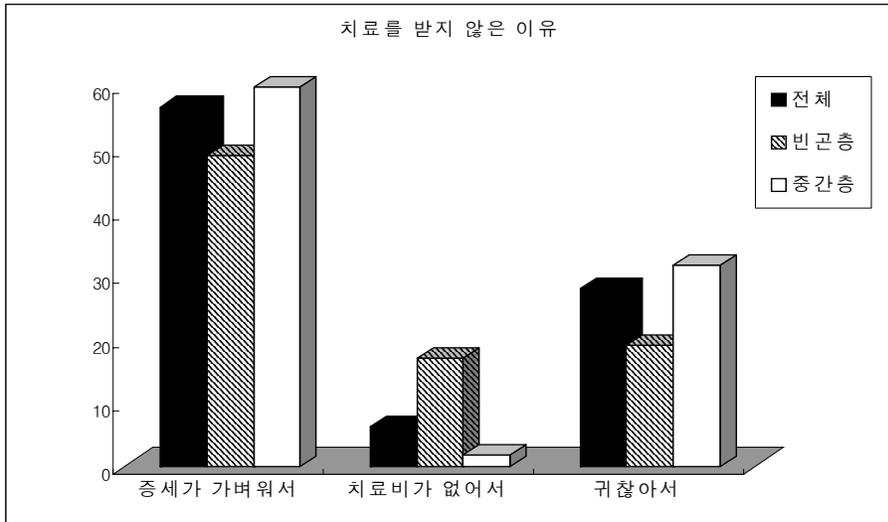
<표 III-2-8>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경제 수준 간 비교

(단위 : %)

구 분	증세가 가벼워서	치료비가 없어서	거리가 멀어서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치료가 무서워서	귀찮아서	고쳐지지 않아서	약을 못 먹어서	집에서 쉬면 나갈 것 같아서	시간이 없어서	집에 약이 있어서	전체	
전 체	56.5	6.2	1.2	0.6	1.2	28.0	3.1	0.6	1.2	0.6	0.6	100 (161)	
경제 수준	빈곤층	48.9	17.0	2.1	0	2.1	19.1	6.4	0	2.1	2.1	0	100 (47)
	중간층	59.6	1.8	0.9	0.9	0.9	31.6	1.8	0.9	0.9	0	0.9	100 (114)

$\chi^2 = 22.219^*$

[그림 III-2-2]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주 : 가장 응답비율이 높은 세 가지 항목의 결과만 제시함

2)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변화

본 지표에서는 최근 경제 위기 이후 나타난 다양한 변화의 양상들을 심리적 변화·생활상의 변화·가족관계의 변화와 아동·청소년의 생활비나 용돈 마련 방법 등과 같은 세부 항목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있다.

(1) 심리적 변화

먼저 경제 위기가 가져온 심리적 변화 중 2008년 이후 ‘더 외로움을 느낀다’에 응답한(‘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 전체 아동·청소년의 비율은 17.3%로 나타났다. 세부 변인 별 분석에서는 성별·교급·경제수준·부모님의 결혼 상태 별로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표 III-2-9>참조). 대체적으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 중학생 보다는 초등학생, 경제 수준이 중간층보다는 빈곤층이,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는 가정보다는 기타에 속한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더 높은 비율로 외로움을 느끼고 있다고 답변했다.

<표 III-2-9> 나는 더 외롭다고 느낀다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41.0	41.7	13.7	3.6	100(810)
1) 성별	남자	48.9	36.4	10.4	4.3	100(393)
	여자	33.6	46.8	16.8	2.9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45.2	35.5	14.6	4.7	100(403)
	중학교	36.9	47.9	12.8	2.5	100(407)
3) 경제수준	빈곤층	35.6	39.6	16.3	8.4	100(202)
	중간층	42.5	42.7	13.0	1.9	100(586)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42.5	41.8	13.1	2.5	100(677)
	기타	35.9	39.1	17.4	7.6	100(92)

1) $\chi^2 = 23.893^{***}$ 2) $\chi^2 = 14.299^{**}$ 3) $\chi^2 = 21.371^{***}$ 4) $\chi^2 = 8.816^*$

심리적 변화를 평정하는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에 대해 전체 아동·청소년의 41%가 ‘대체로 그렇다’ 수준 이상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그렇다’ 응답 비율은 53%로 전체 응답비율에 비해 12%정도 높았으며, 경제 수준 중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36.3%) 집단에 비

해서는 무려 17%가량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0>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성별 ·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23.6	35.4	31.6	9.4	100(810)
1) 성별	남자	30.3	31	29.8	8.9	100(393)
	여자	17.3	39.6	33.3	9.8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26.6	37.2	26.8	9.4	100(403)
	중학교	20.6	33.7	36.4	9.3	100(407)
3) 경제수준	빈곤층	19.3	27.7	35.1	17.8	100(202)
	중간층	25.6	38.1	30.0	6.3	100(586)

1) $\chi^2 = 19.678^{***}$ 2) $\chi^2 = 9.589^*$ 3) $\chi^2 = 29.735^{***}$

‘나는 자신감이 없어졌다’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9.2%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반면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27.4%가 동일한 답변 경향을 보여주었다. 경제수준 중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 집단은 16.6%만이 동일 응답 경향을 나타냈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11%나 높은 수준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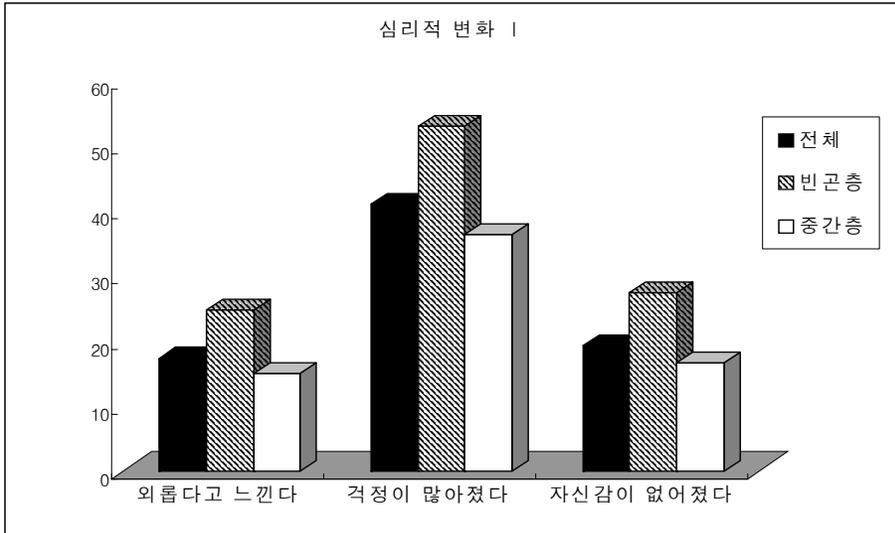
<표 III-2-11> 나는 자신감이 없어졌다-성별 ·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37.1	43.8	15.5	3.7	100(809)
1) 성별	남자	42.1	40.1	15.3	2.6	100(392)
	여자	32.4	47.2	15.6	4.8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43.9	36.7	15.6	3.7	100(403)
	중학교	30.3	50.7	15.3	3.7	100(406)
3) 경제수준	빈곤층	32.8	39.8	20.9	6.5	100(201)
	중간층	38.6	44.9	14.0	2.6	100(586)

1) $\chi^2 = 10.290^*$ 2) $\chi^2 = 19.220^{***}$ 3) $\chi^2 = 13.161^{**}$

[그림 III-2-3] 최근 경제위기 후의 심리적 변화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주 :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친 값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 정도를 묻는 문항에서 전 응답자의 11.2%만이 이를 긍정하는 느낌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경제 수준이 중간층인 아동·청소년 집단의 ‘그렇다’에 대한 응답 비율이 8.4%인 반면 빈곤층 아동의 동일 문항 응답 비율은 18.8%로 전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주관적 차별과 무시에 대한 반응 경향이 빈곤층 집단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III-2-12>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3.3	35.6	7.7	3.5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59.7	29.4	7.0	4.0	100(402)
	중학교	46.9	41.8	8.4	2.9	100(407)
2) 경제수준	빈곤층	44.1	37.1	10.9	7.9	100(202)
	중간층	56.2	35.4	6.5	1.9	100(585)

1) $\chi^2 = 16.081^{**}$ 2) $\chi^2 = 24.095^{***}$

아동·청소년의 가출관련 질문에서 전체 응답자의 14.6%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 수준으로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간·부모님의 결혼 상태 양상에 따른 응답 경향(<표 III-2-13> 참조) 이외에 가정 경제 수준 변인에 따른 빈곤층과 중간층 간의 뚜렷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빈곤층은 21.8%, 중간층에서는 9.9%의 아동·청소년들이 가출 항목에 대해 긍정적 답변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전자가 후자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비율로 가출 성향을 나타냈다.

<표 III-2-13> 나는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 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6.8	28.6	10.6	4.0	100(810)
1) 교급	초등학교	63.5	22.3	9.7	4.5	100(403)
	중학교	50.1	34.9	11.5	3.4	100(407)
2) 경제수준	빈곤층	49.0	29.2	14.9	6.9	100(202)
	중간층	58.7	29.4	9.2	2.7	100(586)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57.5	29.5	10.0	3.0	100(677)
	기타	53.3	23.9	13.0	9.8	100(92)

1) $\chi^2 = 18.758^{***}$ 2) $\chi^2 = 13.950^{**}$ 3) $\chi^2 = 11.854^{**}$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다’는 항목에 대해 전체 아동·청소년의 16.5%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에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질문에 대한 변인 간 집단 차이는 성별·교급·부모님의 결혼 양상에 따라 유의하게 확인되었으며, 경제 수준에 따른 빈곤(25.9%) vs. 중간(13.2%) 집단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빈곤층 아동 청소년의 경우 한부모 집단(26.1%) 아동과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정서적 불안정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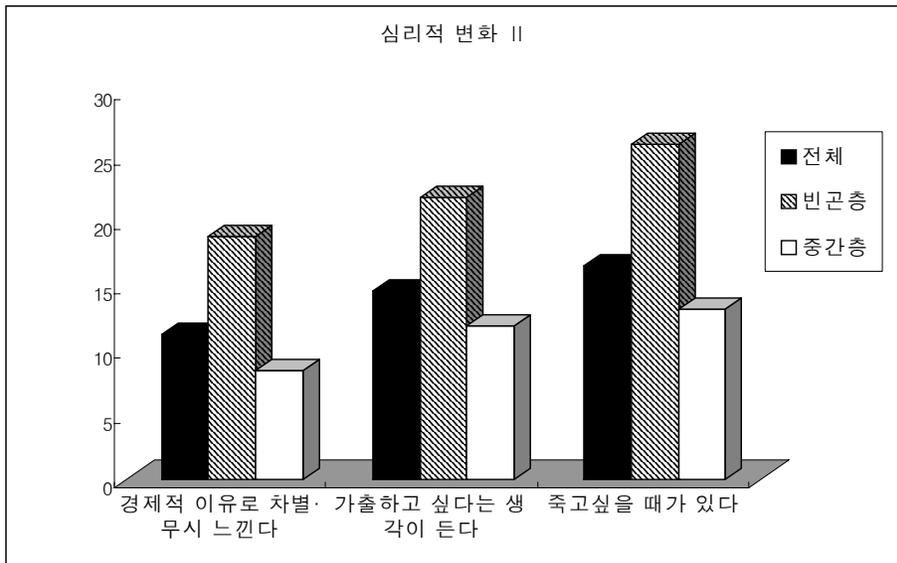
〈표 III-2-14〉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2.0	31.5	11.9	4.6	100(809)
1) 성별	남자	57.7	27.0	11.2	4.1	100(392)
	여자	46.8	35.7	12.5	5.0	100(417)
2) 교급	초등학교	60.0	24.1	9.2	6.7	100(403)
	중학교	44.1	38.9	14.5	2.5	100(406)
3) 경제수준	빈곤층	43.3	30.8	16.4	9.5	100(201)
	중간층	54.3	32.6	10.6	2.6	100(586)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53.3	32.0	11.2	3.6	100(676)
	기타	44.6	29.3	16.3	9.8	100(92)

1) $\chi^2 = 10.113^*$ 2) $\chi^2 = 36.862^{***}$ 3) $\chi^2 = 24.336^{***}$ 4) $\chi^2 = 10.416^*$

[그림 III-2-4] 최근 경제위기 후의 심리적 변화 II - 전체 · 경제수준별 비교



주 :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친 값

(2) 생활상의 변화

경제위기 이후 지난 한 학기동안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가 항목별로 아래에 기술되어 있다. 유의하게 검증된 항목 분석을 통해 변인 수준 간 효과의 정도가 제시되었으며 이에 영향을 미친 변인으로는 교급 이외에 경제변인(빈곤vs.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대부분 생활상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들이 필요한 물품 구입관련 문항에서 구입에 부정적으로 답변한 아동·청소년은 전체 6.5%인데 반해 빈곤층에 속하는 응답자는 대략 2배에 달하는 11%가 부정적 방향으로 동일 응답 경향을 보여주었다. 반면에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4.9%만이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하였다.

<표 III-2-15> 나는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한다-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3.0	30.5	5.1	1.4	100(789)
경제수준	빈곤층	56.9	32.2	6.9	4.0	100(202)
	중간층	65.1	30.0	4.4	0.5	100(587)

$\chi^2 = 16.500^{**}$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이 경제 위기 이후 방과 후 학원 혹은 과외 교습을 중단하게 된 비율은 22.3%로 전체 아동·청소년 응답자 14%에 비해 8%이상 높았으며,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11.6%)에 대해선 11%이상 높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교급 수준 간 차이는 <표 III-2-16>에 기술되어 있다.

〈표 III-2-16〉 나는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즐기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3.1	22.9	10.5	3.5	100(808)
1) 교급	초등학교	72.3	17.8	7.3	2.8	100(400)
	중학교	54.2	27.9	13.7	4.2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52.5	26.2	13.9	7.4	100(202)
	중간층	66.1	22.3	9.4	2.2	100(584)

1) $\chi^2 = 28.847^{***}$ 2) $\chi^2 = 19.666^{***}$

문화수련활동과 같은 여가 활동이 줄었거나 중단하게 되었는지를 묻는 항목에서 전체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12.5%가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답변한 반면 빈곤층 응답자의 동일 응답 비율은 21.7%로 나타났다. 반면에 중간층 아동·청소년의 답변 비율은 9.2%로 상대적으로 낮았다. 교급 수준 간 비교에서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표 III-2-17〉 나의 문화체험, 수련활동 등의 여가활동이 줄었거나 중단하게
되었다-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59.9	27.6	9.9	2.6	100(811)
1) 교급	초등학교	66.7	25.6	5.7	2.0	100(403)
	중학교	53.2	29.7	14.0	3.2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55.9	22.3	15.8	5.9	100(202)
	중간층	61.2	29.6	7.8	1.4	100(587)

1) $\chi^2 = 22.621^{***}$ 2) $\chi^2 = 25.786^{***}$

‘용돈이 줄었다’ 항목에 대한 응답 경향을 살펴 본 결과 전체 대상 아동·청소년의 17.5%가 ‘그렇다’라고 응답 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급 간 나타난 유의한 차이 이외에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용돈 감소에 대한 평가에서 현격한 차이를 보여준다.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27.2%)은 중간층 집단(14.5%)에 비해 2배 정도 높게 자신의 용돈이 줄어들었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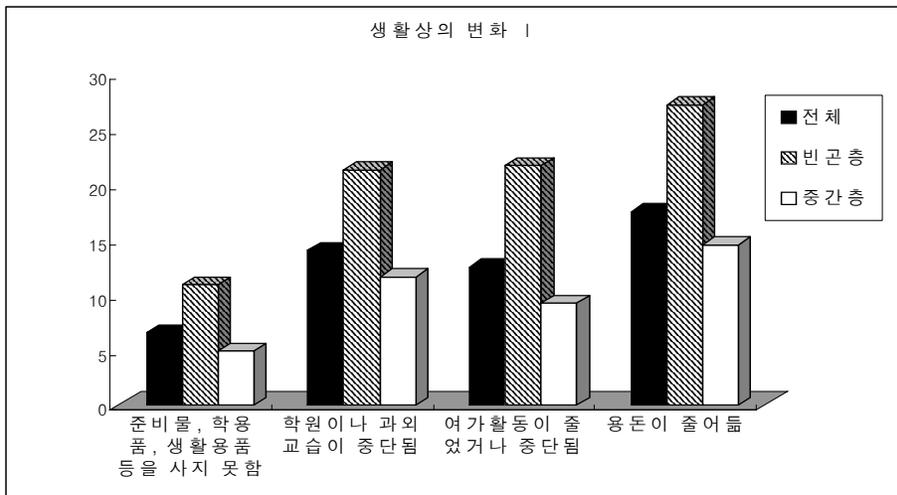
<표 III-2-18> 나의 용돈이 줄어들었다-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0.0	22.5	11.5	6.0	100(806)
1) 교급	초등학교	66.6	19.6	8.0	5.8	100(398)
	중학교	53.7	25.2	15.0	6.1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50.5	22.3	15.3	11.9	100(202)
	중간층	62.5	23.0	10.5	4.0	100(582)

1) $\chi^2 = 16.830^{**}$ 2) $\chi^2 = 22.451^{***}$

[그림 III-2-5] 최근 경제위기 후의 생활상의 변화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주 :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친 값

경제 위기 이후 아동·청소년이 느끼는 가사의 증감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교급 변인 이외에 경제변인의 수준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체 조사대상 응답자의 22.2%가 대체로 ‘대체로 그렇다’ 이상으로 답변한 반면 빈곤층 응답자는 32.9%, 중간층 소속 응답자는 18.3%만이 해당 항목에 긍정하는 답변 성향을 보였다.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가사에 대해 느끼는 부담감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III-2-19> 나는 부모님 대신 집안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41.4	36.5	17.1	5.1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47.9	33.7	13.5	5.0	100(401)
	중학교	35.0	39.2	20.6	5.1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37.3	29.9	26.4	6.5	100(201)
	중간층	42.5	39.2	14.0	4.3	100(586)

1) $\chi^2 = 15.773^{**}$ 2) $\chi^2 = 19.426^{***}$

경제위기에서 생필품에 대한 지출정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22.8%정도가 대체로 지출비용이 줄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응답경향은 교급과 경제수준 변인에 따라 집단 간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31.3%가 해당 항목에 대한 지출이 ‘대체로 줄었다’라고 답변한 반면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1.5%만이 ‘대체로 줄었다’라고 응답하였으며, 전자에 비해 10%이상 낮은 비율을 보였다.

〈표 Ⅲ-2-20〉 우리집은 옷이나 신발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41.4	34.8	19.5	4.3	100(910)
1) 교급	초등학교	48.3	32.8	14.9	4.0	100(402)
	중학교	34.6	36.8	24.0	4.7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34.3	34.3	22.9	8.5	100(201)
	중간층	43.4	35.1	18.9	2.6	100(587)

1) $\chi^2 = 18.887^{***}$ 2) $\chi^2 = 17.082^{**}$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 발생할 때 병원치료 가능 여부를 묻는 항목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3.1%가 부정적 방향으로 답변한 반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5.5%,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3%가 동일한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 응답자가 후자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으며 집단 간 차이는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경제 변인 이외에 교급·부모의 결혼상태 같은 변인에서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표 Ⅲ-2-21〉 우리집은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간다
-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82.1	14.8	2.7	0.4	100(810)
1) 교급	초등학교	87.1	10.7	2.2	0	100(402)
	중학교	77.2	18.9	3.2	0.7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73.1	21.4	5.0	0.5	100(201)
	중간층	84.7	12.9	2.0	0.3	100(587)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84.1	13.4	2.4	0.1	100(678)
	기타	71.7	19.6	6.5	2.2	100(92)

1) $\chi^2 = 15.159^{**}$ 2) $\chi^2 = 14.213^{**}$ 3) $\chi^2 = 17.100^{**}$

지난해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이사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을 묻는 질문에서 성별·교급·부모의 결혼상태 변인 이외에 경제 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전체 조사 대상자의 4.6%가 이사 후 생활이 대체로 불편하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층은 9.9%가 중간층은 2.7%만이 상응된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이사로 인해 느끼는 주관적 불편감이 중간층 집단에 비해 3배 이상 높았다.

<표 III-2-22> 우리집은 집을 줄여 이사하여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4.6	20.9	3.2	1.4	100(810)
1) 성별	남자	72.4	20.2	5.1	2.3	100(392)
	여자	76.6	21.5	1.4	0.5	100(418)
2) 교급	초등학교	77.4	19.2	1.7	1.7	100(402)
	중학교	71.8	22.5	4.7	1.0	100(408)
3) 경제수준	빈곤층	65.3	24.8	6.9	3.0	100(202)
	중간층	77.3	20.0	2.0	0.7	100(586)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7.4	18.6	3.0	1.0	100(678)
	기타	62.0	28.3	5.4	4.3	100(92)

1) $\chi^2 = 14.035^{**}$ 2) $\chi^2 = 8.180^*$ 3) $\chi^2 = 21.567^{***}$ 4) $\chi^2 = 14.123^{**}$

공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0.2%가 ‘대체로 그렇다’는 방향으로 답변했으며, 세부적으로는 교급·부모님의 결혼 상태를 묻는 변인 이외에 경제변인 간 집단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층 응답자의 동일 응답비율은 20.9%로 나타났으며, 중간층 아동·청소년 응답자는 7%만이 외부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외부 의존도에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무려 3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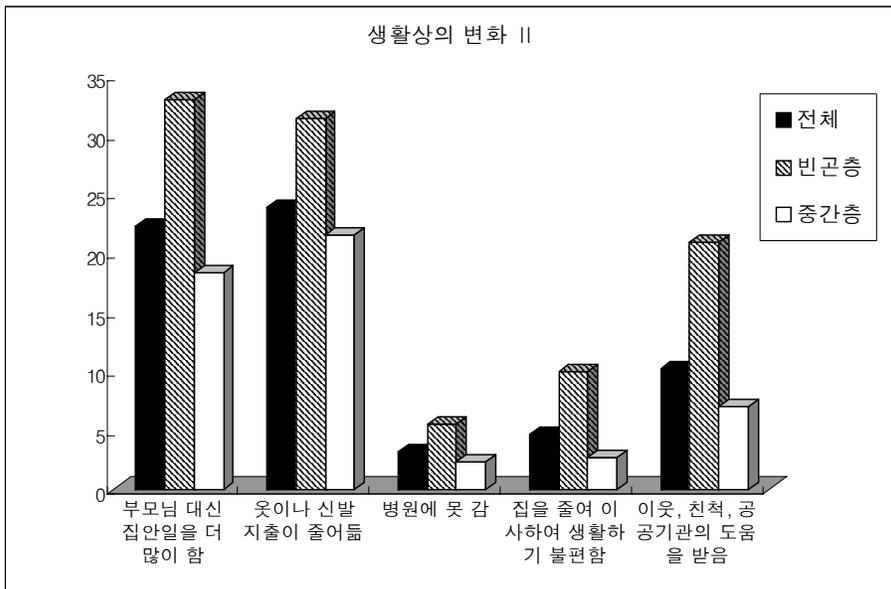
<표 III-2-23> 우리집은 이웃이나 친척, 공공기관(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복지재단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3.9	15.8	8.0	2.2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74.8	13.7	7.7	3.7	100(401)
	중학교	73.0	17.9	8.3	0.7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58.7	20.4	16.9	4.0	100(201)
	중간층	78.2	14.8	5.3	1.7	100(587)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9.1	13.9	5.8	1.3	100(678)
	기타	44.0	27.5	22.0	6.6	100(91)

1) $\chi^2 = 10.617^*$ 2) $\chi^2 = 38.600^{***}$ 3) $\chi^2 = 61.736^{***}$

[그림 III-2-6] 최근 경제위기 후의 생활상의 변화II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주 :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친 값

(3) 가족관계의 변화

경제위기에 따른 세 번째 변화인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 내용이 아래 일련의 표 속에 요약되어 있다. 먼저 가정의 수입 감소로 인해 부모님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전체 응답자중 9.1%에 해당되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동일 응답비율은 22%로 중간층 아동·청소년 응답비율인 4.8%와 비교할 경우 무려 4배 이상 높았다. 경제 위기 이후 가정 소득의 감소로 인한 부모 갈등의 부정적 인식 정도가 빈곤층 아동·청소년에게서 보다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교급 및 부모결혼 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도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표 III-2-24> 우리집의 수입이 줄어 부모님 사이가 나빠졌다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8.5	22.4	8.0	1.1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74.1	17.7	7.5	0.7	100(401)
	중학교	63.0	27.0	8.6	1.5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54.5	23.5	18.0	4.0	100(200)
	중간층	72.6	22.7	4.6	0.2	100(587)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0.2	22.0	6.8	1.0	100(677)
	기타	59.8	21.7	16.3	2.2	100(92)

1) $\chi^2 = 12.616^{**}$ 2) $\chi^2 = 59.807^{***}$ 3) $\chi^2 = 11.402^*$

본인과 부모사이의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조사대상자의 7.3%였으며, 경제 빈곤층 집단에서 부모·자녀 간 관계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비율(14.4%)이 중간층 아동·청소년(5.2%)에 비해 10%이상 현저히 높았다. 교급 간 유의한 집단차이도 확인되었다.

〈표 III-2-25〉 나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9.5	23.2	5.9	1.4	100(811)
1) 교급	초등학교	79.7	15.1	4.5	0.7	100(403)
	중학교	59.6	31.1	7.4	2.0	100(408)
2) 경제수준	빈곤층	56.4	29.2	11.4	3.0	100(202)
	중간층	73.3	21.6	4.3	0.9	100(587)

1) $\chi^2 = 39.201^{***}$ 2) $\chi^2 = 27.207^{***}$

경제위기가 가정 폭력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4.7%가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은 11.4%가 이에 일치하는 답변을 하였다. 이에 반해 경제 수준이 중간층인 아동·청소년집단은 단지 2.3%만이 이에 상응한 응답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빈곤층에서 가정폭력의 정도가 현저히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표 III-2-26〉 우리집은 가족 간에 폭력을 쓰며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8.0	17.3	3.9	0.8	100(788)
1) 경제수준	빈곤층	65.3	23.3	9.4	2.0	100(202)
	중간층	82.4	15.2	2.0	0.3	100(586)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79.9	16.1	3.5	0.4	100(678)
	기타	67.4	22.8	6.5	3.3	100(92)

1) $\chi^2 = 37.268^{***}$ 2) $\chi^2 = 13.919^{**}$

가정 내 경제적 상황 악화로 부모님이 힘들어 하고 있다는 답변에 대한 응답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42.8%가 ‘대체로 그렇다’는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 교급 및 부모 결혼 상태 변인에 따른 집단 간 유의한 차이도 검증되었

다.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무려 68.8%가 해당 문항에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 반해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34.1% 만이 이에 상응하는 답변을 보여주었다. 가정경제의 위기에 대한 부모의 근심정도가 중간층 집단에 비해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에서 2배 이상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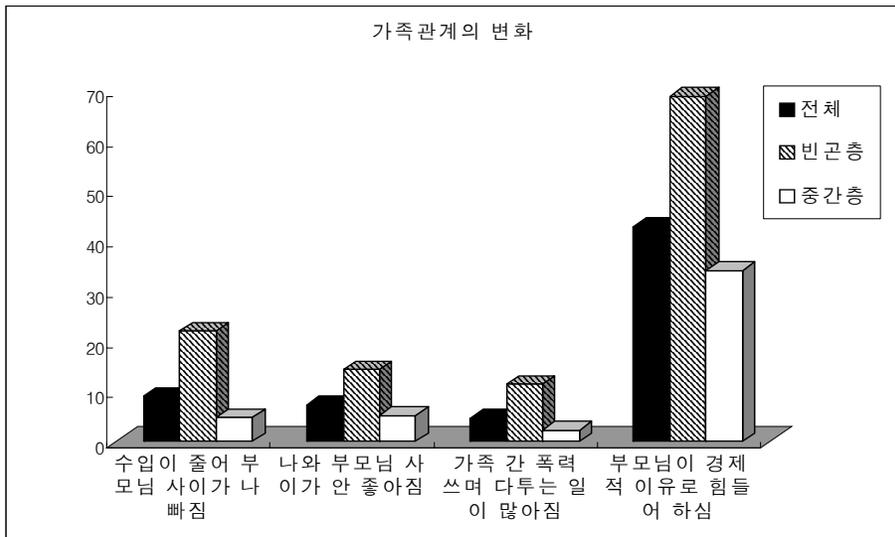
<표 III-2-27>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 하신다-교급·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29.5	27.7	31.8	11.0	100(808)
1) 교급	초등학교	32.2	30.7	27.4	9.7	100(401)
	중학교	26.8	24.8	36.1	12.3	100(407)
2) 경제수준	빈곤층	16.8	14.4	39.6	29.2	100(202)
	중간층	33.9	32.0	29.5	4.6	100(584)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30.0	28.6	32.1	9.3	100(676)
	기타	23.9	21.7	33.7	20.7	100(92)

1) $\chi^2 = 10.484^*$ 2) $\chi^2 = 119.594^{***}$ 3) $\chi^2 = 12.193^{**}$

[그림 III-2-7] 최근 경제위기 후의 가족관계 변화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주 :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친 값

3)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

경제위기 이후 경제적 궁핍으로 생활비·용돈 마련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3.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본 문항에 대한 교급·부모님 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에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제 수준변인에 따른 집단 간 응답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6%가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층 집단에 속한 아동·청소년의 응답비율은 2.7%에 불과하였다.

〈표 III-2-28〉 나는 용돈과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전 체		3.5	96.5	100(811)
1) 교급	초등학교	1.7	98.3	100(402)
	중학교	5.1	94.9	100(409)
2) 경제수준	빈곤층	6.0	94.0	100(201)
	중간층	2.7	97.3	100(588)
3)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2.5	97.5	100(678)
	기타	9.8	90.2	100(92)

1) $\chi^2 = 7.003^{**}$ 2) $\chi^2 = 4.620^*$ 3) $\chi^2 = 13.142^{***}$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 구성원이 헤어지게 되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8.9%가 헤어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중간층 아동·청소년의 응답비율은 3.6%에 그쳤다. 전체 조사대상자의 그렇다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은 4.8%로 나타났다.

〈표 III-2-29〉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전 체		4.9	95.1	100(790)
1) 경제수준	빈곤층	8.9	91.1	100(202)
	중간층	3.6	96.4	100(588)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2.1	97.9	100(679)
	기타	21.7	78.3	100(92)

1) $\chi^2 = 9.134^{**}$ 2) $\chi^2 = 74.421^{***}$

경제위기가 시작된 후 부모님의 실직 상태를 묻는 질문에서 교급 수준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대체로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3%, 빈곤층 집단은 11.4%, 중간층 집단은 3.4%의 비율을 나타냈다. 빈곤층 아동·청소년 계층의 부모 실직률은 전체 응답자에 비해 2배 이상, 중간계층에 비해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빈곤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사정이 악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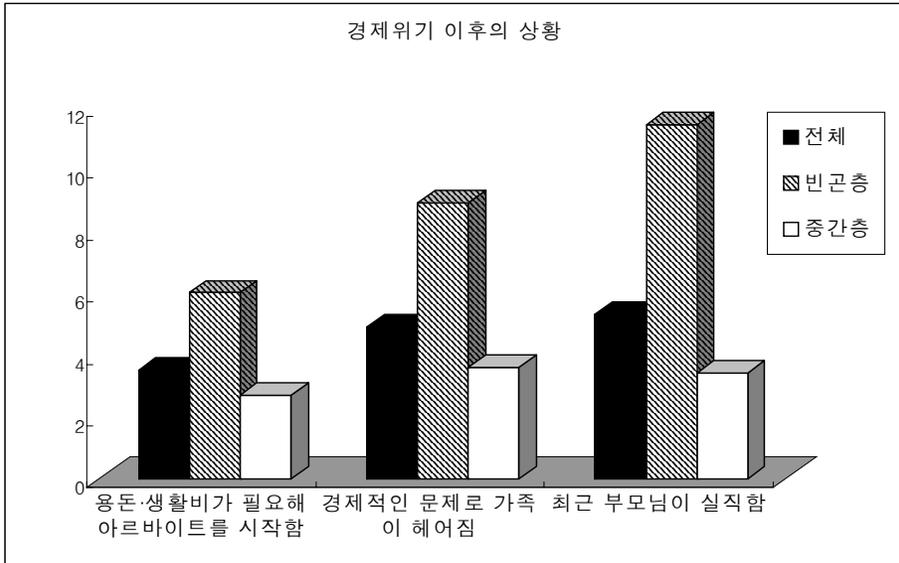
〈표 III-2-30〉 최근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었다-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그렇다	그렇지 않다	전체
전 체		5.3	94.7	100(812)
1) 교급	초등학교	3.2	96.8	100(403)
	중학교	7.3	92.7	100(409)
2) 경제수준	빈곤층	11.4	88.6	100(202)
	중간층	3.4	96.6	100(588)

1) $\chi^2 = 6.834^{**}$ 2) $\chi^2 = 18.625^{***}$

[그림 III-2-8] 최근 경제위기 이후의 상황변화 -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주 : ‘그렇다’고 응답한 값만 제시

4)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정서적 건강상의 변화

앞 절에서 경제 위기 이후 한 학기 동안 기초생활 및 사회 지원체계의 변화양상을 빈도 분포비율에 기초한 카이검증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절에서는 독립표본 비교검증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경제수준이 정서·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효과와 더불어 부가적으로 기초생활 변화양상에 대한 효과검증까지 함께 실시하였다. 경제변인 수준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정서·정신적 건강정도가 여타 다른 실태 조사영역에서와 같이 집단 간 차이에 영향을 받을지를 알아봄으로 경제위기가 미치는 광범위한 파급 효과를 규명해 볼 수 있다. 조사 대상자는 <표 III-2-31>에 기술되어 있으며 교급 수준에 관계없이 전체 청소년(N=785)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 경제 수준 중간층(‘보통이다’라고 응답한 대상 N=585) vs. 빈곤층(‘어렵다’고 응답한 대상 N=200) - 집단 간 심리·생활·가족관계의 변화 대한 인식정도와 정서·정신적 건강지표에 해당되는 자아존중감 및 사회 심리적 적응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부가적으로 제시된 하위지표 모두에서 경제적 빈곤층 아동·청소년과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취게 되는 여러 지표상의 변화 정도가 중간층에 비해 빈곤층 집단에서 크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두 집단 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특히 자신의 존재 가치 수용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는 자아존중감과 자신의 현재 부적응 상태에 대한 지표인 사회·심리적응척도에서 두 아동·청소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자아존중감 지표에서 빈곤 아동·청소년(M=28.09)은 중간층 집단(M=29.73) 아동·청소년에 비해 낮은 자존감을 나타냈으며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반면 자신의 사회·심리적 현실에 대한 적응능력 정도를 나타내는 사회심리적응 척도에서 빈곤층(M=29.90) 집단은 중간층 집단(M=26.08)에 비해 부정적으로 자신을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여 심각한 부적응 상태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빈곤계층의 아동·청소년들이 자신의 존재에 대한 수용성, 능력에 대한 확신, 어려움 극복능력 등과 같은 자아존중감 지표에서 비교집단에 비해 현격히 낮은 점수를 보였으며, 이는 반대로 자신의 사회적 적응능력에 대한 비관적 인식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빈곤층 집단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III-2-31〉 경제수준에 따른 변화 차이(초등학교+중학교)

구 분		경제수준		T
		빈곤층	중간층	
① 심리적 변화	M	12.3	10.43	4.712***
	SD	4.336	3.518	
② 생활상 변화	M	16.77	14.52	5.695***
	SD	5.046	4.067	
③ 가족관계 변화	M	7.59	5.90	8.773***
	SD	2.497	1.858	
①+②+③	M	36.36	30.81	7.094***
	SD	9.956	7.851	
자아존중감	M	28.09	29.73	-3.496**
	SD	5.890	5.216	
사회심리적 적응	M	29.90	26.08	5.344***
	SD	9.607	8.3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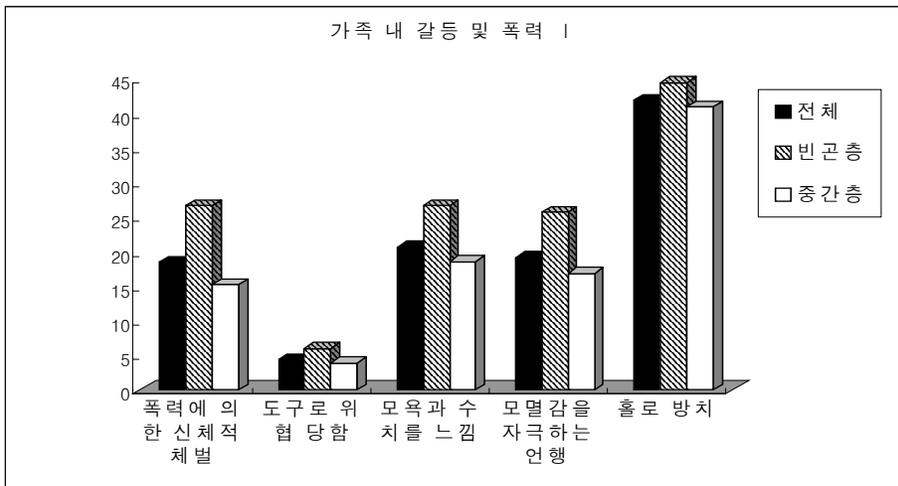
주 : M=평균값(Mean), SD=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3.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

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아래 <표 Ⅲ-3-1>에 기술되어 있다. 먼저 폭력에 의한 신체적 체벌 경험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18.5%가 6개월에 한번 이상 체벌을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경제적 빈곤층에 속한 아동·청소년들의 체벌비율(26.7%)은 중간층 집단의 비율(15.2%)에 비해 11% 이상 높았다. 경제적 수준이 어려울수록 체벌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부모로부터 특정 도구로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수는 전체의 4.4%였으며, 경제요인에 의한 집단 수준 간 유의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외에 교급·부모의 결혼 상태·부친의 학력 수준에 따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부모로부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낀 적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 전체 아동·청소년의 20.7%가 6개월에 한번 이상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26.7%로 중간층 반응비율 17.6%보다 9%이상 높은 수치를 보였다.

[그림 Ⅲ-3-1] 가족 내 갈등 실태 I - 경제수준별 비교



주 : 6개월에 1번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 기준/ '도구로 위협 당함' 항목은 경제수준별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음

<표 III-3-1>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실태 1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폭력에 의한 신체적 차별	전 체	81.4	13.1	5.4	100(814)	
	1) 교급	초	77.3	15.6	7.2	100(405)
		중	85.6	10.8	3.7	100(409)
	2) 경제수준	빈곤층	73.3	17.3	9.4	100(202)
		중간층	84.7	11.0	4.2	100(590)
1) $\chi^2 = 9.874^{**}$ 2) $\chi^2 = 14.404^{**}$						
도구로 위협 당함	전 체	95.6	2.7	1.7	100(814)	
	3) 교급	초	97.5	1.2	1.2	100(405)
		중	93.6	4.2	2.2	100(409)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6.5	2.2	1.3	100(681)
		기타	91.3	6.5	2.2	100(92)
	5)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94.5	1.8	3.7	100(218)
대졸이상		95.3	4.0	0.7	100(300)	
3) $\chi^2 = 7.854^*$ 4) $\chi^2 = 6.205^*$ 5) $\chi^2 = 7.823^*$						
모욕감과 수치스러움 느낌	전 체	79.3	13.9	6.8	100(792)	
	6) 경제수준	빈곤층	73.3	15.8	10.9	100(202)
		중간층	81.4	13.2	5.4	100(590)
6) $\chi^2 = 8.583^*$						
모멸감을 자극하는 언행	전 체	80.8	11.9	7.3	100(791)	
	7) 경제수준	빈곤층	74.3	12.9	12.9	100(202)
		중간층	83.0	11.5	5.4	100(589)
7) $\chi^2 = 13.003^{**}$						
홀로 방치	전 체	58.1	20.6	21.3	100(792)	
	8) 경제수준	빈곤층	55.4	15.8	28.7	100(202)
		중간층	59.0	22.2	18.8	100(590)
8) $\chi^2 = 10.194^{**}$						

부모님으로부터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는 모멸감을 자극하는 언행을 들어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응답자의 19.2%가 6개월에 한번 이상 그렇다고 응답했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25.8%에 달해 중간층 응답자(17%)보다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님의 외출로 밤늦은 귀가시간까지 홀로 방치된 적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응답자는 41.9%,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44.5%, 중간층은 41%로 나타났다. 빈곤집단과 중간집단의 아동·청소년 간 차이는 유의하게 검증되었다.

가정의 청결과 부모의 관심을 나타내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성별·교급·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는가’ 같은 부모의 방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개월 간 한번 이상 방치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전체응답자의 5.8%였으며, 빈곤층 아동·청소년(10.4%)이 중간층(5.2%)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부모님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차이도 검증되었다.

〈표 III-3-2〉 나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성별 · 교급 · 경제수준 · 부모님결혼상태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전 체		93.7	4.7	1.6	100(814)
1) 성별	남자	91.9	5.3	2.8	100(395)
	여자	95.5	4.1	0.5	100(419)
2) 교급	초등학교	95.8	3.5	0.7	100(405)
	중학교	91.7	5.9	2.4	100(409)
3) 경제수준	빈곤층	90.1	6.4	3.5	100(202)
	중간층	95.3	3.9	0.8	100(590)
4)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4.6	4.3	1.2	100(681)
	기타	85.9	8.7	5.4	100(92)

1) $\chi^2 = 7.745^*$ 2) $\chi^2 = 6.603^*$ 3) $\chi^2 = 9.364^{**}$ 4) $\chi^2 = 12.736^{**}$

<표 III-3-3> 부모님이 내가 열이 나가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경제수준·부모님결혼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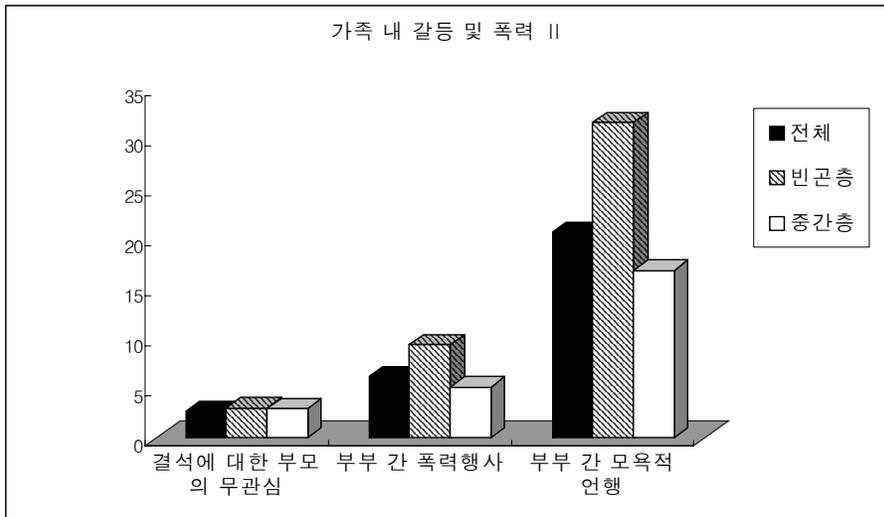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전 체		94.2	4.0	1.8	100(792)
1) 경제수준	빈곤층	89.6	7.9	2.5	100(202)
	중간층	95.8	2.7	1.5	100(590)
2)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5.7	2.8	1.5	100(681)
	기타	87.0	10.9	2.2	100(92)

1) $\chi^2 = 11.479^{**}$ 2) $\chi^2 = 15.023^{**}$

가족 내 갈등을 보여주는 항목 중 학교 결석에 대한 부모의 무관심에 관한 질문과 부부간 폭력 행사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모의 결혼상태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만 유의하게 확인되었다([그림 III-3-2], <표 III-3-4>). 최근 6개월 간 한두 번 이상 부모님 사이의 모욕적인 언행 행사를 본 적이 있는가에 대해 전체 조사대상자의 20.6%가 그렇다고 답변을 하였고,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31.7%, 중간층 집단은 16.8%가 동일 경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III-3-2] 가족 내 갈등 실태 II - 경제수준별 비교



주 : 6개월에 1번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 기준

<표 III-3-4> 가족 내 갈등 및 폭력 실태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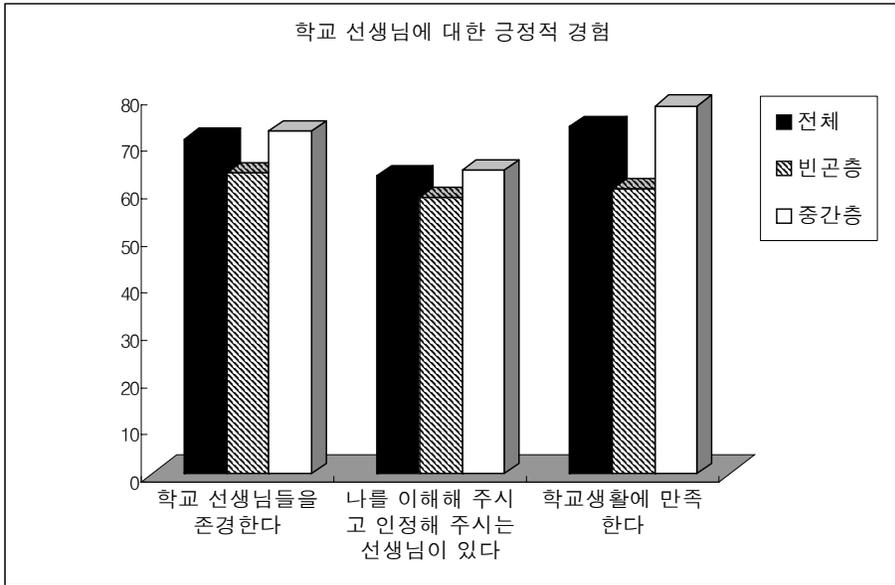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한달에 1~2번 이상	전체	
부모의 무관심 (결석에 대한)	전 체	97.3	1.0	1.7	100(773)	
	1)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7.9	0.9	1.2	100(681)
		기타	92.4	2.2	5.4	100(92)
	1) $\chi^2 = 10.312^{**}$					
부부 간 폭력행사	전 체	93.9	5.2	0.9	100(772)	
	2) 부모님 결혼상태	결혼	94.1	5.3	0.6	100(680)
		기타	92.4	4.3	3.3	100(92)
	2) $\chi^2 = 6.550^*$					
부부 간 모욕적 언행	전 체	79.4	15.4	5.2	100(790)	
	3) 경제수준	빈곤층	68.3	19.8	11.9	100(202)
		중간층	83.2	13.9	2.9	100(588)
	4) 부친학력수준	고졸이하	72.9	19.3	7.8	100(218)
		대졸이상	83.6	14.0	2.3	100(299)
3) $\chi^2 = 30.928^{***}$ 4) $\chi^2 = 12.018^{**}$						

2) 학교 선생님 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

[그림 III-3-3]은 학교선생님과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항목들에 대해 경제수준별로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빈곤층 아동과 청소년들이 학교선생님과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비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3] 학교 선생님과 학교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전체·경제수준별 비교



주 :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친 값/ '학교 선생님을 존경한다' 항목은 경제수준별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음

또한 <표 III-3-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 선생님의 존경유무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교급 간 명백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 응답자에서 학교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3-5>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교급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6.8	22.4	50.9	20.0	100(812)	
교 급	초등학교	3.2	9.7	53.8	33.3	100(403)
	중학교	10.3	35.0	47.9	6.8	100(409)

$$\chi^2 = 145.109^{***}$$

‘자신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가’에 대해 교급·경제 수준·부친학력수준·모친학력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확인되었다. 중학생에 비해 초등학교 응답자가 긍정적으로 답하고 있으며, 중간층에 비해 빈곤층 응답자가 교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정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부모의 학력수준 간 차이가 있으며, 학력 수준이 낮은 초·중생에게서 높은 부정적 응답률을 보여준다.

〈표 Ⅲ-3-6〉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교급·경제수준·부모학력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9.6	27.3	44.4	18.7	100(813)
1) 교급	초등학교	6.2	17.8	44.3	31.7	100(404)
	중학교	13.0	36.7	44.5	5.9	100(409)
2) 경제수준	빈곤층	15.3	26.2	44.6	13.9	100(202)
	중간층	7.5	28.2	44.8	19.5	100(589)
3)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10.6	36.7	41.3	11.5	100(218)
	대졸이상	9.7	24.7	47.7	18.0	100(300)
4) 모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11.4	33.6	43.6	11.4	100(280)
	대졸이상	9.6	24.6	45.2	20.6	100(228)

1) $\chi^2 = 108.613^{***}$ 2) $\chi^2 = 12.718^{**}$ 3) $\chi^2 = 10.920^*$ 4) $\chi^2 = 10721^*$

학교생활의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성별·교급·경제수준·부친학력수준에 따라 응답비율의 차이를 보였다.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들에서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며, 교급 간 비교에서 초등학생에 비해 중학생의 만족도의 정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빈곤층의 경우도 중간층에 비해 학교에 생활 대해 현저하게 낮은 만족도 수준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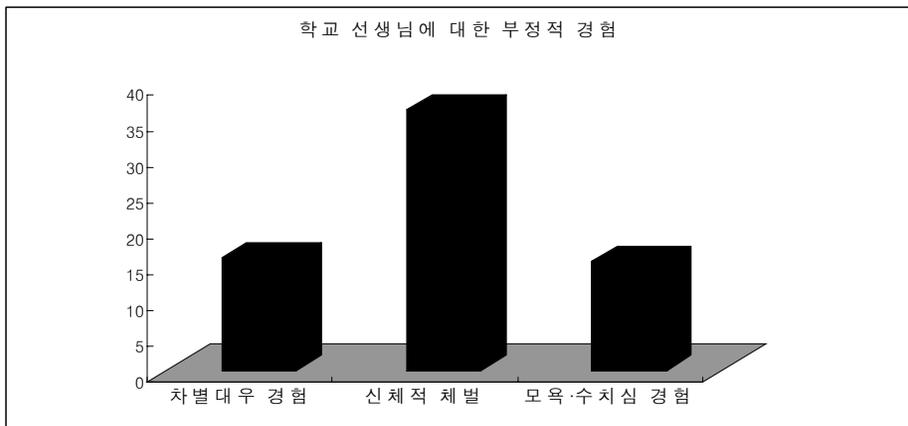
<표 III-3-7> 학교생활 만족도-성별·교급·경제수준·부친학력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전 체		7.9	18.6	53.6	19.9	100(813)
1) 성별	남자	11.2	18.8	50.3	19.8	100(394)
	여자	4.8	18.4	56.8	20.0	100(419)
2) 교급	초등학교	4.7	12.4	50.2	32.7	100(404)
	중학교	11.0	24.7	57.0	7.3	100(409)
3) 경제수준	빈곤층	12.9	26.7	47.0	13.4	100(202)
	중간층	6.1	16.0	55.9	22.1	100(589)
4) 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9.6	24.8	53.7	11.9	100(218)
	대졸이상	7.3	17.3	53.3	22.0	100(300)

1) $\chi^2 = 12.194^{**}$ 2) $\chi^2 = 94.047^{***}$ 3) $\chi^2 = 26.027^{***}$ 4) $\chi^2 = 11.433^*$

학교 선생님의 차별대우, 신체적 체벌 등에 대한 부정적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 아동·청소년 응답자들은 대체적으로 아래 [그림 III-3-4]와 같은 응답을 보여, 선생님으로부터의 차별대우나 모욕과 수치심을 경험했다는 비율이 15%를 넘었으며, 신체적 체벌은 약 40%가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3-4]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인 경험-전체·경제수준별 비교



주 :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친 값/ 세 항목 모두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므로 전체값만 제시함

세부변인별로는 성별, 교급, 부친 및 모친 학력 변인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경제 변인 수준 간 유의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중학생이 초등학생에 비해 교사에 대한 모든 부정적 경험에서 높은 빈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여학생에 비해 남학생들에게서 부정적 경험에 대한 답변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III-3-8> 학교 선생님에 대한 부정적 경험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차별 대우 경험	전 체	43.7	40.7	11.6	4.1	100(813)	
	1) 교급	초	55.7	31.2	9.4	3.7	100(404)
		중	31.8	50.1	13.7	4.4	100(409)
	2)부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39.0	47.2	12.4	1.4	100(218)
		대졸이상	40.0	41.0	12.0	7.0	100(300)
	1) $\chi^2 = 47.968^{***}$ 2) $\chi^2 = 9.796^*$						
신체적 체별	전 체	32.8	30.9	23.5	12.8	100(813)	
	3) 성별	남자	23.9	28.9	26.6	20.6	100(394)
		여자	41.3	32.7	20.5	5.5	100(419)
	4) 교급	초	43.8	30.2	15.8	10.1	100(404)
		중	22.0	31.5	31.1	15.4	100(409)
	5)모친 학력수준	고졸이하	24.3	30.7	32.1	12.9	100(280)
대졸이상		36.4	30.7	19.7	13.2	100(228)	
3) $\chi^2 = 59.005^{***}$ 4) $\chi^2 = 53.949^{***}$ 5) $\chi^2 = 13.495^{**}$							
모욕 및 수치심 경험	전 체	55.2	29.5	9.2	6.0	100(813)	
	6) 성별	남자	52.5	27.7	11.7	8.1	100(394)
		여자	57.8	31.3	6.9	4.1	100(419)
	7) 교급	초	67.6	22.5	5.0	5.0	100(404)
		중	43.0	36.4	13.4	7.1	100(409)
	6) $\chi^2 = 12.433^{**}$ 7) $\chi^2 = 52.930^{***}$						

3) 지역사회 의식 및 경험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이 안전성과 지역민들의 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 수준 집단 간 차이가 확인 되었다. 두 문항에 대한 빈곤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 비율은 각각 70.2%, 72.2%였으며 반면에 중간층 집단의 동일 응답 비율은 각각 61.1%, 58.2%로 나타나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표 III-3-9〉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우려고 한다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1) 주민 협력	경제 수준	전체	17.7	45.7	29.7	6.9	100(787)
		빈곤층	22.4	47.8	26.9	3.0	100(201)
		중간층	16.0	45.1	30.7	8.2	100(586)
2) 지역의 안전성	경제 수준	전체	17.6	44.1	29.3	9.0	100(789)
		빈곤층	22.4	49.8	22.4	5.5	100(201)
		중간층	16.0	42.2	31.6	10.2	100(588)

1) $\chi^2 = 13.532^{**}$ 2) $\chi^2 = 10.312^*$

4) 용돈 마련 방법

용돈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 중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빈곤 집단은 13.4%로 중간층 집단(5.6%)에 비해 그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비행행동을 통해 용돈을 조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탈(7.5%), 성매매나 원조교제(4%)를 통해서 조달한 적이 있다고 답해 중간층 집단의 3%,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표 III-3-10> 부모로부터 용돈수령·절도와 강탈·성매매나 원조교제

구 분		전혀 없음	가끔	자주	전체	
1) 부모로부터 용돈수령	경제 수준	전체	7.6	33.0	59.4	100(788)
		빈곤층	13.4	32.3	54.2	100(201)
		중간층	5.6	33.2	61.2	100(587)
2) 절도와 강탈	경제 수준	전체	95.8	2.3	1.9	100(784)
		빈곤층	92.5	4.5	3.0	100(199)
		중간층	96.9	1.5	1.5	100(585)
3) 원조교제나 성매매	경제 수준	전체	97.3	1.1	1.5	100(784)
		빈곤층	96.0	0.5	3.5	100(200)
		중간층	97.8	1.4	0.9	100(584)

1) $\chi^2 = 13.244^{**}$ 2) $\chi^2 = 7.760^*$ 3) $\chi^2 = 7.834^*$

5) 비행행동 경험

흡연·절도·강탈경험 같은 비행행동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빈곤층 집단의 경우 각 비행행동을 한두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9%, 16.9%, 12.3%였으며, 경제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7.3%, 8.6%, 4.6%로 두 집단 간에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표 III-3-11> 흡연·절도 경험·강탈경험-경제수준별 비교

(단위 : %)

구 분		전혀 없음	1~2번	3~4번 이상	전체	
1) 흡연	경제 수준	전체	91.5	4.4	4.0	100(791)
		빈곤층	88.1	4.0	7.9	100(202)
		중간층	92.7	4.6	2.7	100(589)
2) 절도 경험	경제 수준	전체	89.3	8.7	2.0	100(791)
		빈곤층	83.2	11.9	5.0	100(202)
		중간층	91.3	7.6	1.0	100(589)
3) 강탈경험	경제 수준	전체	93.6	5.1	1.4	100(791)
		빈곤층	88.1	8.4	3.5	100(202)
		중간층	95.4	3.9	0.7	100(589)

1) $\chi^2 = 10.547^{**}$ 2) $\chi^2 = 15.723^{***}$ 3) $\chi^2 = 15.305^{***}$

4.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사회복지서비스

1)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학교생활적응과 대학진학 가능 여부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된 2008년 2학기 이후의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에 대한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학교생활 적응도, 결석일수와 그 이유, 대학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 조사하였다.

(1) 학교생활 적응도와 결석일수

먼저 학교생활 적응 정도를 살펴본 결과, 전체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10% 이상이 적응하지 못한다(‘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와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를 합친 비율)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III-4-1>).

세부변인별로는 교급과 경제수준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은 7.7%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한 반면, 중학생은 12.8%가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해, 중학생이 더 높은 비율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표 III-4-1> 학교생활 적응 정도-교급·경제수준·부모결혼상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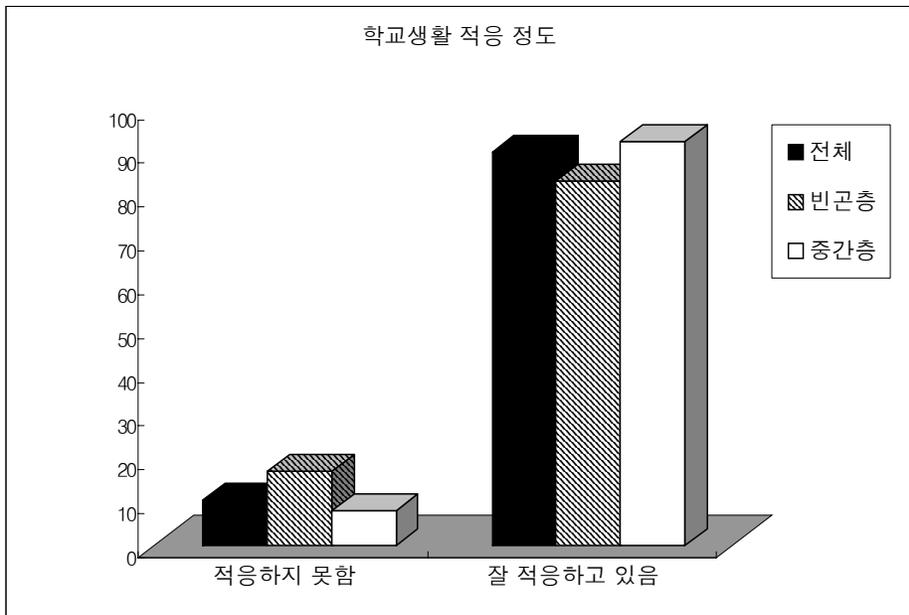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전체(명)
전 체		2.2	8.0	51.1	38.7	100(809)
1) 교급	초등학교	1.2	6.5	47.1	45.2	100(403)
	중학교	3.2	9.6	54.9	32.3	100(406)
2) 경제수준	빈곤층	3.5	13.4	53.5	29.7	100(202)
	중간층	1.7	6.3	50.8	41.2	100(585)
3) 부모 결혼상태	결혼	1.6	6.5	51.2	40.7	100(676)
	기타	6.5	15.2	47.8	30.4	100(92)

1) $\chi^2 = 17.091^{**}$ 2) $\chi^2 = 16.697^{**}$ 3) $\chi^2 = 19.230^{***}$

또한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아동 및 청소년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16.9%인 반면,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경우 8.0%로 나타나, 빈곤층인 아동 및 청소년이 2배 이상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III-4-1]. 더불어, 부모님이 결혼 및 재혼상태인 아동과 청소년의 8.1%만이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했으나, 부모님의 결혼상태가 '기타'범주에 속하는 아동, 청소년은 21.7%가 응답해, 가정에서의 부모의 결혼 상태와 관련해 학교적응도에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I-4-1] 학교생활 적응 정도- 전체·경제수준별 비교



주 : 적응하지 못함은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와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의 합친 값이며, 잘 적응하고 있음은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와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의 합친 값임

또한 설문대상 아동과 청소년들의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결석일수를 조사하였는데, 1번 이상 결석하였다는 응답비율은 약 20%였으며, 7일 이상의 결석도 5.6%의 아동과 청소년이 응답하였다(<표 III-4-2>). 세부변인별로는 교급, 경제수준, 아버지 학력, 부모의 결혼 상태 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

다. 교급 별로는 초등학생의 최근 1번 이상의 결석일수가 24.2%인데 반해 중학생은 15.7%로 나타나, 초등학생의 결석률이 더 높았으며, 경제수준별로는 어려운 경제수준의 아동과 청소년의 결석률이 24.6%로 보통수준의 17.9%보다 더 높았다. 특히 7일 이상의 결석은 어려운 경제사정의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9%로서 보통수준의 4.1%에 비해 2배 이상 높았다.

또한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의 경우와(75.5%), 그리고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타'에 해당되는 경우(69.2%)에 아동과 청소년의 결석일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I-4-2> 학교에 가지 않은 날 수 교급·경제수준·부 학력·부모결혼상태 비교

(단위 : %)

구 분		없다	1-2번	7일 정도	보름 정도	한 달 정도	한 달 이상	전체(명)
전 체		80.1	14.4	3.3	0.8	1.0	0.5	100(794)
1) 교급	초등학교	75.8	19.3	3.6	0.5	0.5	0.3	100(393)
	중학교	84.3	9.5	3.0	1.0	1.5	0.7	100(401)
2) 경제수준	빈곤층	75.4	15.6	4.0	1.0	3.0	1.0	100(199)
	중간층	82.1	13.8	2.8	0.7	0.3	0.3	100(574)
3) 부 학력	고졸이하	75.5	14.6	5.7	0.0	2.8	1.4	100(212)
	대졸이상	84.3	11.6	2.7	1.0	0.3	0.0	100(293)
4) 부모결혼상태	결혼	82.3	13.5	2.9	0.8	0.5	0.2	100(666)
	기타	69.2	14.3	7.7	1.1	4.4	3.3	100(91)

1) $\chi^2 = 18.924^{**}$ 2) $\chi^2 = 13.451^*$ 3) $\chi^2 = 16.540^{**}$ 4) $\chi^2 = 35.783^{***}$

최근 학교를 결석한 이유로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 대부분은 '몸이 아파서(70.5%)' 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11.5%),' '학비를 못 내서(4.3%),' '선생님이 싫어서(4.3%)' 순으로 나타났다(<표 III-4-3>)¹¹⁾.

11) 응답자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일부 응답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항목별 교차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세부변인별 응답비율만 제시하였다.

<표 III-4-3> 학교 결석 이유-성별 · 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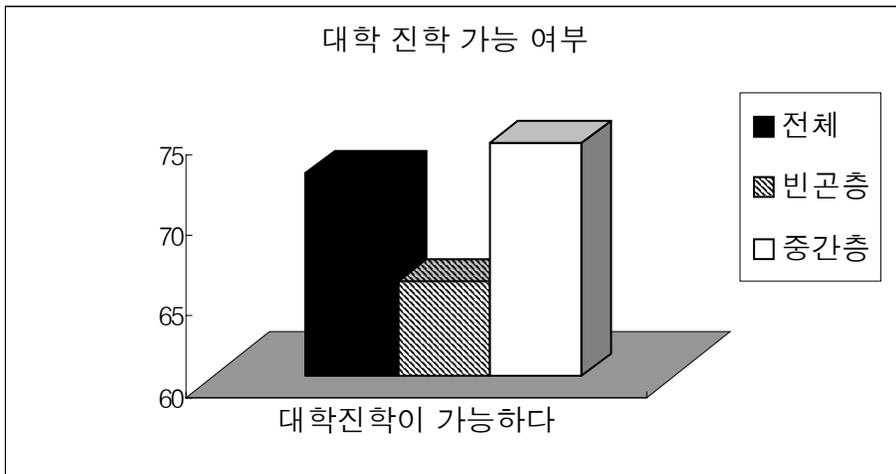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학비를 못내서	가사를 돕기위해	부모님이 못가게 해서	몸이 아파서	귀찮아서, 아침에 못 일어나서	선생님이 싫어서	가출 해서	괴롭힘이 무서워서	전체 (명)	
전 체	4.3	2.2	2.9	70.5	11.5	4.3	2.9	1.4	100(139)	
성별	남자	7.1	2.9	4.3	60.0	12.9	8.6	2.9	1.4	100(70)
	여자	1.4	1.4	1.4	81.2	10.1	0	2.9	1.4	100(69)
교급	초등	2.5	2.5	2.5	79.0	8.6	3.7	1.2	0	100(81)
	중	6.9	1.7	3.4	58.6	15.5	5.2	5.2	3.4	100(58)
경제 수준	빈곤층	2.6	2.6	7.7	64.1	10.3	7.7	2.6	2.6	100(39)
	중간층	5.3	2.1	1.1	72.6	11.6	3.2	3.2	1.1	100(95)

(2) 대학진학 가능 여부

대학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서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들은 교급, 경제수준, 부모학력, 부모결혼 상태에 따른 차이를 보였다. [그림 III-4-2]와 <표 III-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학생이고, 빈곤층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모두 고졸이하이며,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타’에 속할 때, 대학진학이 가능하지 않다는 아동과 청소년의 응답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2] 대한 진학이 가능 여부-전체 · 경제수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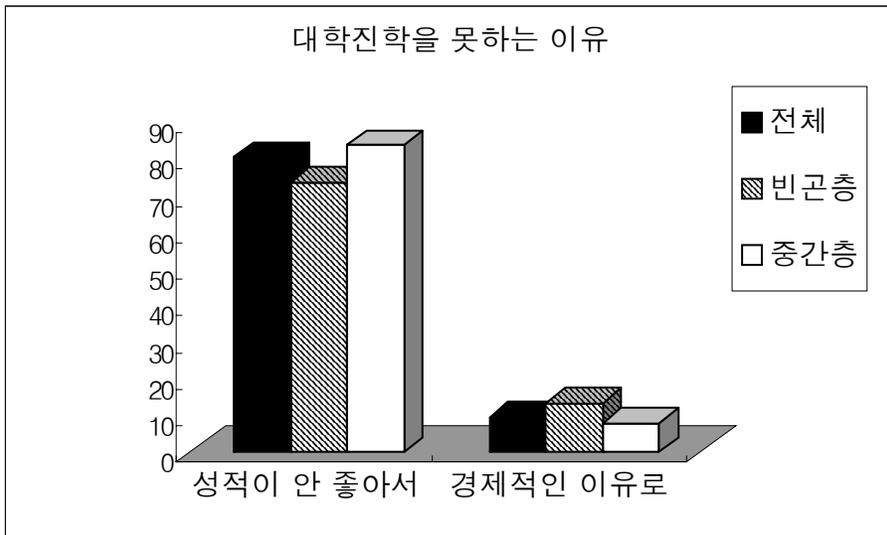
〈표 Ⅲ-4-4〉 대학 진학 가능 여부
-교급·경제수준·부모학력·부모결혼 상태별 비교

(단위 : %)

구 분		예	아니오	전체(명)
전 체		72.5	27.5	100(793)
1) 교 급	초등학교	69.0	31.0	100(397)
	중학교	76.0	24.0	100(396)
2) 경제수준	빈곤층	65.8	34.2	100(193)
	중간층	74.4	25.6	100(578)
3) 부 학력	고졸이하	70.0	30.0	100(213)
	대졸이상	84.9	15.1	100(292)
4) 모 학력	고졸이하	72.9	27.1	100(273)
	대졸이상	83.5	16.5	100(224)
5) 부모결혼상태	결혼	76.9	23.1	100(667)
	기타	56.3	43.7	100(87)

1) $\chi^2 = 4.863^*$ 2) $\chi^2 = 5.326^*$ 3) $\chi^2 = 16.435^{***}$ 4) $\chi^2 = 7.953^{**}$ 5) $\chi^2 = 17.190^{***}$

[그림 Ⅲ-4-3] 대학진학을 못하는 이유-전체·경제수준별 비교



주 :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항목만 제시함

대학진학을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성별, 교급 등의 세부변인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유로는 ‘성적이 안 좋아서(80.3%)’, ‘경제적인 이유로(9.4%)’,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5.6%)’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4-3] (<표 Ⅲ-4-5>).

특히 가정경제수준별로 통계적인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나,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아동과 청소년의 13.2%가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을 하지 못한다고 하여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7.8%)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Ⅲ-4-5> 대학진학을 못하는 이유-성별 · 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¹²⁾

(단위 : %)

구 분		성적이 안 좋아서	경제적인 이유로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대학이 안중요함	기타	전체(명)
전 체		80.3	9.4	0.5	5.6	4.3	100(213)
성별	남자	72.7	14.1	0	8.1	5.0	100(99)
	여자	86.8	5.3	0.9	3.5	3.6	100(114)
교급	초등학교	76.4	10.6	0.8	5.7	6.5	100(123)
	중학교	85.6	7.8	0	5.6	1.1	100(90)
경제 수준	빈곤층	73.5	13.2	0	5.9	7.4	100(68)
	중간층	83.7	7.8	0.7	5.0	2.8	100(141)

12) 응답자수가 매우 적을 뿐 아니라 일부 응답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각 항목별 교차분석 결과를 해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 세부변인별 응답비율만 제시하였다.

2)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여가활동

최근 아동과 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현재 여가활동과 또 희망하는 여가활동, 또 여가활동에 있어서의 장애들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사하였다.

(1) 현재 및 희망 여가활동

최근 여가활동에 대해서는 <표 III-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TV시청’, ‘인터넷 및 컴퓨터게임’, ‘집에서의 휴식’, ‘친구만나기’, ‘집안일 돕기’ 등의 활동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희망하는 여가활동은 다른 양상을 보여, ‘여행’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친구만나기’, ‘음악·영화감상’, ‘인터넷·컴퓨터게임’, ‘쇼핑하기’순으로 나타났다.

<표 III-4-6> 현재 여가활동 (복수응답)

(단위 : 빈도)

순위	현재 여가활동 (빈도)		희망여가활동 (빈도)	
1	TV시청	434	여행	325
2	인터넷·컴퓨터게임	389	친구만나기	227
3	집에서 휴식	317	음악·영화감상	208
4	친구만나기	256	인터넷·컴퓨터게임	202
5	집안일 돕기	145	쇼핑하기	183

(2)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사항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시간부족(51.6%)’을 가장 큰 장애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용부담(27.1%),’ ‘적절한 장소·시설(12.8%) 없음’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났다(<표 III-4-7>). 세부변인별로는, 교급과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시간부족(59.1%와 44.4%)’을 가장 큰 장애로 꼽았고, 비용부담에 대해서도 각각 19.2%와 34.6%로 응답해 적지 않은 응답비율을 보였다.

<표 III-4-7> 여가활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사항-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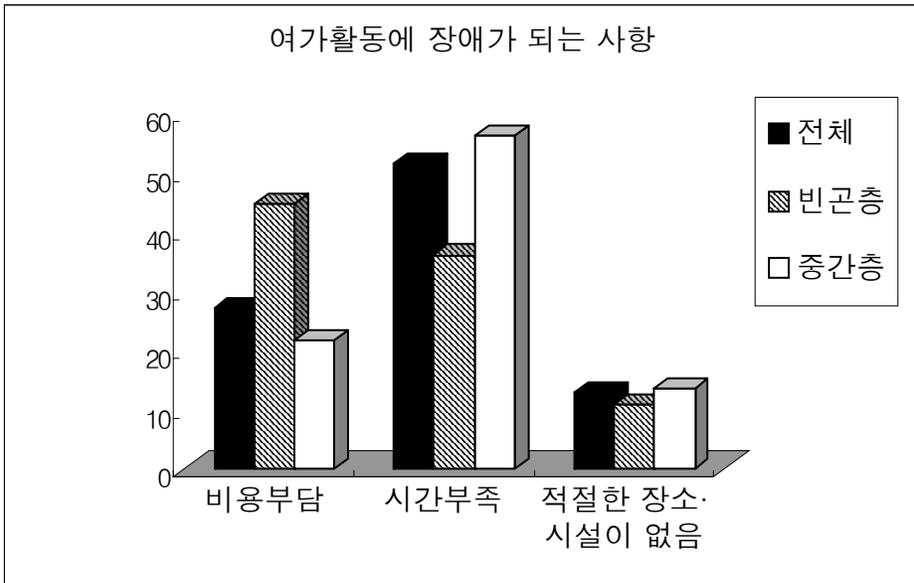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비용부담	시간부족	함께할 사람이 없음	적절한 장소·시설 이 없음	정보획득이 어려움	전체(명)
전 체		27.1	51.6	5.6	12.8	3.0	100(791)
1) 교급	초등학교	19.2	59.1	7.0	10.9	3.9	100(386)
	중학교	34.6	44.4	4.2	14.6	2.2	100(405)
3) 경제수준	빈곤층	44.8	36.1	6.2	10.8	2.1	100(194)
	중간층	21.7	56.3	5.2	13.5	3.3	100(577)

1) $\chi^2 = 32.199^{***}$ 2) $\chi^2 = 41.805^{***}$

또한 경제수준이 어려운 경우에는 [그림 III-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용부담(44.8%)’을 그리고 중간층인 경우는 ‘시간부족(56.3%)’을 여가활동의 가장 큰 장애로 응답해,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가정의 아동과 청소년에게 있어서 역시 비용문제가 가장 큰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III-4-4] 여가활동에 가장 장애가 되는 사항-전체 · 경제수준별 비교



주 : 가장 높은 응답비율을 보인 세 항목만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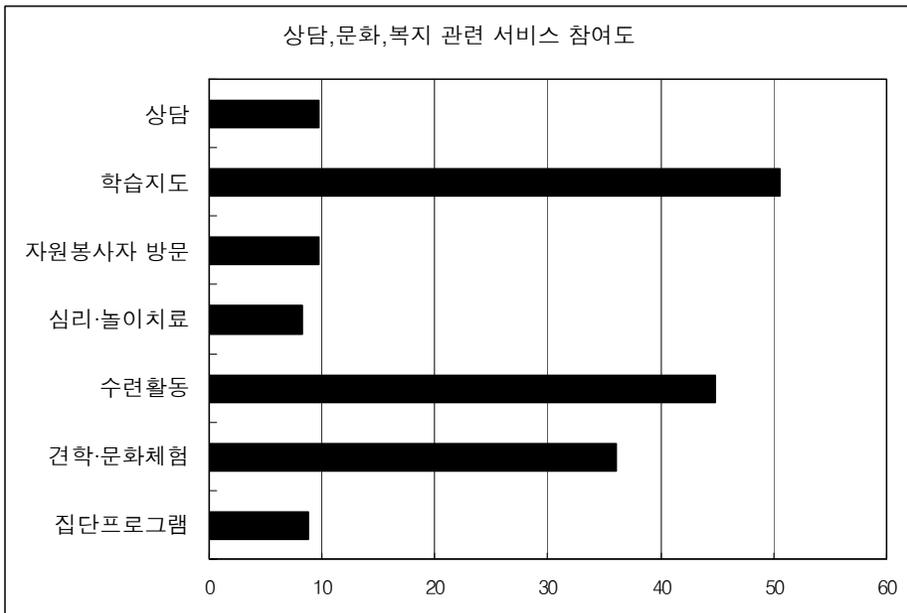
3) 최근 (2008년 2학기 이후)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최근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참여에 대해 조사하기 위해 세부적으로 상담서비스, 학습지도서비스,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청소, 빨래, 식사준비 등),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서비스,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견학·문화체험 등의 당일 프로그램, 성격과 관계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등에 대한 참여여부와 만족도를 질문하였다.

(1) 서비스 참여도와 만족도

조사결과는 [그림 III-4-5]와 <표 III-4-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습지도 서비스’의 참여경험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캠프 등 수련활동(44.9%)’, ‘견학·문화체험(36.0%)’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서비스(9.7%)’,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9.7%)’,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8.8%)’,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8.2%)’의 참여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낮게 나타났다.

[그림 III-4-5]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참여도-전체·전체비교



<표 III-4-8>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참여-일부 세부변인별 비교

(단위 : %)

구 분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전체(명)	
상담서비스	1) 경제수준	전 체	9.7	90.3	100(783)
		빈곤층	17.0	83.0	100(200)
		중간층	7.2	92.8	100(583)
학습지도서비스	2) 교급	전 체	50.6	49.4	100(800)
		초등학교	62.5	37.5	100(397)
		중학교	39.0	61.0	100(403)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청소, 빨래, 식사 등)	3) 성별	전 체	9.7	90.3	100(801)
		남자	12.8	87.2	100(390)
		여자	6.8	93.2	100(411)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서비스	4) 교급	전 체	8.2	91.8	100(802)
		초등학교	11.1	88.9	100(398)
		중학교	5.4	94.6	100(404)
	5) 경제수준	전 체	8.3	91.7	100(782)
		빈곤층	12.1	87.9	100(199)
캠프 등 수련활동	6) 교급	전 체	44.9	55.1	100(801)
		초등학교	62.7	37.3	100(397)
		중학교	27.5	72.5	100(404)
견학, 문화체험	7) 교급	전 체	36.0	64.0	100(800)
		초등학교	52.4	47.6	100(397)
		중학교	19.9	80.1	100(403)
성격, 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	전 체	8.8	91.3	100(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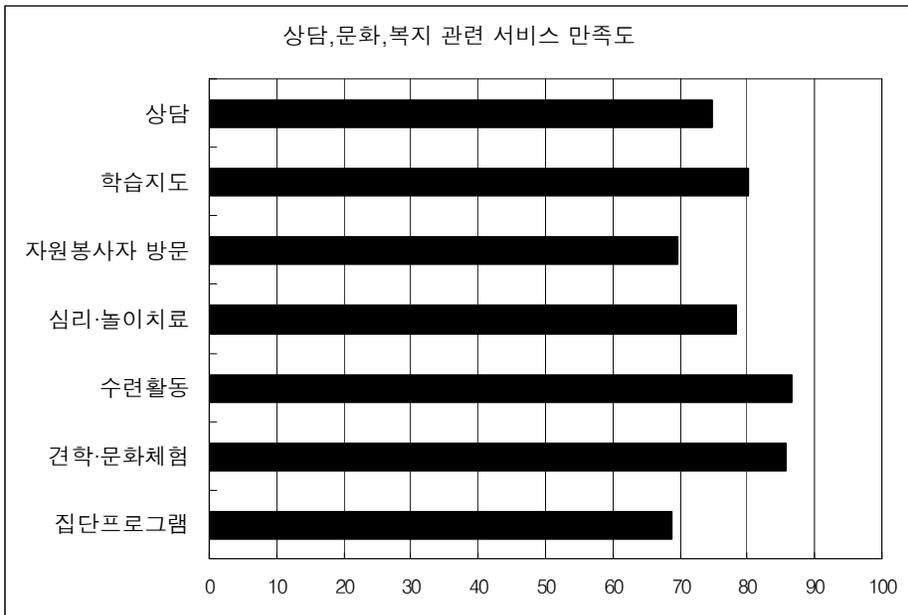
1) $\chi^2 = 16.305^{***}$ 2) $\chi^2 = 44.225^{***}$ 3) $\chi^2 = 8.218^{**}$ 4) $\chi^2 = 8.354^{**}$
 5) $\chi^2 = 4.921^*$ 6) $\chi^2 = 100.522^{***}$ 7) $\chi^2 = 91.919^{***}$

일부 서비스는 세부변인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상담서비스는 경제수준이 어려운 아동과 청소년이, 학습지도서비스는 초등학생이, 그리고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는 남자아동과 청소년의 참여비율이 높았다. 또한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 서비스는 초등학생과 경제적으로 빈곤층인 아동과 청소년

년이, 캠프 등의 수련활동과 견학, 문화체험 등 당일활동에서는 초등학생이 더 높은 참여비율을 보였다.

[그림 III-4-6]과 <표 III-4-9>은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캠프 등의 수련활동과 견학, 문화체험 등의 활동이 비슷한 비율(각각 86.6%와 86%)로 가장 높은 만족도(‘만족’과 ‘매우만족’을 합친 비율)를 보였고, 다음으로는 학습지도 서비스(80%),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 서비스(78.3%), 상담서비스(74.7%),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69.7%), 성격과 관계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69%)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III-4-6]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만족도 -전체비교



<표 III-4-9> 상담, 문화, 복지 관련 서비스 만족도 -일부 세부변인별 비교

(단위 : %)

구 분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전체(명)	
상담서비스	전 체	8.0	17.3	50.7	24.0	100(75)	
학습지도서비스	전 체	5.9	13.9	64.7	15.5	100(388)	
	1) 교급	초등	5.1	10.6	65.3	19.1	100(236)
		중	7.2	19.1	63.8	9.9	100(152)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청소등)	전 체	10.5	19.7	50.0	19.7	100(76)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서비스	전 체	10.1	11.6	58.0	20.3	100(69)	
캠프 등 수련활동	전 체	2.9	10.7	49.0	37.5	100(347)	
견학, 문화체험	전 체	3.6	10.5	58.9	26.9	100(275)	
	2) 성별	남자	6.4	14.4	48.8	30.4	100(125)
		여자	1.3	7.3	67.3	24.0	100(150)
	3) 교급	초등	3.5	6.6	57.1	32.8	100(198)
		중	3.9	20.8	63.6	11.7	100(77)
성격, 관계향상 집단프로그램	전 체	7.5	23.8	41.3	27.5	100(80)	
	4) 성별	남자	10.6	31.9	40.4	17.0	100(47)
		여자	3.0	12.1	42.4	42.4	100(33)

1) $\chi^2 = 10.595^*$ 2) $\chi^2 = 13.055^{**}$ 3) $\chi^2 = 20.254^{***}$ 4) $\chi^2 = 9.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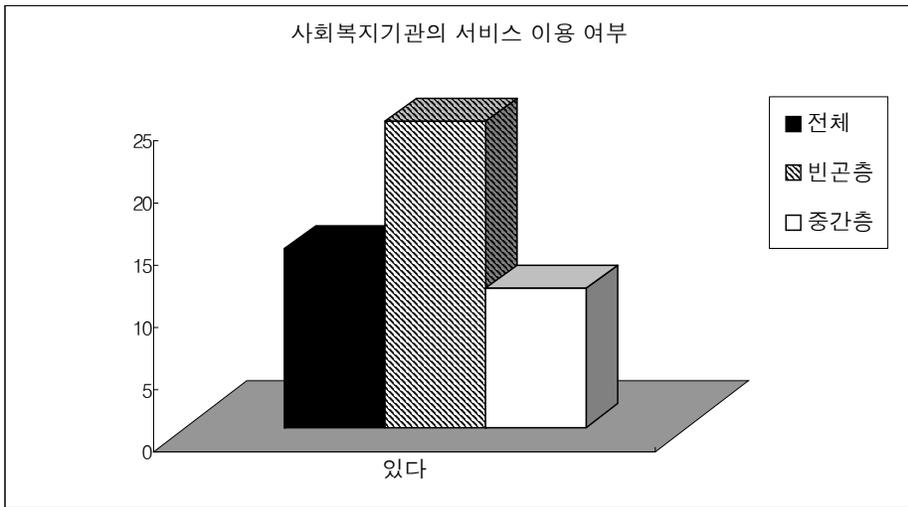
일부 서비스들은 세부변인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학습지도 서비스의 경우 초등학생의 응답비율은 84.4%로 중학생(73.7%)보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견학 및 문화체험 등의 활동에서는 여학생이 91.3%로 남학생(79.2%)보다, 그리고 초등학생(83.9%)이 중학생(75.3%)보다 더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성격과 관계향상을 위한 집단 프로그램에서는 여학생(84.8%)의 만족도가 남학생(57.4%)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사회복지 서비스 이용과 이에 대한 인식

정부의 사회복지 서비스나 민간 사회복지기관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예: 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를 제공받은 적이 있는지를 조사한 결과, [그림 III-4-7]과 <표 III-4-10>에서와 같이, 본 조사대상 아

동과 청소년 중 14.4%만이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별인 중 교급과 경제수준별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중학생(11.4%)보다는 초등학생(17.4%)이 그리고 가정 경제수준이 빈곤층인 경우(24.7%)가, 중간층인 경우(11.2%)보다 2배 이상 이러한 복지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림 III-4-7]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 이용 여부-전체·경제수준별 비교



<표 III-4-10> 사회복지기관의 서비스(급식, 상담, 후원 등) 이용 여부 -교급 · 경제수준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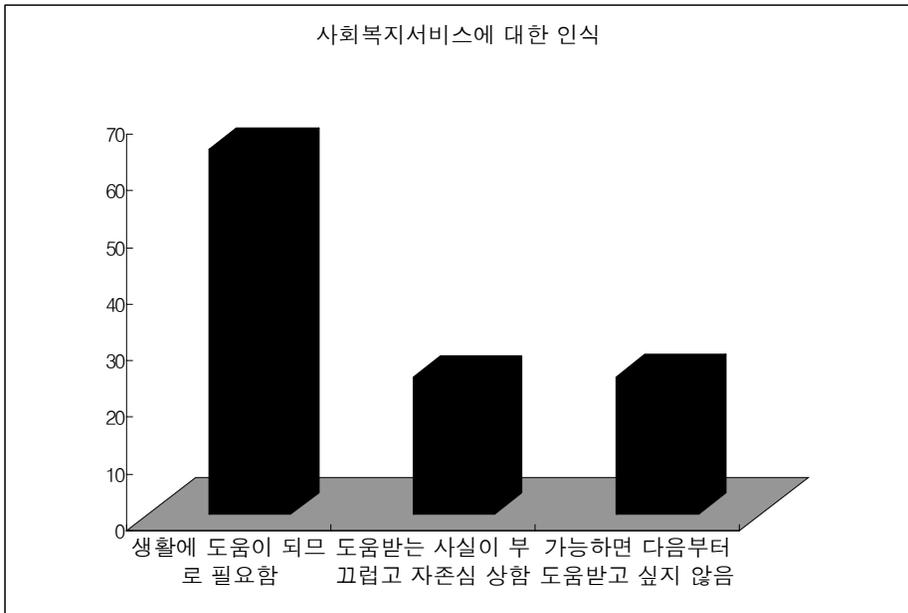
(단위 : %)

구 분		있다	없다	전체
전 체		14.4	85.6	100(807)
1) 교급	초등학교	17.4	82.6	100(402)
	중학교	11.4	88.6	100(405)
2) 경제수준	빈곤층	24.7	75.3	100(198)
	중간층	11.2	88.8	100(587)

1) $\chi^2 = 6.009^*$ 2) $\chi^2 = 21.593^{***}$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질문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III-4-11>과 같다. 먼저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는 항목에 대해서는 64.4%의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이 그렇다(‘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라는 응답도 24.3%로 적지 않은 비율로 나타났다으며,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에 대해서도 비슷한 수준(24.4%)의 응답을 보였다. 따라서 본 조사의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은 이러한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체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4분의 1 정도의 아동과 청소년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받는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III-4-8]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인식-전체비교



주 : ‘대체로 그렇다’와 ‘매우 그렇다’의 응답을 합친 값

〈표 III-4-11〉 사회복지서비스(급식, 상담, 후원등)에 대한 인식
-교급 · 경제수준

(단위 : %)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전체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전 체	16.1	19.5	44.1	20.3	100(118)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전 체	31.9	43.7	21.8	2.5	100(119)	
가능하다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전 체	41.2	34.5	21.0	3.4	100(119)	
	1) 성별	남자	34.4	27.9	32.8	4.9	100(61)
		여자	48.3	41.4	8.6	1.7	100(58)
	2) 교급	초등	47.2	37.5	13.9	1.4	100(72)
중		31.9	29.8	31.9	6.4	100(47)	

1) $\chi^2 = 12.127^{**}$ 2) $\chi^2 = 8.618^*$

5. 실태조사결과 요약

최근(2008년 2학기 이후)의 경제위기 이후 1) 기초생활 영역과 2) 사회복지원체계영역 3) 교육·문화·사회서비스 하부지표에서 경제수준, 교급, 성별특성, 부모의 결혼상태, 부친·모친의 학력 수준 같은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변인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특히 경제변인에 따른 비교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중간층 집단에 비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08년 2학기 이후의 경제 위기가 중간층보다는 빈곤층 집단의 삶의 질에 보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조사결과는 다양한 측정변인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경제·신체·정신적 고통이 중간층에 속한 아동·청소년에 비해 매우 심각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경제변인을 중심으로 각 조사영역의 중요하부 지표에서 나타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첫째 영역에서, 기초생활에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건강실태 및 심리·생

활상·가족관계 및 기타 변화양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 건강관련 항목에서 아토피·습진·부스럼 같은 피부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의 응답비율(3.0%)이 경제수준이 보통인 아동(0.7%)의 응답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으며, 만성질환의 발병비율도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7.4%로 중간집단의 3.6%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번이라도 특정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부상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17%에 달해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1.8%)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높았다.

- 심리적 변화와 관련된 항목 중 외로움·걱정·자신감 감소·자살 관련문항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각각 24.7%, 53%, 27.4%, 25.9%)이 중간층(각각 14.9%, 36.3%, 16.6%, 13.2%)에 비해 약 2배 정도 부정적으로 답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경험 및 가출충동 문항에서도 빈곤 아동·청소년 집단(각각 18.8%, 21.8%)이 중간층(각각 8.4%, 9.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및 주관적 차별과 무시에 대한 반응 및 가출에 대한 충동이 빈곤층 집단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경제변인(빈곤 vs.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대부분 생활상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필요물품 구입중단 여부·학원(과외)교습 중단여부·여가활동중단(감소)여부·용돈 관련 문항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각각 11%, 22.3%, 21.7%, 27.2%) 중간층(각각 4.9%, 11.6%, 12%, 14.5%)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부정적인 방향(감소·중단)으로 답변하였다. 치료 상황에서 병원치료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5.5%가 부정적 방향으로 답변한 반면,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3%만이 동일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사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공공기관이나 지인으로 부터 도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빈곤층(각각 9.9%, 20.9%)이 중간층(각각 2.7%, 7%)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비율로 응답해 거주환경의 악화와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빈곤층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에서 수입 감소로 인한 부모님 사이의 관계가 악화여부·부모 자녀 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여부·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부모의 고통정도와 관련된 문항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각각 22%,14.4%,68.8%로 답변해 중간층의 응답비율 4.8%,5.2%,34.1%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부정적 경향을 보였다. 경제위기가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11.4%가 그렇다고 답변해 중간층의 2.3%에 비해 가정폭력의 경험 정도가 빈곤층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경제위기 관련 기타 변화 양상으로 생활비 혹은 용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시작여부·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이별여부·경제위기 이후 부모님의 실직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각각 6%, 8.9%, 11.4% 비율로 답변을 해 중간층의 2.7%, 3.6%, 3.4%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사정이 악화로 인한 가족해체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정서적 건강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자신의 존재가치 수용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부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우울 척도에서 빈곤(각각 $M=28.09$, $M=29.90$)과 중간층(각각 $M=29.73$, $M=26.08$) 아동·청소년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층 집단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 하며 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둘째,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에 대한 항목은 가족 내 갈등과 폭력 및 학교·교사·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양상 그리고 비행행위에 초점을 맞추어 질문하였다.

- 경제위기가 시작된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신체적 체벌 경험 여부·부모로부터 모욕감과 수치심 경험여부· 부모로부터 모멸감을 자극받는 언행 경험여부·부모 간 서로 모욕적인 언행 행사를 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빈곤층은 각각 26.7%, 26.7%, 25.8%, 31.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층의 경우 15.2%, 17.6%, 17%, 16.8% 나타나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높은 비율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는지’ 같은 부모의 방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개월 간 한번 이상 방치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빈곤층 아동·청소년(10.4%)이 중간층(5.2%)보다 2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였다

- 학교·교사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지’와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정도에 대해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두 문항에서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중간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성과 지역민들의 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수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두 문항에 대한 빈곤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 비율은 각각 70.2%, 72.2%였으며 반면에 중간층 집단의 동일 응답 비율은 각각 61.1%, 58.2%를 나타나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 용돈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 중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본 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빈곤 집단은 13.4%로 중간층 집단(5.6%) 비해 그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비행행동을 통해 용돈을 조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탈(7.5%), 성매매나 원조교제(4%)를 통해서 조달한 적이 있다고 답해 중간층 집단의 3%,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흡연·절도·강탈경험 같은 일탈·비행행동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정되었다. 빈곤층 집단의 경우 각 비행행동을 한, 두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9%, 16.9%, 12.3%였으며, 경제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7.3%, 8.6%, 4.6%로 두 집단 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 셋째, 학교적응도와 결석, 대학진학 가능여부, 방과 후 혹은 주말 여가

활동, 상담·문화·사회복지관련 서비스에 대해 구체적으로 질문하였다.

최근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서는 전체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10% 이상이 적응하지 못한다고 응답하였으며, 초등학생(7.7%)보다 중학생(12.8%)이 더 높은 비율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또한 경제수준이 빈곤층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결혼상태가 결혼이나 재혼이 아닌 ‘기타’인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다. 최근결석일수에 대한 조사에서는 1번 이상 결석했다는 응답은 전체 약 20%에 달했고, 중학생(15.7%)보다는 초등학생이(24.2%), 경제수준이 중간층인 경우(17.9%)보다 빈곤층인 아동과 청소년(24.6%)이 최근 더 많은 결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7일 이상의 결석도 전체 5.6%의 아동과 청소년이 응답하였는데, 빈곤층인 경우에는 9%로 훨씬 높았다. 더불어, 아버지의 학력이 고졸이하인 경우,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타’인 경우 아동과 청소년의 결석일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결석 이유로는 ‘몸이 아파서(70.5%),’ 라고 응답했으며 그 다음으로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11.5%),’ ‘학비를 못 내서(4.3%)’ 순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초등학생이고, 빈곤층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학력이 모두 고졸이하이며, 부모의 결혼상태가 ‘기타’에 속할 때, 대학진학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동과 청소년의 응답비율이 더 높았다. 대학진학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의 가장 큰 이유로는 ‘성적이 안 좋아서(80.3%),’ ‘경제적인 이유로(9.4%),’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5.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최근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인터넷 및 컴퓨터게임’, ‘집에서의 휴식’, ‘친구만나기’, ‘집안일 돕기’의 순서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친구만나기’, ‘음악·영화감상’, ‘인터넷·컴퓨터게임’, ‘쇼핑하기’순으로 나타나, 현재 여가활동과는 다른 양상을 보였다.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물어본 결과, 전체적으로 ‘시간부족(51.6%)’를 가장 큰 장애로 꼽았으며, 그 다음으로 ‘비용부담(27.1%),’ ‘적절한 장소·시설(12.8%)부족’의 응답비율이 높

게 나타났다. 특히 빈곤층인 경우에는 ‘비용부담(44.8%)’을 그리고 경제적으로 중간층인 경우는 ‘시간부족(56.3%)’을 여가활동의 가장 큰 장애로 응답했다.

최근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습지도 서비스’의 참여경험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캠프 등 수련활동(44.9%)’, ‘견학·문화체험(36.0%)’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서비스’,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의 참여비율은 모두 10% 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캠프 등의 수련활동(86.6%)과 견학·문화체험(86%)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학습지도(80%),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78.3%), 상담서비스(74.7%),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69.7%), 성격과 관계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69%)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 및 심리치료 서비스와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 등의 복지서비스를 받아본 경험은 10% 미만에 불과해, 빈곤 아동·청소년의 심리·정서적 문제나 생활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사회서비스 확대 및 참여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를 제공받은 빈곤 아동·청소년은 24.7%에 불과했고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다음에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25% 가까이 나타나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이나 지원형태에 대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급격한 경제적 상황의 악화와 그로 인한 변화는 일상적인 생활방식을 붕괴시키고 가족의 욕구와 자원 사이에 고통스러운 불일치를 발생시켜 만성적인 빈곤보다 훨씬 크게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으며, 개인의 정신건강과 가족관계, 아동·청소년의 발달 등의 개인과 가족의 삶에 다양하고도 광범위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2008년 경제위기에 따라 만성적 또는 급격한 경제적 상실의 부정적 경험을 한 아동·청소년은 이후 평생의 복리수준에서 부정적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다. 본 조사결

과를 통해서도 이번 경제위기가 아동·청소년의 심리적 변화, 생활상의 변화, 가족관계의 변화 등을 광범위하게 초래하고 있지만 그 변화의 부정적 영향은 빈곤 아동·청소년에게서 훨씬 더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정에서는 부모의 양육태도에 있어 적절한 지도감독을 받거나 원만한 상호작용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학교에서도 교사와의 관계나 학교생활 만족도에 있어 사회적 지지와 관심과 같은 보호요인이 약하게 나타나며 긍정적 경험을 갖지 못하는 경향이 있었다. 지역사회 응집력에 있어서도 빈곤 아동·청소년은 중간층에 비해 지역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으며 비행경험에 있어서도 빈곤 아동·청소년의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 빈곤 아동·청소년은 학교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느끼는 정도와 2008년 2학기 이후 7일 이상 결석률이 중간층에 비해 높았고 경제적인 이유로 대학 진학을 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높았다. 무엇보다 경제위기에 따른 학원이나 과외교습 중단비율도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높게 나타나 향후 경제활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교육기회의 계층 간 불평등의 가능성과 이에 따른 빈곤의 대물림 현상으로 연결될 우려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여가활동에 비용문제가 가장 큰 장애가 되고 있어 빈곤이 문화적 자본 형성에 불평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결과적으로 심화되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빈곤아동·청소년을 적시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 지원프로그램의 확대가 절실하게 요구된다. 지속되는 경제위기로 빈곤 아동·청소년이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다양한 보호요인을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적 지지와 서비스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IV. 경제위기 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

1.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
2.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3.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4.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원
5. 아동·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

IV. 경제위기 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¹³⁾

경제위기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를 모색하는 일은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이다. 이를 위해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 이들에게 필요한 서비스, 전달체계, 소요 재원을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청소년을 위한 역량강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1.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

경제위기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을 파악하고 과제를 모색하고자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는 일이다.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법적인 범위는 “아동·청소년이 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동시에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가 될 것이다. 이 정의에 따르면 비록 “아동·청소년이 사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부양의무자가 있으면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결정되기에 실제 소득액이 낮더라도 재산(특히 승용차, 금융재산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기 때문에 빈곤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된다. 따라서 가구의 주된 소득자가 사망, 실업, 질병 등으로 소득이 중단되더라도 승용차가 있거나 은행통장에 현금이 있을 경우에는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렵다.

특히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본적으로 가구를 단위로 하여

13) 이 절은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가 집필하였다.

빈곤자에 대한 정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가출한 아동·청소년, 부모나 보호자의 학대·방임 등으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한 아동·청소년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범위에 포함되기 어려워 복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쉽다.

이 때문에 보건복지가족부는 도움이 필요한 아동을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부적당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아동복지법 제2조 제2항)이란 개인 단위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에 해당되는 아동을 약 18,000여명이다.

그러나 도움이 필요한 아동의 대부분은 이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경제위기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대상”이 되기는 실질적으로 어렵다. 이들은 경제위기하에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주로 정부의 시설보호 체계 속에 있기에 사회적으로 주목해야 할 대상에서 조금 벗어나 있다.

경제위기하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새롭게 주목해야 할 대상은 기존 아동·청소년복지의 범주 주변에 있는 사람이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이들을 ‘위기 청소년’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위기상황을 초래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유해환경에 놓여 있어 위기 경험의 잠재적 가능성을 지닌 청소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8년 현재 자립지원 필요 청소년을, 복지시설에서 살거나 가정위탁 된 아동·청소년 34,626명, 18세 미만 기초 생활수급자 366,813명,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 14,308명, 학업중단 청소년 46,898명 등 462,150명으로 계산하고, 자립 당면 청소년은 시설퇴소 아동·청소년 등 4,646명, 가출·비행 학업중단 청소년 35,432 등 63,396명으로 계산하고 있다. 따라서 보건복지가족부가 파악한 자립지원 필요와 당면 위기 아동·청소년의 규모는 525,546명이지만, 그중에는 가족의 빈곤 등으로 인한 경우와 당사자의 학업중단, 가출·비행 등의 경우가 혼재되어 있다. 이러한 분류는 위기의 형태가 빈곤, 요보호, 학업중단, 시설퇴소, 가출·비행 학업중단과 같이 범주

화될 수 있지만, 일부 위기형태는 포함되지 않았고, 또 위기 수준도 파악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 범주 이외에도 북한이탈 아동·청소년,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가정에서 학대받는 아동·청소년, 가출하였지만 청소년쉼터를 이용하지 않는 가출경험 아동·청소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빈곤한 상태에 있는 아동·청소년 등은 위기 아동·청소년의 범주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표 IV-1-1〉 자립지원 필요 및 당면 위기 아동·청소년의 규모

위기형태	내 용	인 원	총 계
빈곤	18세미만 기초 생활수급자	366,813명	462,150명 (자립 필요 청소년)
요보호	시설·가정위탁 아동·청소년	34,626명	
학업중단	청소년쉼터를 이용하는 가출청소년	14,308명	
	학업중단 청소년	46,898명	
시설퇴소	양육시설 퇴소아동·청소년	813명	63,396명 (자립 당면 청소년)
	가정위탁 종결	3,833명	
가출·비행 학업중단	17세이상 쉼터 이용 청소년	7,502명	
	고교 학업중단 청소년	27,930명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취약계층 청소년 자립지원 대책(안)

한편, 보건복지가족부는 위기 단계를 위기전조, 위기표식, 문제행동, 위기결과로 분류하고, 그 규모를 위기전조 109만 4천명, 위기 표식 90만명, 문제행동 32만명, 위기결과 16만 6천명으로 계산하여 전체 위기청소년은 연인원 248만명으로 파악하였다.

〈표 IV-1-2〉 위기 단계 및 유형별 위기 청소년의 규모

위기단계	위기유형	유형별 규모	추정규모
위기결과	학업중단	2만 4천명	16만 6천명
	가출	10만명(16,894건)	
	범죄	10만 4천명	
	자살	8천명	

위기단계	위기유형	유형별 규모	추정규모
문제행동	자살시도	12만명	32만명
	폭력가해	19만 3천명	
	성매매	7천명	
위기표식	학대피해	3,891명	90만명
	성범죄피해	5,862명	
	폭력피해	15만명	
	범죄피해	3만 4천명	
	학업부진	48만 7천명	
	실업	22만명	
위기전조	빈곤	93만명	109만 4천명
	소년소녀가장	5,444명	
	이혼자녀	150,010명	
	요보호	9,393명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2008). 위기청소년 자립지원방안 연구

보건복지가족부가 파악한 ‘위기청소년 연인원’ 248만명은 사회 통념상에 비춰볼 때 상당히 큰 수치이고, ‘자립지원 필요와 당면 위기 아동·청소년’ 525,546명은 그중 366,813명이 “18세 미만 기초생활 수급자”라는 점에서 볼 때,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계산된 듯하다.

2009년 현재 보건복지가족부가 공식적으로 지정한 서비스 지원대상은 학업중단, 가출, 빈곤 등 위기 아동·청소년의 50%인 273,000명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9세 이상 18세 이하 위기 아동·청소년수를 933,603명으로 보고, 그중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리하는 돌봄위기 학생 387,355명을 뺀 546,248명 중에서 50%인 273,000명을 정책 대상으로 본다. 교육과학기술부의 돌봄서비스를 받는 학생들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을 적용받기에 복지부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지만, 복지부 아동·청소년정책과는 그 수를 뺀 아동·청소년 중에서 50%를 우선적인 지원 대상으로 삼고 있는 셈이다.

〈표 IV-1-3〉 학업중단, 가출, 빈곤 등 위기 아동·청소년 현황(9~18세)

아동·청소년 수(A)		위기 아동·청소년 수(B)			교과부 돌봄 위기학생 (C)	우리부 정책대상 (D=B-C)	서비스 지원대상 (E=D*50%)
만9-12세	만13-18세	만9-12 (8.4%)	만13-18 (17%)	소계			
2,619,196	4,197,599	220,012	713,591	933,603	387,355	546,248	273,000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2009). 빈곤(위기·취약)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및 계획보고.

본 연구진이 굳이 “경제위기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모색하려는 이유는 경제위기 상태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이 기존에 파악된 ‘기초생활수급자’보다 늘어나지만, 빈곤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의 복지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본 연구진은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주에 기존 수급자를 포함할 뿐만 아니라,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면서도 부양의무자에게 부양능력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자로 책정되지 않아 사실상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으로 소득인정액은 최저생계비보다 높지만 실제 소득평가액은 최저생계비보다 낮은 가구, 그리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보다 높지만 사회통념상 빈곤한 계층(예, 차상위계층)의 아동·청소년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이들은 부모나 보호자의 갑작스런 사망, 실직, 폐업, 이혼 등으로 돌지에 빈곤 아동·청소년이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또한 사실상 부모의 보호를 적절히 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벗어난 학대받는 아동, 가출청소년 등은 부모의 소득인정액과 별개로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생활보호대상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소득과 재산을 가진 국민도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책정하여 보호를 했던 경험에 비추어서 “경제위기하의 빈곤 아동·청소년의 범위”는 부모(보호자)의 소득인정액과 함께 아동·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위기에 처한 상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2.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매우 다양하며, 우선적으로 생계, 의료, 교육, 주거 욕구 등을 위한 서비스를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빈곤 아동·청소년의 욕구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의한 급여로 일부 충족될 수 있지만, 다른 일부는 충족되기 어려울 수 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각종 급여는 주로 가구단위로 지급되고, 아동·청소년 개인단위로 지급되는 것은 많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복지정책을 개발하고자 할 때,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정책으로 대응할 수 있는 욕구와 그렇지 못한 욕구를 구분하여 서비스를 개발해야 한다. 특히 아동·청소년은 교육과 관련된 욕구가 많은데, 기초생활보장제도상 교육급여는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업료, 고등학교 교과서대, 중학교 부교재비, 중고등학교 학용품비의 명목에 한정되어 있기에 좀 더 포괄적인 교육적 서비스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서비스는 몇 가지 수준에서 논의할 수 있다. 빈곤 아동·청소년이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 범위에 들어가면 그들의 기본 욕구는 충족될 수 있는 것이다. 부모의 실직과 폐업 등으로 아동·청소년이 빈곤상태가 되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책정만 되면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을 받을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 책정을 보다 신속하게 하면, 이 빈곤 아동·청소년은 수급자와 똑같은 급여를 받아서 생계급여 등 긴급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

그러나 빈곤 아동·청소년이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장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보장제도 중 교육급여는 빈곤 아동·청소년이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할 때 제공되는 것으로, 중·고등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다니지 않을 경우에는 일체 교육급여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어, 초·중·고등학교를 중단한 후 검정고시 준비를 위하여 학원에 다니거나, 대안학교에 다니는 아동·청소년은 교육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최근 연구를 보면,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각종 급여가 욕구를 충족시키기에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모상현 연구팀의 조사(2009)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초·중학생은 최근 경제위기로 “나는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한다”는 사람이 전체의 10.9%이고,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줄이거나 중단하게 되었다”는 사람이 전체의 21.3%이었다(모상현, 2009: 65). 빈곤 아동·청소년에게 필요한 것은 중·고등학교의 입학금과 수업료뿐만 아니라, 학원비나 과외교습비이고, 교과서와 부교재뿐만 아니라 각종 수업준비물과 학용품인데 이에 대한 지원은 충분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아동·청소년 중에서도 나이가 어린 아동은 방과후 학습지도와 생활지도 등이 절실한데, 이들에 대한 지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급여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기존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주로 가난한 시민에게 생계급여 등 현금급여를 주고, 의료급여 등 현물급여를 주는데 역점을 두었기에 아동·청소년의 보호와 교육 등 개별화된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기존 복지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하여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시범 사업단계에 머물러 있다. 2008년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조화롭게 성장하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초적인 여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사회적·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청소년 지원”을 목적으로 이 사업을 시범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주된 지원 대상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에서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이다. 대상자는 만 9~18세 이하로,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50%미만(단, 생활 및 건강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으로 생활지원, 건강지원, 학업지원, 자립지원, 상담지원, 법률지원, 활동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표 IV-2-1〉 특별지원 청소년의 지원내용과 종류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기간
생활지원	월 39만원 이내	매월 1회 1년
건강지원	연 200만원 이내	1회 지원 1년
학업지원	월 20만원 이내(수업료, 검정고시)	매월 1회 1년
자립지원	월 36만원 이내	매월 1회 1년
상담지원	월 20만원 이내	매월 1회 1년
법률지원	연 350만원 이내	1회 지원
활동지원	월 10만원 이내	매월 1회 1년

2008년 8월부터 연말까지 8개 광역시·도(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의 68개 시·군·구에서 시범 시행된, ‘특별지원대상 청소년의 지원내용’은 1,376건에 382백만원이었다.

〈표 IV-2-2〉 특별지원 청소년의 지원내용 건수와 금액

(단위 : 천원)

구분	건수	금액
생활지원	536	283,730
건강지원	536	19,697
학업지원	21	31,205
자립지원	148	9,548
상담지원	30	22,096
법률지원	-	-
활동지원	78	10,839
그 밖의 지원	27	4,800
계	1,376	381,915

정부는 사업 지역을 2009년 8개 시도에서 2010년 16개 시도로 확대하고, 소요 예산도 2009년 8억원에서 2010년 19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현재 이 사업은 시범사업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빈곤 아동·청소년이 직면한 욕구가 생계, 의료, 학업에 한정되어 있지 않고, 상담지원, 활동지원 더 나아가

법률지원까지로 확장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때, 현재는 청소년이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한 자로 규정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청소년복지지원법시행령 제7조)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특별지원 청소년의 상당수가 가출 등 위기상황에 있고, 이들은 가구와 별도로 사는 경우가 많아서 부모나 보호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은 무관하기에 아동·청소년이 행정상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과 무관하게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3.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편적 전달체계의 구축

경제위기하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점검할 때, 가장 큰 문제점은 한국의 아동·청소년복지 전달체계는 전체 아동·청소년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전달체계가 매우 미흡하고, 도움이 필요한 자를 위한 아동복지시설에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발생되면 해당 시·군·구가 중심이 되어서 아동·청소년을 돌보는 보편적 서비스 전달체계는 매우 미흡하고, 기존의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이 시·군·구를 대신하여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시·군·구는 아동복지시설의 운영비를 일부 지원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09년 현재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으로 가출청소년 지원, 청소년자립지원, 아동·청소년 복지지원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서비스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청소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쉼터(가출청소년), 청소년(상담)지원센터, 개인이 신고하여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시·군·구가 직접 운영하는 기관은 거의 없다.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현재 시범 사업단계에 있는 각종 아동·청소년복지기관을 모든 시·군·구에 설치하고,

시범 사업을 평가하여 보편적 사업으로 제도화시켜야 할 것이다.

<표 IV-3-1> 보건복지가족부의 아동·청소년 지원 현황

분 야	추진사업	담당과	비 고
가출청소년 지원	- 위기청소년지원체계(CYS-Net) 운영 '09년) 80개 시·군·구 - 청소년동반자 운영 '09년) 470명 - 청소년쉼터 운영 '09년) 82개소	아동청소년 상담 자활과	교육인적자 원부·경찰 청·지자체 등
청소년자립 지원(시설퇴 소, 가출 및 학업중단 등)	- 위기청소년 자립 지원 위기청소년 자립준비 아카데미 두드림존 (Do Dream Zone) 운영	아동청소년 상담 자활과	민간단체· 기업 등
	- 시설퇴소아동 자립 지원 주거지원→국토해양부 학자금지원확대→교육과학부 직업훈련및취업지원→노동부 - 요보호아동 자립자금마련 지원 아동발달지원계좌('08.12현재) 34,263명 통장발급, 301억원 적립(아동 161, 정부 140)	아동청소년 복지과	국토해양부· 교육과학기 술 부·노동부 등 연계추진
아동·청소년 복지지원	- 아동복지생활시설 지원 노후시설 증개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비 등 기능 보강비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과	
	- 드림스타트 사업 '08) 32개소 →'09년) 75개소 확대	아동청소년 복지과	
	- 조손가정 등 지원 차상위 130%이내 아동양육비 월5만원, 고교생학비 등	가족 지원과	
	-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 '09년) 8개시·도 →'10년 이후) 16개시·도 생활·건강·학업·자립·상담·법률·활동 등 지원	아동청소년 복지과	
	- 저소득층 의료 지원 차상위계층(18세미만 아동 등) 정부가 의 료비 지원	기초의료 보장과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지원 1인당 최대 15만원까지 진료비 지원	정신건강 정책과	협력의료기관 ,정신보건터
	- 지역아동센터 개소당 월평균 220만원정도 지원	아동청소년 역량개발과	

2) 아동·청소년복지를 위한 핵심 기관의 증설

빈곤 아동·청소년 중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만 전국적으로 통일된 급여(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등)를 받고, 차상위계층과 차상위 계층은 거의 사각지대에 있다.

2009년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전달체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부모나 보호자의 보호를 적절히 받지 못하는 아동·청소년은 주거지 근처에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청소년쉼터 등 복지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서비스를 거의 받을 수 없다는 점이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청소년복지 서비스 체계를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확충하고 있기에 일부 농산어촌지역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청소년쉼터,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이 없어서 서비스를 적절히 받을 수 없다.

2008년 말 현재 전국의 빈곤 아동·청소년이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지역아동센터이다. 신고 된 지역아동센터는 3,013개소이고 이용 아동·청소년은 87,000여명이다. 아동·청소년이 주로 방과 후에 학습지도를 받고, 생활지도를 받으며, 간식·급식을 할 수 있다. 정부는 각 지역아동센터에 매월 평균 219만원을 지원하고, 아동복지교사를 파견하지만, 많은 아동들은 대기 상태에 있다. 한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에 따르면, 2009년 1~2월 경제위기 이후 각 지역아동센터마다 아동이 37% 가량 급증하여 각 센터 당 대기 인원이 5.5명이라고 한다(한겨레, 2009. 3. 17).

경제위기로 공부방 수요 37% 급증 1~2월 한곳 당 대기인원 5.5명, 올해 실제예산은 되레 줄어

경제위기가 심화하면서 지난 1~2월 지역아동센터에 새로 들어온 빈곤 가정 아이들은 한 곳당 5.2명, 정원 초과로 대기중인 아이들은 한 곳당 5.5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센터 한 곳이 돌보던 평균 인원(29명)의 37%나 되는 10.7명의 빈곤 아이들이 새로 센터 문을 두드린 셈이다.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는 16일 오후 서울역 광장에서 센터 교사와 부모 등 8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추경 예산 요구 전국대회’를 열어, 월 운영비를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465만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것을 촉구했다.

‘공부방’이라 불리는 지역아동센터는 지난해 12월 말 3013곳으로 8만7천여명의 빈곤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가족부 정책 연구 보고서는 급식비를 빼고도 한 곳당 600만원의 월 운영비가 필요하다고 추산했으나, 올해의 실제 예산은 지난해 220만원보다 오히려 줄어든 219만원 정도만 책정된 상태다.

복지부는 하반기 6개월 동안 월 운영비를 465만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추경에서 302억원을 편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는 한 곳당 300만원 수준, 81억원을 편성하자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최근 지역아동정보센터의 설문조사를 보면, 지난 1~2월 새로 들어온 아이들만 5748명(1110곳), 대기중인 아이들은 4378명(800곳)에 이른다. 이는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5일까지 전국 지역아동센터 3013곳에 전자우편 설문을 돌린 뒤, 회신을 해온 1275곳의 응답 자료를 분석한 것이다. 회신하지 않은 1738곳을 고려하면 빈곤 아이들 신규 수요는 3만명을 웃돌 수 있어, 예산의 대폭 확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역별로 신규 입소 아동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전남(6.5명), 서울(6.1명), 경기(5.7명), 제주(5.6명)였다. 또 대기 아동수가 가장 많은 곳은 제주(8.3명), 경기(7.1명), 전북(6.8명), 서울(6.7명)이었다. 신규 입소 사유로는, 부모의 실직(23.2%), 가족해체(24%), 자영업자 수입감소(18%), 비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수입감소(13.3%), 근무시간 단축·공장가동 중단으로 수입감소(11.9%), 부모의 부도·파산(9.6%)이 차례로 꼽혔다.

국회 복지위 소속 강명순 한나라당 의원은 “정원을 초과해 아이들을 받거나 대기자로 올려놓고도 막상 찾아오는 아이들을 물리치지 못하는 사례가 부지기수”라며 “추경에서 추가로 302억원을 늘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세라 기자 seraj@hani.co.kr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이 100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이 8.7만명에 불과한 것은 그 수가 너무 적고, 정부 출연 연구기관이 지역아동센터 당 적정 운영비로 월 600만원을 추정한 상황에서 운영비 219만원을 지원하는 것은 지나치게 낮은 액수이다. 따라서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일차적 안전망으로 지역아동센터를 증설할 것을 제안한다. 현재 민간단체와 뜻있는 사회복지사가 지역아동센터를 설치하고 싶어도 반경 800미터 이내에 기존 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새로운 센터의 신고를 받아주지 않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지침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반경 800미터라는 지리적 기준보다는 이용아동에 중복됨이 없다면 좀 더 유연성 있게 신고를 받아주는 방식으로 바꾸고, 좀 더 많은 아동·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센터의 접근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빈곤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주로 대도시와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구축된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모든 시·군·구에 설치해야 한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는 모든 시·도에 설치되어 있지만, 청소년지원센터가 일부 시·군·구에만 설치된 것은 청소년지원센터의 설치를 임의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지원 청소년에 대한 체계적인 서비스를 위해서는 모든 시·군·구에 청소년지원센터가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만 9~18세 위기 아동·청소년 수는 933,603명이 고, 그중 교육과학기술부의 돌봄위기 학생인 387,355명을 뺀 546,248명 중에서 1/2를 서비스 지원대상(273,000명)으로 볼 때, 위기청소년 지원체계(CYS-Net)의 지원을 받는 80,000여명은 턱 없이 부족한 상황이다(보건복지가족부, 2009).

2009년 현재 80개 시·군·구에서 위기청소년 지원체계(CYS-Net)를 운영하고(위기청소년 지원율 34.5%), 청소년동반자 470명이 활동하고 있지만 아직 육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복지부는 2013년까지 위기청소년 100% 지원을 목표로, 센터수를 늘리고 동반자수를 증원할 예정이다.

<표 IV-3-2> 청소년(상담)지원센터 연차별 확대계획

(단위 : 개소/명)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CYS-Net 사업	센터수	80	132	170	208	232
	지원인원	90,000	150,000	190,000	230,000	273,000
동반자(명)		470	714	955	1,196	1,437

자료 : 보건복지부(2009). 빈곤(위기·취약)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및 계획보고.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부모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가출청소년도 늘어날 것이다. 청소년가출은 미신고 된 장기 또는 상습 가출 등이 다수이지만, 가출인 신고를 한 것만 공식통계에 잡히기에 정확한 수치를 확보하기는 어렵다. 중고생 가출경험율(6.1%)을 고려할 때, 전국 가출규모 25만명으로 추정된다. 1998년 IMF 외환위기사 경찰에 신고된 미성년자 가출인이 1998년 15,316명에서 1999년 17,894명으로 16.8% 증가된 것을 기준으로 경기 악화시 17%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면 가출청소년은 29만명이 될 것이다.

현재 청소년쉼터는 68개소이고, 그 정원은 779명, 현원은 592명으로 가용실인원은 199명이 된다. 추가로 발생될 가출청소년을 4만명으로 가정하고, 그중 경찰청이 밝힌 가정복귀추정치 82.9%를 계산하면 33,160명이 가정으로 복귀하고, 기존 쉼터 내 추가 수용가능한 인원 2,388명(단기쉼터)을 공제한, 4,500여명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표 IV-3-3> 보호시설 현황 및 가용인원(일평균 실 인원)

구 분	개소	정원	현원	가용 실인원	추가수용인원
계	68	779	592	199	2,388명
단기쉼터	45	591	392	199	199×12개월=2,388명 (1인 평균 입소기간 :1개월로 계산)
중장기쉼터	23	188	200	0	

※ 현재 연간 쉼터보호 실인원 : 7,900명

자료 : 보건복지부(2009). 빈곤(위기·취약)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및 계획보고.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청소년쉼터는 2009년 82개소에서 2013년 107개소가 적정할 것이다.

<표 IV-3-4> 연차별 청소년쉼터 확대계획

(단위 : 개소/명)

구분		2009	2010	2011	2012	2013
청소년 쉼터	소계	82	88	94	101	107
	일시	10	12	14	17	20
	단기	47	48	49	50	51
	중장기	25	28	31	34	36

자료 : 보건복지부(2009). 빈곤(위기·취약)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및 계획보고.

한편 빈곤 아동·청소년이 학교에 다닐 경우에는 학업지원, 급식제공, 생활지도 등을 원만히 수행할 수 있지만, 학교에서 벗어날 경우에는 체계적인 서비스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을 확대하고(현재 100곳, 500여개 학교에서 시행), 시범사업으로 수행되는 학생지원센터를 전국의 지역교육청으로 확대하여 위기 아동·청소년이 최대한 학교교육 체계에서 보호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기 학생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돕기 위해서 교육당국은 일부 지역교육청에 앞에서 언급한 학생지원센터를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위기 학생청소년은 일부 교육청 관내에 있는 학교에만 있지 않고, 전국에 산재되어 있으므로 가급적 모든 교육청에 학생지원센터를 증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위기 학생청소년은 학습부진, 결석 등 학교부적응 뿐만 아니라, 가출, 비행, 성문제 등을 통해서 사회문제에 개입되는 경우도 많기에 학교당국과 지역사회의 공공·민간기관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위기 학생을 최대한 학교가 보호·교육시켜야 하겠지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학생의 정보를 관련 기관에 통보하여 통합적 사례관리를 해야 할 것이다.

3) 아동·청소년 전문인력의 활용과 역량강화

경제위기로 인한 빈곤 아동·청소년뿐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지만, 이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전문인력이 적절히 확보되어 있지 않다.

현재 지역아동센터는 사회복지사가 시·군·구청에 신고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고, 사회복지사, 교사, 보육교사 등이 생활복지사와 아동복지교사로 활동할 수 있다. 청소년(상담)지원센터와 청소년쉼터에서는 사회복지사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가 주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즉 아동·청소년복지 분야에서 일하는 전문가는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지도사, 보육교사, 교사 등이 있는데, 어떤 한 전문인력이 아동·청소년복지를 통괄하기에는 충분한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의 양성 교육과정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하여 성인·노인까지 전 인구층을 다루고, 보육교사는 주로 6세 이하의 영유아를 다루며, 청소년상담사와 청소년지도사는 주로 청소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는 2007년 이전까지 주로 아동과 청소년을 다루는 전문인력이 분절되어 있다가, 2008년 보건복지가족부에 아동청소년정책실이 신설되고 아동·청소년분야를 통합하여 다루면서 인력이 혼재된 것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에는 아동·청소년분야를 보다 포괄적으로 다루는 전문인력을 양성해야 하겠지만, 현재 분절된 인력을 보수교육 등을 통해서 부족한 전문성을 보충하게 하고, 아동과 청소년분야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이점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하여 사회복지사는 2009년부터 보수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규정을 아동·청소년분야에도 적극 적용해야 할 것이다.

4.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원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자원을 논의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총액, 핵심

사업, 그리고 조달방법이 될 것이다.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재원을 얼마나 확보하는 것이 적절한 지에 대해서는 이들을 위한 사업비의 범주를 어떻게 잡느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예산의 상당수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같이 다른 인구층을 위한 예산과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다만, 경제위기 상황 하에 가출청소년의 예상 증가율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략 17%에 이르고, 2009년 1월과 2월 사이에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길 희망하는 아동이 2008년 12월보다 37% 증가된 것으로 보아 기존 사업비를 20%~30% 가량 증액을 해야 사업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할 때, 누가 어떻게 분담하느냐는 중요한 관심사이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한 예산은 대략 중앙정부 80%, 시·도 10%, 시·군·구가 10%씩 분담하지만, 아동·청소년 관련 많은 사업비는 중앙정부 50%, 시·도 25%, 시·군·구 25%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구는 아동·청소년사업을 확대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점에서 드림스타트 사업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의 임산부와 0~12세 아동에게 보건·복지·교육 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2008년 7월 기준으로 서비스 대상자는 총 21,810명(아동 9,367명, 임산부 32명, 가족 12,411명)으로 한 개소 당 평균 300여명이다. 이 사업은 2008년 32개 시·군·구에 1개소씩 시범 설립되었고, 2009년에 75개소에서 운영중이며, 2012년에 207개소가 운영될 예정이다. 중앙정부(보건복지가족부)가 개소당 3억을 지원하고, 지자체에서는 전담공무원과 센터 공간확보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서울의 경우에는 2009년부터 2억원을 지원(지방비 1억 매칭)한다. 이 사업은 중앙정부가 사업비를 부담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인건비를 부담하는 방식이기에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선호하는 형태이다.

〈표 IV-4-1〉 드림스타트 사업지역과 예산

연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사업 지역	32개 지역	75개 지역	110개 지역	160개 지역	207개 지역
예산	98억원	223억원	330억원	480억원	621억원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은 기초생활보장사업처럼 중앙정부가 80%를 부담하거나, 드림스타트 사업처럼 사업비를 전적으로 중앙정부가 부담할 때 전국적으로 확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아동은 선거권이 없는 인구층이기에 지방자치단체장과 의회위원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 소요 예산의 1/2를 지방정부가 분담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빈곤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과 함께 그 소요예산을 중앙정부가 책임성 있게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 아동·청소년 역량강화를 위한 보편적 복지

경제위기하 빈곤 아동·청소년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논의하면서, 도움이 필요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정책과 함께 전체 일반아동·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세계 사회복지 역사를 보면, 미국은 1929년 대공황을 극복하기 위하여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였고, 영국은 1942년 제 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베버리지 보고서를 통해서 복지국가의 청사진을 제시한 바 있다. 이제 한국도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이 땅의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보편적 아동·청소년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고 이를 구현해야 한다.

첫째, 아동수당 등 보편적 수당을 도입한다. 정부는 보육시설 미이용 영유아(0~5세)에게 ‘아동양육수당’을 월 10만원씩 주고, 저소득 한 부모 가족 아동(10세 미만)에게 ‘아동양육비’를 월 5만원씩 지급한다. 또한 입양 아동에게는 월 10만원씩 ‘양육수당’을 지급하고, 저소득 장애아동 부양자에게도 월 10만원~20만원의 ‘장애아동부양수당’을 지급한다. 현재는 도시근로자가구 평

균 소득 130%이하 가구의 영유아, 저소득 한 부모 가족의 아동, 입양아동, 저소득 장애아동에게만 아동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 대상을 저소득 아동에서 전체 아동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서 초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동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경제개발협력기구의 회원나라에서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한다. 현재 정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만 교육급여를 시행하고 있다. 교육급여는 주로 고등학생의 입학금과 수업료이고, 교과서대(고등학생), 부교재비(중학생), 학용품비(중고등학생)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한국은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중학교 의무교육은 1985년 도서·벽지에서 시작하여 1994년 읍·면 지역까지 확대되고 2001년부터는 시·광역시·특별시까지 확대되어 2003년에 완료되었다. 경제개발협력기구의 나라는 대부분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스웨덴 등 일부 나라는 대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비교할 때 한국의 의무교육 수준은 낮은 단계이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인적 자본의 중요성은 커지고, 지식정보화사회에서 교육은 가장 효과적인 투자이므로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2008년부터 기초생활수급자인 대학생에게 학기당 200만원의 ‘미래로 장학금’을 지급한 정책은 빈곤의 악순환을 교육을 통해서 근절하기 위한 것인데, 저소득층을 포함하여 전체 고등학생에게 무상교육을 체계적으로 도입하면 좀 더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고등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은 입학금과 수업료뿐만 아니라,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교급식비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정부는 중학교까지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면서도 ‘학교운영지원비’를 사실상 학부모에게 부담시키고 있다. 형식은 학교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따라서 표준화된 학교운영지원비를 각출하는 것은 무상교육에 반하는 일이다. 따라서 학교운영지원비를 폐지하고, 학교급식을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의미의 무상의무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셋째, 아동·청소년에게 보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기초생활 수급자에게 의료급여를 실시하고 있다. 의료급여는 크게 1종과 2종으로 나뉘는데, 1종은 수급자 중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세대(국가유공자, 북한이탈자, 의사상자와 유족, 5.18관련자 등 포함)이고, 2종은 수급자중 1종에 속하지 않는 세대이다. 1종은 1인당 매월 6천원의 건강생활유지비를 받는 대신에 외래 진료시 1,500원을 부담하고, 입원은 무료이다. 2종은 건강생활유지비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외래 진료시 1,500원을 부담하고, 입원시에는 진료비의 20%를 부담한다. 의료급여 1종인 18세 미만 아동은 외래시에 본인부담금이 없지만, 의료급여 1종은 전체 아동·청소년의 2% 내외이고, 2종 의료급여를 포함해도 의료급여 대상자는 전체 아동·청소년의 5% 미만이므로 나머지 95%이상은 건강보험의 급여를 받는다. 정부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는 6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액을 전액 면제하고, 2007년 8월 1일부터 외래진료비도 성인 본인부담율의 70% 수준으로 대폭 경감하였다. 이로 인하여 아동의 의료접근이 향상되었지만, 프랑스, 일본, 대만 등은 아동 의료비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여 의료의 보편적 접근을 이룬 것에 비춰볼 때 아직 낮은 수준이다. 아동기는 신체적, 정신적 발육, 질병에 대한 저항력 등을 형성하는 기초단계로서 평생의 건강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시기이다. 아동에 대한 건강투자를 확대하여 아동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미래 국민의 건강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최저 주거기준을 만들고 모든 아동에게 공부방을 제공한다. 경제수준 향상과 함께 아동·청소년의 삶의 질도 크게 향상되었지만, 도시 지역의 경우 주택가격의 상승으로 저소득층의 주거수준은 낮은 단계이다. 2007년 주택보급율은 108%로 주택문제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수도권은 주택보급율은 90%대로 여전히 부족하다. 더구나 일반가구에서 비혈연가구와 1인가구를 제외한 보통가구수로 주택수를 나누는 주택보급율에 계산되지 않는 가구수가 점차 늘어나기에 수도권에 사는 저소득층은 자가주택 비율이 낮고, 건평과 침실 그리고 편의시설에서 수준이 낮다. 저소득 아동·청소년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최저 생계를 유지하고 교육과 의료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수준이고, 주거대책은 우선순위에서 매우 낮은 단계이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은 공부방조차 확보되지 않는 열악한 주거조건에서 다른 아동과 동등한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정부는 저소득층도 최저기준을 갖춘 주택에서 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고,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의 지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민간 건설업체는 주로 중대형평수의 분양주택을 건설하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형평수의 임대주택에 역점을 두고, 도심의 교통이 편리한 곳에 원룸형과 기숙사형 주택도 많이 건립하여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켜야 할 것이다.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2. 정책제언

V. 요약 및 제언

1. 요약

이 연구는 2008년 하반기 이후 경제위기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이 처해 있는 위기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기초생활실태와 심리·정서적 변화, 경제위기로 인한 생활상의 변화, 그리고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사회체계 실태와 교육·문화·사회복지서비스의 이용실태와 만족도에 대해 조사함으로써, 경제위기에 처한 빈곤 아동·청소년의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으며, 주요 연구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기초생활실태

기초생활에 관련된 아동·청소년의 건강실태 및 심리·생활상·가족관계 및 기타 변화양상에 대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건강관련 항목에서 아토피·습진·부스럼 같은 피부질환을 앓은 경험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빈곤층에 속하는 아동의 응답비율(3.0%)이 경제수준이 보통인 아동(0.7%)의 응답비율보다 4배 이상 높았으며, 만성질환의 발병비율도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7.4%로 중간집단의 3.6%보다 2배 이상 높은 비율을 보였다. 한번이라도 특정 질병을 앓은 경험이 있거나 사고 등으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부상임에도 치료를 받지 않은 이유를 묻는 항목에서 ‘치료비가 없어서’라고 응답한 빈곤층 아동·청소년 비율이 17%에 달해 경제수준이 중간인 집단(1.8%)에 비해 무려 9배 이상 높았다.

심리적 변화와 관련된 항목 중 외로움·걱정·자신감 감소·자살 관련문항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각각 24.7%, 53%, 27.4%, 25.9%)이 중간층(각각 14.9%, 36.3%, 16.6%, 13.2%)에 비해 약 2배 정도 부정적으로 답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경제적인 이유로 인한 차별경험 및 가출충동 문항에서도 빈곤 아동·청

소년 집단(각각 18.8%, 21.8%)이 중간층(각각 8.4%, 9.9%)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응답비율을 나타냈다.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및 주관적 차별과 무시에 대한 반응 및 가출에 대한 충동이 빈곤층 집단에서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아동·청소년들이 경험한 생활상의 변화에 대한 조사결과에서 경제변인(빈곤 vs.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이 대부분 생활상 변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경제위기 이후 필요물품 구입중단 여부·학원(과외)교습 중단여부·여가활동중단(감소)여부·용돈 관련 문항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각각 11%, 22.3%, 21.7%, 27.2%) 중간층(각각 4.9%, 11.6%, 12%, 14.5%)에 비해 대략 2배 정도 부정적인 방향(감소·중단)으로 답변하였다. 치료 상황에서 병원치료 가능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5.5%가 부정적 방향으로 답변한 반면, 중간층 아동·청소년은 2.3%만이 동일 응답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사에 따른 생활의 불편함·공공기관이나 지인으로부터 도움 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빈곤층(각각 9.9%, 20.9%)이 중간층(각각 2.7%, 7%)에 비해 3배 정도 높은 비율로 응답해 거주환경의 악화와 소득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빈곤층에서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에 따른 가족관계의 변화 양상에서 수입 감소로 인한 부모님 사이의 관계 악화여부·부모 자녀 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여부·경제상황 악화로 인한 부모의 고통정도와 관련된 문항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각각 22%, 14.4%, 68.8%로 답변해 중간층의 응답비율 4.8%, 5.2%, 34.1%에 비해 현저히 높은 부정적 경향을 보였다. 경제위기가 가정폭력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의 11.4%가 그렇다고 답변해 중간층의 2.3%에 비해 가정폭력의 경험 정도가 빈곤층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위기 관련 기타 변화 양상으로 생활비 혹은 용돈 마련을 위한 아르바이트시작여부·경제적인 문제로 인한 가족 구성원의 이별여부·경제위기 이후 부모님의 실직여부를 묻는 질문에서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각각 6%, 8.9%,

11.4% 비율로 답변을 해 중간층의 2.7%, 3.6%, 3.4%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빈곤층으로 갈수록 경제적 사정이 악화로 인한 가족해체가 증가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경제위기 이후 나타난 정서적 건강 변화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에서 자신의 존재가치 수용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는 자아존중감과 심리적 부적응 정도를 나타내는 우울 척도에서 빈곤(각각 $M=28.09$, $M=29.90$)과 중간층(각각 $M=29.73$, $M=26.08$) 아동·청소년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빈곤층 집단은 자신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며 보다 비관적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으로 인해 사회·심리적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사회지원체계에 대한 항목은 가족 내 갈등과 폭력 및 학교·교사·지역사회에 대한 경험양상 그리고 비행행위에 대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경제위기가 시작 된 이후 가족 내 갈등 및 폭력실태에 대한 조사에서 신체적 체벌 경험 여부·부모로부터 모욕감과 수치심 경험여부· 부모로부터 모멸감을 자극받는 언행 경험여부·부모 간 서로 모욕적인 언행 행사를 했는지 여부 등을 묻는 질문에 대해 빈곤층은 각각 26.7%, 26.7%, 25.8%, 31.7%가 그렇다고 응답한 반면, 중간층의 경우 15.2%, 17.6%, 17%, 16.8% 나타나 빈곤 아동·청소년들이 보다 높은 비율로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는지’ 같은 부모의 방치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해 6개월 간 한번 이상 방치를 경험했다는 비율이 빈곤층 아동·청소년(10.4%)이 중간층(5.2%)보다 2배 이상 높은 빈도를 보였다

학교·교사관련 긍정적, 부정적 경험과 관련하여 ‘자신을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는지’와 학교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정도에 대해 경제수준 변인에 의한 집단 간 차이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두 문항

에서 경제 빈곤층 아동·청소년들이 중간층 아동·청소년에 비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려는 경향을 보였다.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안전성과 지역민들의 협력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수준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확인되었다. 두 문항에 대한 빈곤 아동·청소년의 부정적 응답(그렇지 않다) 비율은 각각 70.2%, 72.2%였으며 반면에 중간층 집단의 동일 응답 비율은 각각 61.1%, 58.2%를 나타나 빈곤층 아동·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대해 보다 부정적인 인식을 보였다.

용돈 마련 방법에 대한 질문 중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아 본적이 없다고 답한 비율이 빈곤 집단은 13.4%로 중간층 집단(5.6%)에 비해 그 수치가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비행행동을 통해 용돈을 조달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도 빈곤층 아동·청소년의 경우 강탈(7.5%), 성매매나 원조교제(4%)를 통해서 조달한 적이 있다고 답해 중간층 집단의 3%, 2.4%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흡연·절도·강탈경험 같은 일탈·비행행동 경험 유무를 묻는 질문에서 경제수준에 따른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검증되었다. 빈곤층 집단의 경우 각 비행행동을 한, 두 번 이상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1.9%, 16.9%, 12.3%였으며, 경제 중간층 아동·청소년 집단은 7.3%, 8.6%, 4.6%로 두 집단 간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3) 경제위기와 아동·청소년의 교육·문화·사회복지서비스

조사대상 아동·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에 대해 조사한 결과, 빈곤층인 경우, 특히 부모의 결혼상태가 결혼이나 재혼이 아닌 ‘기타’인 아동과 청소년의 학교생활 적응이 어렵다는 응답이 2배 이상 높았으며, 2008년 하반기에 1번 이상 결석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빈곤층 청소년의 결석빈도(24.6%)가 중간층(17.9%)인 경우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진학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빈곤층인 경우, 그리고 부모의 학력도 모두 고졸이하인 경우에 부정적인 응답 비율이 더 높았고, 그 이유로는 ‘성적이 안 좋아서(80.3%)’, ‘경제적인 이유로(9.4%)’,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5.6%)’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아동과 청소년의 최근 여가활동으로는 ‘TV시청’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였고, 희망하는 여가활동으로는 ‘여행’이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여가활동에 장애가 되는 것으로는 빈곤층 아동·청소년은 ‘비용(44.8%)’이라고 응답한 반면, 중간층의 경우에는 ‘시간부족(56.3%)’을 여가활동의 가장 큰 장애로 응답했다.

상담, 문화, 복지관련 서비스 참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학습지도 서비스’의 참여경험이 50.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캠프 등 수련활동(44.9%)’, ‘견학·문화체험(36.0%)’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담서비스’, ‘자원봉사자 방문서비스’등의 참여비율은 모두 10%미만으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서비스나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캠프 등의 수련활동(86.6%)과 견학·문화체험(86%)이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다음으로 학습지도(80%), 심리·언어·음악·놀이치료(78.3%)순으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지역사회 사회복지서비스(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의 이용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은 빈곤 아동·청소년은 2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서비스를 받은 경우에도 자존심이 상하거나 다음에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는 부정적 인식이 25% 가까이 나타나 복지서비스 전달방식이나 지원형태에 대한 새로운 접근방법의 필요성을 드러냈다.

2. 제언

1) 긴급위기에 빠진 빈곤아동·청소년사례의 발굴

최근 연구에 의하면 상담, 자원봉사자 방문,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견학·방문 등 당일 집단활동, 집단프로그램,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질이 높

고 만족스러운 사회복지서비스를 적어도 2개 이상 받은 빈곤아동은 그렇지 않은 빈곤아동에 비해 심리·사회적 발달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정익중 외, 2005). 그런 의미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빈곤아동들은 상대적으로 행복한 것이라 생각된다. 부모의 거부나 무관심 등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것조차도 이용하지 못하는, 발굴되지 못한 빈곤아동들은 심각하게 학대나 방임 상태에 있어야, 심지어는 끝내 죽어서야 세상에 공개되기 쉽다. 학령기 아동은 학교에서 노출되므로 비교적 나은 편이지만 영·유아의 경우 결식, 방임, 학대 상태에 놓여도 밖으로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는 방임의 우려가 높은 학령전기의 미취학 빈곤아동이나 이혼이나 카드빚, 중대한 질병 등의 이유로 사회안전망 아래로 급속하게 추락한 빈곤아동 등을 새롭게 발견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지역사회 내의 위기에 처한 빈곤 아동들을 조기에 발견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방문일 것이다. 지역아동센터를 중심으로 일정 반경 안의 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정규 프로그램으로 시도되고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는 방임의 우려가 높은 새로운 빈곤아동사례를 발견하고, 빈곤아동의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총체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해줄 수 있는 사례관리자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경우 업무량이 너무 많아 절대빈곤가족 아동 지원에 국한돼 있어, 최저생계비를 겨우 넘어서는 차상위계층 아동들에게는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이들을 위한 사례관리자가 없다면 설령 예산이나 자원이 있어도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시범적으로 도입되고 있는 위스타트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에서의 연령대별 사례관리자나 부스러기사랑나눔회의 지역사회복지사 등이 있다면 가정방문 등을 통해 이러한 방임의 우려가 높은 감춰진 빈곤아동들을 일찍 발견할 수 있고, 이들에게 적절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2) 장기적·지속적인 개입

빈곤아동·청소년 같은 고위험 집단의 경우 장기적·지속적인 개입이 요청된다(정익중, 2009). 빈곤아동·청소년의 경우 부정적인 생활사와 위험한 주위환경 등 자연적인 요소들 때문에 단기개입의 영향은 시간이 갈수록 희석되거나 약화된다. 또한 프로그램에서 쉽게 탈락하고 가정 내에서 프로그램에서 배운 기술을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긍정적인 효과를 지속시키고 가족 내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강도 높은 장기개입이 필요하다.

3) 이세대 프로그램(two-generation program)

부모세대와 자녀세대를 동시에 개입하는 포괄적인 이세대 프로그램(two-generation program)이어야 한다(정익중, 2009). 빈곤부모들은 복지의존, 알콜중독, 가정폭력, 아동학대나 방임 등의 문제로 비난받고 사회의 짐으로 취급되면서, 프로그램에서 빈곤아동·청소년 문제를 다룰 때도 빈곤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향을 보인다. 빈곤부모에 대한 프로그램은 쉽게 사회적 반대를 직면하지만 빈곤아동·청소년에 대한 프로그램은 인도주의적 이유로 개인의 정치적 성향과 상관없이 찬성하기 때문에 사회적 지지를 받는 경향이 있다. 빈곤가족 내에서 부모와 자녀를 분리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빈곤가족을 위한 프로그램들은 부모와 자녀를 동시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자녀중심 프로그램이거나 성인중심 프로그램으로 분리하여 접근하는 것이 주류를 이루었다. 자녀중심 프로그램은 자녀에게 건강한 성장발달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빈곤가족의 빈곤탈피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고, 성인중심 프로그램은 부모의 경제적 자활을 위해 생계지원이나 직업훈련을 제공하지만 빈곤가족에서 자라나는 아동·청소년의 발달적 욕구나 부모로서의 역할에 대한 관심은 부족하였다. 반면 이세대 프로그램은 건강한 아동·청소년발달과 부모의 경제적 자활을 동시에 증진시키기 위해 이세대 모두를 대상 집단으로 하여 서비스를 통합·조정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세대에 대한 동시적 접근은 시너지적 효과를 통해 부모의 경제적 자활 능력은 물론 양육능력과 가족자원의 증대를 가져와 자녀중심 프로그램에서 얻어진 효과를 계속 지속시켜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도록 하는데 기여한다(정익중, 2002).

4) 포괄적 개입

아무리 좋은 개입이라고 해도 한 가지 프로그램만으로는 빈곤아동·청소년 문제와 같은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특히 빈곤가족과 같은 고위험 집단에게는 그 가족이 직면하는 다수의 위험요인에 접근하는 다양한 개입으로 보충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는 연구결과도 있다(Small, 1990). 따라서 다중요인(multi-component)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교육·복지·문화·보건 차원에서 다수의 위험요인에 동시에 개입해야 한다. 고위험 집단의 경우 대부분 많은 위험요인들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욕구를 가지고 있기 쉽다(Quint & Egeland, 1995; Dryfoos, 1990). 따라서 다른 기관이나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연계여부가 효과성을 담보하는데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포괄적 접근에는 가족, 학교, 지역사회 등 여러 가지 구성요소들이 동시에 포함되기 때문에 이 접근이 효과적이기 위해서는 이들 간의 협력이 중요하게 요구된다. 포괄적 접근은 상이한 자원, 상이한 규제체계, 서로 다른 전략을 배경으로 하는 여러 구성요소를 동시에 포함하기 때문에 과편화되고 분절화되기 쉽다. 그러나 각 구성요소의 협조를 이끌어내어 각 구성요소들이 서로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하나의 목표아래 일관성 있게 연계·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Petersen, Richmond, & Leffert, 1993).

5) 통합적 사례관리

위스타트사업과 드림스타트사업은 빈곤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상시 점검하는 사례관리를 통해 빈곤아동·청소년들이 갖고 있

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족에게 직접 찾아가(outreach) 통합적이고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정익중, 2009). 경우에 따라서는 이차림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려운 아동·청소년과 가족이 보다 쉽게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사례관리자를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직접 파견하여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해야 한다. 사례관리자는 가정으로 직접 찾아가 아동·청소년과 그 가족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함께 찾고, 아동·청소년과 부모 또는 가족 성원에 대한 심리·정서적 상담,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학교, 지역아동센터, 의료기관, 상담소, 종교단체, 타사회복지기관, 기타 사회서비스 기관 등에서 다양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연계한다. 다가오는 경제위기의 상황에서 위기에 놓인 빈곤아동을 적시에 발견하고 적절한 지원책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스타트사업과 같은 통합적 사례관리 프로그램의 확대가 절실하다.

참 고 문 헌

- 강신욱·신영석·이태진·강은정·김태완·최현수·임완섭(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 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강영호·남원석·노대명·류정순·석재은·설동훈·신명호·윤인진·이선우·이인재·장세훈·조명래·최현수(2006). 한국사회의 신빈곤. 경기: 한올아카데미.
- 고득영(2004).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전략’. 한국개발연구원, 나라경제 2004년 9월호, pp. 28-33.
- 고영선·최경수·신인석·임원혁·박진·한진희·신석하·박창균·이창용·박대근(2007). 경제위기 10년: 평가와 과제.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교육인적자원부·한국교육개발원·충청남도교육청(2008). 2007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성과 보고회 자료집.
- 곽금주(2007). 빈곤이 취약 전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종단연구 : 심리 발달.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집담회 자료.
- 곽금주·유제민·김정미(2007). 빈곤아동에 대한 보호 요인과 탐색요인 탐색-만3세 유아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제20권 제1호, pp. 1-19.
- 관계부처합동·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2004). 빈곤 대물림 차단을 위한 희망투자 전략·빈곤 아동·청소년 종합대책. 제49회 국정과제회의 자료집.
- 관계부처합동(2008). 세기적 위기를 선진일류국가 도약 기회로-2009년 경제운용방향. 2009년 경제운용방향 보고회의 자료집.
- 관계부처 합동(2009). 민생안정 긴급지원 대책 자료집
- 구인회(2002). 빈곤층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빈곤이행: 경제위기 이후의 시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48호, pp. 82-112.
- 구인회 (2003a). 경제적 상실과 소득수준이 청소년의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한국 사회복지학, 53호.
- 구인회 (2003b). 경제위기와 청소년 발달: 경제적 상실이 청소년 교육성취에 미치는 영향. 아산사회복지재단 연구총서 제138집. 서울: 집문당.
- 구인회(2006). 한국의 소득불평등과 빈곤.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국가인권위원회(2007). 2007 빈곤과 사회권-기초생활 취약계층의 생존권 보호와 국가의 의무. 서울: 국가인권위원회.
- 권중돈 (2000). 빈곤가족의 기능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목원대학교 논문집, 38권 1호, pp. 141-169.

- 김경준·김지혜·류명화·정익중(2006). 청소년 유형별 복지욕구 실태와 지원방안.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김경혜(1998). 서울시 저소득시민 최저생활 보장을 위한 연구. 서울: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김광웅(1998). 경제위기와 아동.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3-18. 서울: 한국아동학회.
- 김광웅·최명선(1998). 경제위기와 아동발달. 숙명여자대학교 건강생활과학연구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 26-42.
- 김대일 (2004). 빈곤의 정의와 규모. 유경준, 심상달 편. 취약계층 보호정책의 방향과 과제. KDI 연구보고서 2004-01.
- 김미곤·양시현·최현수(2006). 한국의 빈곤동향과 정책방향. 보건사회연구, 제26권 제1호, pp. 3-35.
- 김미숙(2006). 지역사회 빈곤아동 지원정책 고찰-지역아동센터 정책을 중심으로. 보건복지포럼, 제114호, pp. 78-90.
- 김미숙(2007). 위기의 한국아동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보건복지포럼, 제128호, pp. 5-20.
- 김미숙(2008). 한국의 아동빈곤실태와 정책과제. 보건복지포럼, 제139호, pp. 5-22.
- 김미숙·박민정·이상현·홍석표·조병은·원영희(2000). 저소득 편부모 가족의 생활실태와 정책과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미숙·배화옥(2007). 한국 아동빈곤을 수준과 아동빈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보건사회연구, 제27권 제1호, pp. 3-26.
- 김미숙·조애저·배화옥·김효진·홍미(2007). 한국의 아동빈곤 실태와 빈곤아동 지원방안.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상균·이상은·이봉주·정원오·진재문·심창학·정재훈·안상훈·엄기욱·구인화·김환준·조홍식 (2005). 비교빈곤정책론. 경기: 나남출판.
- 김승권·김미숙·강은정·배화옥·황옥경·김형욱·김효진(2007). 참여정부 아동종합대책 성과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 서울: 보건복지가족부.
- 김영이 (1994). 중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행동, 사회경제적 지위, 형제수 및 지역차가 중학생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인숙 (1994). 빈곤여성의 사회환경적 요인과 심리적 디스트레스와의 관계.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김정원·박인심·김주아·이봉주(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만족도와 성과

- 분석.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최영태·김경애·김민·양병찬(2007).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운영 모델 개발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정원·최영태·박인심·김경애(2007). 2006년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 지원사업 평가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김진용 (1988). 자아개념과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현아 (2000). 빈곤아동의 자아개념과 학습습관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호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은(1998). IMF시대의 청소년들의 소비행태와 가족생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99-119. 서울: 한국아동학회.
- 김희연(2008). 저소득층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김희연·신현중·김정숙(2007). 경기도 빈곤아동 특성분석 연구. 경기: 경기개발연구원.
- 노인철·어운배·이성기·김용하·김미곤·전학석·이상은·석재은(1995). 저소득층 실태변화와 정책과제- 자활지원을 중심으로.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성연(1998). 경제불황 스트레스와 가족관계 및 아동의 적응행동.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21-37. 서울: 한국아동학회.
- 박소혜 (1995). 국민학교 아동의 가정환경과 학교생활 적응 및 만족도의 관계. 건국대학교석사학위논문.
- 박순영(2007). 빈곤이 취학 전 아동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교종단연구 : 성장발육.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집담회 자료.
- 박영애 (1995). 부모의 양육행동 및 형제관계와 아동의 자존감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찬용·김진욱·김태완(1999). 경제위기에 따른 빈곤수준 및 소득불평등 변화와 정책방향.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박현선 (1998a). 빈곤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 논문.
- 박현선 (1998b). 빈곤청소년의 위험 및 보호요소가 학교 적응유연성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연구, 11호, pp. 23-52.
- 박현선·정익중·구인회(2006). 빈곤과 아동의 사회 정서적 발달간의 관계-성인역 부담의 역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58권 제2호, pp. 303-330.
- 배화옥(2007). OECD 국가간 아동복지수준 비교와 한국사회에의 시사점. 보건복지포럼, 제128호, pp. 73-87.

- 보건복지가족부(2008. 12). 선제적 위기 대응으로 국민의 삶을 지키는 복지정책. 2009 연두 업무보고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정책과(2009). 빈곤(위기·취약) 아동·청소년 지원현황 및 계획보고 자료.
-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2008). 미래세대희망플랜-아동·청소년정책기본계획(2009~2013).
- 서울복지재단(2008). 능동적 복지정책과 지역복지활성화 전략-서울·부산·경기·충남 출연복지기관의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복지분권실천협의회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 서울복지재단.
- 성주현 (2003). 취약계층의 빈곤, 건강의 이중위협. 김창엽 편 <빈곤과 건강>,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37-163.
- 송미원 (1999). 초등학교의 자아개념 및 불안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명호(2003). 빈곤가정 청소년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도시와 빈곤, 통권 제62호, pp. 86-98.
- 신명호(2004). 교육과 빈곤탈출-저소득층 청소년의 학력저하 현상을 중심으로-. 도시연구, 제9호, pp. 29-65.
- 심영희(1998). IMF 시대의 청소년문제 양상과 과제. 한국청소년학회 편, IMF 시대 청소년의 소외와 참여(pp. 99-142).
- 안덕순 외 (1988). 영세지역 아동보육 및 환경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개발원.
- 여유진·김수정·구인희·김계연(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오경자·김은아·도레미·어유경(2005). 빈곤가정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 : 위험요인과 보호요인의 탐색.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제24권 제1호, pp. 53-71.
- 유가효(1998). 경제위기에 대한 아동의 지각과 생활변화-소비행동변화를 중심으로. 한국아동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pp. 67-85. 서울: 한국아동학회.
- 유희정 (1996). 빈민지역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 검토 및 모형개발. 영유아 보육프로그램의 실효성검토 및 모형개발 발표논문집 한국영유아보육학회 '96 추계학술대회.
- 윤홍식·조막래(2007). 경제위기 이후 한국의 빈곤양태. 한국사회복지학회 2007년 세계학술대회 창립 50주년 학술대회 자료집. pp. 287-291.
- 이경상·임희진·박창남·정익중(2008). 빈곤이 청소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이경우 (1988). 도시 저소득층 탁아프로그램 실시 사례: H유아원을 중심으로. 여성학
논집, 5집. 이대한국여성연구소.
- 이봉주(2005).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본 빈곤의 영향-아동기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집담회 자료.
- 이상균 (1999). 학교에서의 또래폭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
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이순형(1998). IMF시대에서 청소년의 사회경제의식과 소비행태. 한국아동학회 춘계
학술대회 자료집, pp. 123-140. 서울: 한국아동학회.
- 이승양 (1982). 도시 빈곤아동의 복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영 · 신은주 · 나종혜 (1995). 영유아 양육환경에 대한 생태학적 연구(2). 대한가정
학회지, 33권 3호, pp. 165-178.
- 이용우 (2006). 여성 한부모 가구의 빈곤지위에 미치는 아동의 영향에 관한 국가간
비교연구. 사회보장연구, 제22권 제2호, pp. 105-131.
- 이재연 · 백정재 (1997). 빈곤아동이 지각한 가정의 심리적 환경과 부적응 행동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생활과학연구지, 제12권 1호, pp. 71-93.
- 이주리 (1994). 아동의 역량지각과 관련변인들 간의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2권 4호, pp.193-208.
- 이혜연·이태수(2001). 소외청소년의 복지욕구 조사연구(I)-저소득층 청소년을 중심
으로.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이혜연·황창순·김희진(1999). 저소득 실업가정의 청소년문제와 대책. 서울: 한국청소
년개발원.
- 이훈구·윤소연·정혜경(1998). 실직가정 아동과 비실직가정 아동의 정서문제 비교연구.
한국심리학회 1998년 연차대회발표논문.
- 임인숙(2000). 경제위기가 남편의 권위상실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학, 제34권 4
호, pp. 1105-1127.
- 장성자·김승권·정경배·김미숙(1999). IMF 경제위기에 따른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정책 방향 세미나. 보건복지포럼, 제29호, pp. 53-58.
- 장혜자(2000). 빈곤한 아동의 현황 및 고찰. 한국생활과학회지, 제9권 제3호, pp.
257-270.
- 장혜경·김영란(1998). 취업주부의 역할분담과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 한국여성
개발원
- 재정경제부(1999). 경제위기극복과 재도약을 위한 정책구상. 경기: 재정경제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사단법인 전국지역아동센터공부방협의회(2007). 사회양극화와 교육양극화에 소외되는 우리 아이들.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2007). 2007 아동복지정책아카데미 자료집.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2007). 2007년 신규회원기관교육 자료집. 통권 제32호.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2007). 빈곤가정 아동의 실태 및 지역아동센터 현황과 현안 문제에 대한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정책 제언.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2007). 지역아동센터 현안문제에 대한 정책 제언.
-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2008). 지역아동센터의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통권 제43호.
- 정운찬·조홍식(2007). 외환위기 10년, 한국사회 얼마나 달라졌나.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정익중 (2002). 빈곤 편모가족을 위한 이세대(二世代) 프로그램. 사회과학연구 제8권, pp. 231-258.
- 정익중 (2009). 빈곤가정 학생과 발달권: 위스타트 마을만들기 사업의 사례. 이해원 외. 학생권리와 학교사회복지. 서울: 한울아카데미.
- 정익중 외. (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57권 3호, pp. 105-131.
- 정익중·김혜란·홍순혜·박은미·허남순·오정수(2005). 사회복지서비스 이용이 빈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사회복지학, 제57권 제3호, pp. 105-131.
- 조성희(1999). 실직자 가족의 해체가능성에 관한 연구-실직자 가족의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학위논문.
- 조영훈(2007). 경제위기 이후의 복지정책에 대한 평가와 한국복지국가의 전망. 2007년 한국사회학회 특별 심포지엄. pp. 87-110.
- 최기춘(2003). 세계화와 복지국가 변화의 다양성-미국, 유럽과 한국의 경우. 사회경제평론, 제21호, pp. 495-526.
- 최선희·김희수(2004). 빈곤아동·청소년 실태과악 및 정책방안 연구.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최일섭 (2000). 빈곤문제, 최일섭·최성재 편 <사회문제와 사회복지>, 서울: 나남, pp. 81-108.
- 최진희 (2000). 아동의 행동문제와 또래 괴롭힘이 학교적응과 우정에 미치는 영향의 경로분석. 아동연구, 14권 2호, pp. 59-90.
- 최충욱·강운선(1998). IMF 시대의 청소년 생활변화와 소외. 한국청소년학회 편, IMF 시대 청소년의 소외와 참여(pp. 17-98).

- 로버트 L. 하일브로너·레스터 C. 더로우. 이승훈 역(1985). 경제위기의 극복. 서울: 삼성미술문화재단.
- 한국개발연구원 편(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실업실태 및 복지욕구조사 결과보고서. 서울: 한국노동연구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편(2008). 경제위기에 대비한 사회정책 핵심과제. 정책토론회 자료집. 서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한국청소년개발원(1998). 국가경제위기와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방향. 청소년자원봉사활동 지도를 위한 워크숍 자료집. 서울: 한국청소년개발원.
- 한종혜 (1996). 아동의 사회적 관계망의 따른 역량지각 및 자아존중감.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충효 (1982). 아동발달에 있어서 빈곤환경의 효과. 인문학연구, 17호, pp. 311-329.
- 허남순·오정수·홍순혜·김혜란·박은미·정익중(2005). 빈곤아동과 삶의 질. 서울: 학지사.
- Adler, N. E., Boyce, T., Chesney, M. A., Folkman, S., & Syme, S. L. (1993). Socioeconomic inequalities in health: No easy solution.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269, 3140-3145.
- Amato, P. R. & Rivera, F. (1999). Paternal involvement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pp. 372-384.
- Augustyniak, Duncan, & Liker(1985). Income dynamics and self-conceptions: Linking theory and method in models of change. In Glenn H. Elder, Jr. (Ed.)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Block, J. & Block, J. (1980). The role of ego control and ego resiliency in organization of behavior. In W. A. Collins (Ed.), *Minnesota Symposium on Child Psychology*, 13,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Boivin, M. & Begin, G. (1989). Peer status and self-perception among early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case of the rejected children. *Child Development*, 60, pp. 591-596.
- Bolger, K. E., Patterson, C. J., Thompson, W. W., & Kupersmidt, J. B. (1995). Psychosocial adjustment among children experiencing persistent and intermittent family economic hardship. *Child Development*, 66, pp. 1107-1129.
- Boulton, M., & Underwood, K. (1992). Bully/victim problems among middle school

- children.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2, pp. 73-87.
- Brody, G. H., Stoneman, Z., & Flor, D. (1995). "Linking family processes and academic competence among rural African American youth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pp. 567-579.
- Brooks-Gunn(1993). Why do young adolescents have difficulty adhering to health regimes? In N. Krasnegor, L. Epstein, S. B. Johnson, & S. J. Yaffe (Eds.), *Developmental aspects of health compliance behavior* (pp. 125-152). Hillsdale, NJ: Erlbaum.
- Brooks-Gunn, J., & G. J. Duncan. (1997). The Effects of Poverty on Children. *The Future of Children*, 7, pp. 55-71.
- Chung, I.-J. (2004). A conceptual framework for understan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overty and antisocial behavior: Focusing on psychosocial mediating mechanisms. *Journal of Primary Prevention*, 24, pp. 355-380.
- Chung, I.-J., Nagin, D. S., Hawkins, J. D., & Hill, K. G. (2001). A didactic example of mixture modeling applicable to the study of development in adolescent offending.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17, pp. 197-218.
- Cicchetti, D., & Toth, S. L. (1998). The development of depression in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3, pp. 221-241.
- Cicchetti, D., Rogosch, F. A., Lynch, M., & Holt, K. D. (1993). Resilience in maltreated children: Processes leading to adaptive outcomes. *Development & Psychopathology*, 5, pp. 629-648.
- Clark, R. (1983). *Family life and school achievement: Why poor Black children succeed or fail*.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oie, J. D. (1990). Toward a theory of peer rejection.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365-402).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ie, J. D., & Miller-Johnson, S. (2001). Peer factors and interventions. In R. Loeber & D. P. Farrington (Eds.), *Child delinquents: Development, intervention, and service needs* (pp.191-209).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4, pp. 95-120.
- Conger, Rand D., Katherine J. Conger, Glen H. Elder, Jr., Frederick O. Lorenz, Ronald L. Simons, Ronald L., Les B. Whitbeck.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pp. 526-541.
- Conger, R. D., Conger, K. J., & Elder, G. H. (1997). Family economic hardship and adolescent adjustment: Mediating and moderating processes.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288-310).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pp. 541-561.
- Connell, J. P., Halpern-Felsher, B L., Clifford, E., Crichlow, W., & Usinger, P. (1995). Hanging in there: Behavioral, psychological, and contextual factors affecting whether African American adolescents stay in high school.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0, pp. 41-63.
- Connell, J. P., Spencer, M. B., & Aber, J. L. (1994). Educational risk and resilience in African-American youth: Context, self, action, and outcome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5, pp. 493-506.
- Crick, N. R. & Grotpeter, J. K. (1996). Relational aggression, overt aggression, and friendship. *Child Development*, 67, pp. 2328-2338.
- Crick, N. R., & Dodge, K. A. (1994). A review and reformulation of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mechanisms in children's social adjustment. *Psychological Bulletin*, 115, pp. 74-101.
- Dodge, K. A. (1991). Emotion and social information processing. In J. Garber & K. A. Dodge (Eds.), *The development of emotion regulation and dysfunction* (pp. 159-181).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1993). Social-cognitive mechanisms in the development of conduct disorder and depress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pp. 559-584.
- Dodge, K. A., & Coie, J. D. (1987). Social information-processing factors in reactive and proactive aggression in children's playgrou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pp. 1146-1158.
- Dodge, K. A., & Feldman, E. (1990). Issues in social cognition and sociometric status.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119-155).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odge, K. A., & Newman, J. P. (1981). Biased decision making processes in aggressive

- boys.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90, pp. 375-379.
- Dodge, K. A., Bates, J. E., & Pettit, G. S. (1990). Mechanisms in the cycle of violence. *Science*, 250, pp. 1678-1683.
- Downey, D. B. (1994). The school performance of children from single-mother and single-father families: Economic or interpersonal deprivation? *Journal of Family Issues*, 15, pp. 129-147.
- Downs, S. W., Costin, L. B. & McFadden, E. J. (1996). *Child welfare and family services*. White Plains, NY: Longman.
- Dryfoos, J. G. (1990). *Adolescents at risk: Prevalence and preven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Dubois, D. L., Eitel, S. K., & Felner, R. D. (1994). Effects of family environment and parent-child relationship on school adjustment during the transition to early adolesce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pp. 405-414.
- Dubow, E. F., & Ippolito, M. F. (1994). Effects of poverty and quality of the home environment on changes in the academic and behavioral adjustment of elementary school-age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pp. 401-412.
- Dweck, C. S. (1986). Motivational processes affecting learning.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10), pp. 1040-1048.
- Eckenrode, J., Rowe, E., Laird, M., & Brathwaite, J. (1995). Mobility as a mediator of the effects of child maltreatment on academic performance. *Child Development*, 66, pp. 1130-1142.
- Elder(1974). *Conversations on the principal subjects of political economy*. NY: Garland Pub. Inc.
- Elder(1985). "Perspectives on the life course" in *Life Course Dynamics: Trajectories and Transitions 1968-1980*.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Elder, Van Nguyen, & Caspi(1985). "Linking Family Hardship to Children's Lives." *Child Development* 56: pp. 361-375
- Elder, G., & Caspi, A. (1988). Economic stress in lives: Developmental perspectives. *Journal of Social Issues*, 44(4), pp. 25-45.
- Elder, Liker & Cross(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 6, pp. 109-158.
- English, D. (1998). The extent and consequences of child maltreatment. *The Future of*

- Children, 8(1), pp. 39-53.
- Ensminger, M. E., Lamkin, R. P., & Jacobson, N. (1996). School leaving: A longitudinal perspective including neighborhood effects. *Child Development*, 67, 2400-2416.
- Entwisle, D. R. (1995). The role of schools in sustaining early childhood program benefits, *Future of Children*, 5(3), pp. 133-144.
- Entwisle, D. R., Alexander, K. L., & Olson, L. S. (1994). The gender gap in math: Possible origins in neighborhood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9, pp. 822-838.
- Farber, E. A., & Egeland, B. (1987). Invulnerability among abused and neglected children. In E.J. Anthony & B. J. Cohler (Eds.), *The invulnerable child*, p. 253-288. New York: Guilford Press.
- Flanagan, C. A. (1990). Change in family work status: Effects on parent-adolescent decision making. *Child Development*, 61, pp. 163-177.
- Garber, J., Quiggle, N. L., Panak, W., & Dodge, K. A. (1991). Aggression and depression in children: Comorbidity, specificity, and cognitive processing.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Garmezy, N. (1991). Resiliency and vulnerability to adverse developmental outcomes associated with poverty.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34, pp. 416-430.
- Garmezy, N. (1993). Children in poverty: resilience despite risk., *Psychiatry*, 56, pp. 127-136.
- Gerard, J. M., & Buehler, C. (1999). Multiple risk factors in the family environment and youth problem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1, pp. 343-361.
- Gouze, K. R. (1987). Attention and social problem solving as correlates of aggression in preschool males.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 pp. 181-197.
- Gutman, L. M., & Eccles, J. S. (1999). "Financial strain, parenting behaviors, and adolescents' achievement: Testing model equivalence between African American and European America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70(6): pp. 1464-1476.
- Hagan, J. (1994). *Crime and disrepute*. Thousand Oaks: Pine Forge Press.
- Hanson, T., McLanahan, S., & Thomson, E. (1997). Economic resources, parental practices, and children's well-being.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190-238).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Harris, K. M., & Marmer, J. K. (1996). Poverty, paternal involvement, and adolescent well-being. *Journal of Family Issues*, 17(5), pp. 614-640.
- Harris, K. M., Furstenberg, Jr., F. F., & Marmer, J. K. (1998). Paternal involvement with adolescent in intact families: The influence of fathers over the life course. *Demography*, 35(2), pp. 201-216.
- Harter, S. (1986). The determinant and mediational role of global self-worth in the children. In N. Eisenberg (Ed.). *Contemporary topic of developmental psychology*, New York: Wiley.
- Hernandez, L. P. (1993). The role of protective factors in the school resilience of Mexican American high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 Herrenkohl, T. I., Huang, B., Kosterman, R., Hawkins, J. D., Catalano, R. F., & Smith, B. H. (2001). A comparison of social development processes leading to violent behavior in late adolescence for childhood initiators and adolescent initiators of violence.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8, pp. 45-63.
- Hoover, J., & Hazler, (1991). Bullies and victims. *Elementary School Guidance & Counseling*, 25, pp. 212-219.
- Huston, A. C. (1991). Antecedents, consequences, and possible solutions for poverty among children. In A. 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p.282-315).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Hymel, S., Wagner, E., & Butler, L. J. (1990). Reputational bias: View from the peer group. In S. R. Asher & J. D. Coie (Eds.), *Peer rejection in childhood* (pp.156-188). Cambridge, U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irby L. D. & Fraser, M. W. (1997).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 In M. W. Fraser (Eds.), *Risk and resilience in childhood*. Washington, DC: NASW Press.
- Kochenderfer, B. J. & Ladd, G. W. (1996). Peer victimization: Cause or consequence of school maladjustment? *Child Development*, 67, pp. 1305-1317.
- Korenman, S., Miller, J. E., & Sjaastad, J. E. (1995). Long-term poverty and child development in the United States: Results from the National Longitudinal Survey of Youth.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17, pp. 127-151.
- Lempers, J., & Clark-Lempers, D. (1997). Economic hardship, family relationship, and adolescent distress: An evaluation of a stress-distress mediation model in mother-daughter and mother-son dyads. *Adolescence*, 32, pp. 339-356.

- Lempers, J., & Clark-Lempers, D., & Simons, R. (1989). "Economic hardship, parenting, and distress in adolescence." *Child Development*, 60: pp. 25-49.
- Liaw, E., & Brooks-Gunn, J. (1994). Cumulative familial risks and low-birthweight children's cognitive and behavioral developmen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pp. 360-372.
- Luthar, S. S. (1999). *Poverty and children's adjustment*.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 Mayer, S. E. (1997a). *What money can't buy: Family income and children's life chance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Cormick, M. C., & Brooks-Gunn, J. (1989). Health car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H. Freeman & S. Levine (Eds.), *Handbook of Medical Sociology* (pp. 347-380).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McLanahan, S. & Sandefur, G. (1994). *Growing up with a single parent: What hurts, what helps*.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McLanahan, S. S. (1997). Parent absence or poverty: Which matters more?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 35-48). New York: Russell Sage.
- McLeod, J. D., & Shanahan, M. J. (1993). Poverty, parenting, and children's mental heal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8, pp. 351-366.
- McLoyd, V. C. (1989). Socialization and development in a changing economy: The effects of paternal job and income loss on children. *American Psychologist*, 44, pp. 293-302.
- McLoyd, V. C. (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 pp. 311-346.
- McLoyd, V. C. (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 pp. 185-204.
- McLoyd, V. C., & Wilson, L. (1991). The strain of living poor: Parenting, social support, and child mental health. In A. C. Huston (Ed.),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pp.105-135).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McLoyd, V. C., Jayaratne, T., Ceballo, R., & Borquez, J. (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pp. 562-589.
- Moffitt, T. E. (1993). Adolescence-limited and life-course-persistent antisocial behavior: A developmental taxonomy. *Psychological Review*, 100, pp. 674-701.
- National Center on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Study findings: Study of incidence and prevalence of child abuse and neglect: 1988. Washington, DC: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Olweus, D. (1993). *Bullying at school: What we know and what we can do*. Oxford, England: Blackwell.
- Parker, S., Greer, S. & Zucherman, B. (1988). Double jeopardy: The impact of poverty on early child development. *The Pediatric Clinics of North America*, 35, pp. 1227-1240.
- Patterson, C. J., Kupersmith, J. B., & Griesler, P. C. (1990). Children's perception of self and relationships with others as a function of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1, pp. 1335-1349.
- Patterson, G. R., & Bank, L. (1989). Some amplifying mechanisms for pathologic processes in families. In M. R. Gunnar & E. Thelen (Eds.), *Systems and development: The Minnesota symposia on child psychology* (Vol. 22, pp. 167-209).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atterson, G. R., Capaldi, D. M., & Bank, L. (1991). An early starter model for predicting delinquency.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139-16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Pearlin, L. I., Lieberman, M. A., Menaghan, E. G., & Mullan, J. T.(1981). The stress proc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2: pp. 337-356.
- Perry, D. G., Kusel, S. J., & Perry, C. (1988). Victims of peer aggression. *Developmental Psychology*, 24, pp. 807-814.
- Peters, E., & Mullis, N. (1997). The role of the family and source of income in adolescent achievement.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340-381).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Petersen, A. C., Richmond, J. B., & Leffert, N. (1993). Social changes among youth: The United States experience. *Journal of Adolescent Health*, 14, pp. 632-637.
- Plotnick, R. (2000). Economic security for families with children. In P. J. Pecora, J. K. Whittaker, A. N. Maluccio, R. P. Barth, & R. Plotnick. *The Child welfare*

- challenge(2nd Ed.) (pp.95-127). New York: Aldine de Gruyter.
- Pollite, E. et al. (1985). "Cognitive effects of iron deficiency anemia," *Lancet*, 1: pp. 158-159.
- Quint, J., & Egeland, B. (1995). New chance: Comprehensive services for disadvantaged young families. In S. Smith (Ed.), *Two-generation programs for families in poverty: A new intervention strategy* (pp.91-134). Norwood, NJ: Ablex Publishing Corporation.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 image*. N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Rubin, K. H., Bream, L. A., & Rose-Krasnor, L. (1991). Social problem solving and aggression in childhood. In D. J. Pepler & K. H. Rubin (Eds.), *The development and treatment of childhood aggression* (pp. 219-248). Hillsdale, NJ: Lawrence Erlbaum.
- Rutter, M. (1990). Psychosocial resilience and protective mechanisms. In J. Rolf, A. S. Masten, D. Cicchetti, K. H. Nuechterlein, & S. Weintraub (Ed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in the development of psychopathology* (pp. 181-214). New York: Cambridge.
- Sampson, R. J. & Laub, J. H. (1996).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 pp. 523-540.
- Sampson, R. J. (1991). Linking the micro and macrolevel dimensions of community social disorganization. *Social Forces*, 70, pp. 43-64.
- Sampson, R. J., & Wilson, W. J. (1994). Toward a theory of race, crime, and urban inequality. In J. Hagan & R. D. Peterson (Eds.), *Crime and inequality* (pp. 37-54).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 Secombe, K. (2000). Families in poverty in the 1990s: Trends, causes, consequences, and lessons learned.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62, 1094-1113.
- Sedlak, A., & Broadhurst, D. D. (1996). *Third National Incidence Study of Child Abuse and Neglect: Final Report*. Washington, DC: US 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Shaw, D. S., Vondra, J. I., Hommerding, K. D., Keenam, K., & Dunn, M. (1994). Chronic family adversity and early child behavior problems: A longitudinal study of low income families.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5, pp.

1109-1122.

- Small, S. (1990). Preventive programs that support families with adolescents. New York: Carnegie Council on Adolescent Development.
- Smith, J. R., Brooks-Gunn, J., & Klebanov, P. (1997). The consequences of living in poverty for young children's cognitive and verbal ability and early school achievement. In G. J. Duncan & J. Brooks-Gunn (Eds.),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pp.132-189).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Starr, R. H., MacLean, D. J. & Keating, D. P. (1991). Life-span development outcomes of child maltreatment. In R. H. Starr & D. A. Wolfe (Eds.), *The effects of child abuse and neglect: Issues and research* (pp.1-32). New York: Guilford Press.
- Steinberg, L., Lamborn, S. D., Dornbusch, S. M., & Darling, N. (1992). "Impact of parenting practices on adolescent achievement: Authoritative parenting, school involvement, and encouragement to succeed." *Child Development*, 63: pp. 1266-1281.
- Voydanoff, P. (1990). "Economic Distress and Family Relation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pp. 1099-1115.
- Wall, J. E., & Holden, E. W. (1994). Aggressive, assertive, and submissive behaviors in disadvantaged, inner-city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23, pp. 382-390.
- Werner, E. E. (1990). Protective factors and individual resilience . In S. J. Meisels & J. P. Shonkoff (Eds.). *Handbook of early childhood intervention* (pp.97-116),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rner, E. E., & Smith, R. S. (1987). *Vulnerable but invincible: A longitudinal study of resilient children and youth*. New York: McGraw-Hill.
- Werner, E. E., & Smith, R. S. (1992). *Overcoming the odds: High risk children from birth to adulthood*. Ithaca, NY: Cornell University Press.
- Wilson, W. J. (1987). *The truly disadvantaged: The inner city, the underclass, and public policy*.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Wilson, W. J. (1991). Studying inner-city social dislocations: The challenge of public agenda researc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6, pp. 1-14.
- Zimmerman, M. A., Salem, D. A., & Maton, K. I. (1995). Family structure and psychosocial correlates among urban African-American adolescent males. *Child Development*, 66, pp. 1598-1613.

<신문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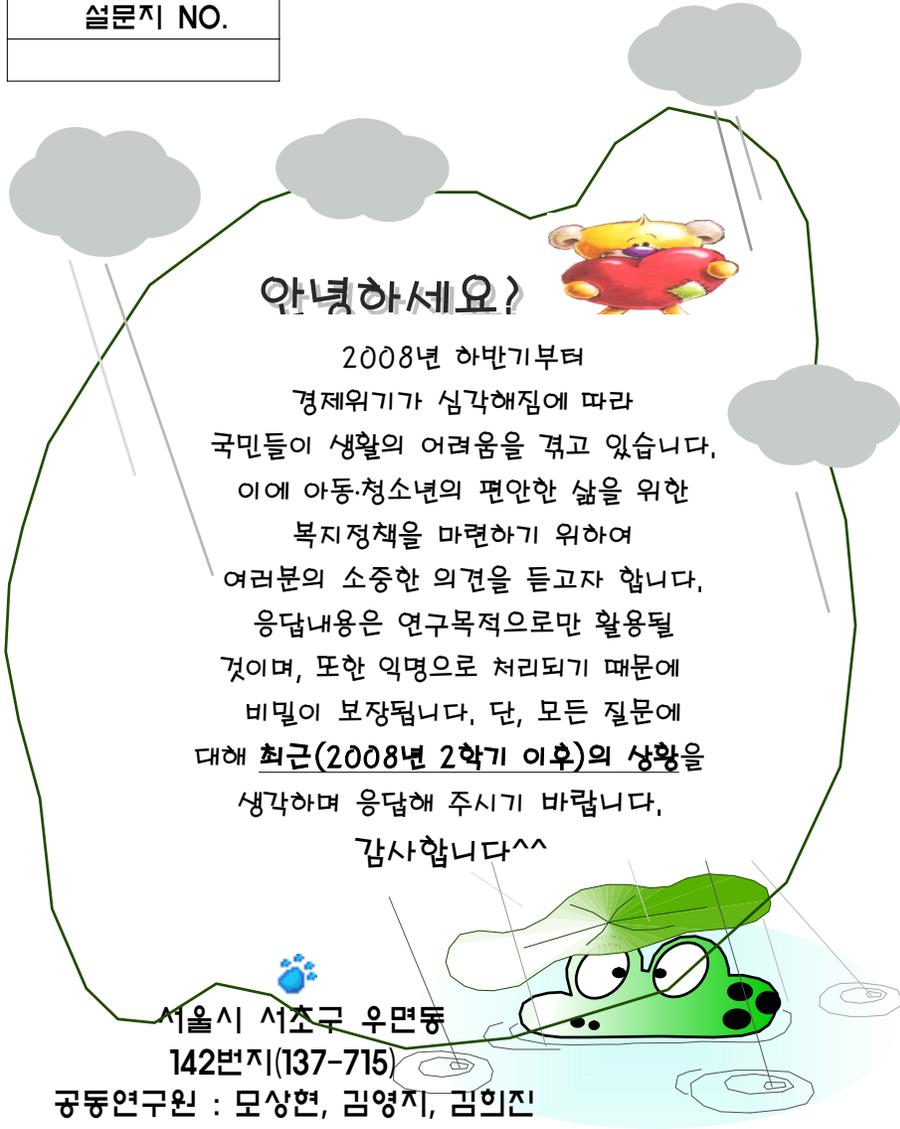
- 동아일보. 2008. 5. 26일자(시리즈)기사 : [SOS 벼랑 끝의 아이들]<上> 절대빈곤 속 생존권 위협.
- 동아일보. 2008. 5. 28일자(시리즈)기사 : [SOS 벼랑 끝의 아이들]<下> 공부할 권리 뺏는 부모들.
- 문화일보. 2008. 11. 3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살려라> 연봉 4000-5000만원 수준의 대졸 직장인.
- 문화일보. 2008. 11. 3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살려라> 新성장산업 육성으로 선진 산업구조 전환을.
- 문화일보. 2008. 11. 3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살려라> 96년 68%에서 작년 58%로 줄며 양극화 심화.
- 문화일보. 2008. 11. 3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살려라> 야위어가는 ‘사회의 허리’...일자리 창출 급하다.
- 중앙일보. 2008. 11. 3일자(시리즈)기사 : ‘위험한 사회’대한민국<上>보릿고개→연탄가스→외환위기...위험도 진화.
- 중앙일보. 2008. 11. 4일자(시리즈)기사 : ‘위험한 사회’대한민국<中>중산층 “노후걱정”...저소득층 “밥벌이가 문제”.
- 중앙일보. 2008. 11. 5일자(시리즈)기사 : ‘위험한 사회’대한민국<下>재앙막는 ‘안전펜스’ 시스템 생활화해야.
- 중앙일보. 2008. 12. 15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두텁게’<上>왜 다시 ‘중산층’인가.
- 중앙일보. 2008. 12. 16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두텁게’<中>노 정부는...MB정부는...
- 중앙일보. 2008. 12. 17일자(시리즈)기사 : ‘중산층을 두텁게’<下> ‘다 함께’ 가려면 이렇게.
- 중앙일보. 2009. 1. 12일자 기사 : 대학생 ‘영·수 과외’부터 끊고 부부가 직접 아이들 가르치고.
- 중앙일보. 2009. 1. 14일자 기사 : 외환위기...금융위기...거리 내몰린 10대들.
- 중앙일보. 2009. 1. 14일자(시리즈)기사 : ‘두 번 버려진 아이들’<上> 10년 만에 다시 고통.
- 중앙일보. 2009. 1. 15일자(시리즈)기사 : ‘두 번 버려진 아이들’<中> 보육원이 더 좋아요.
- 중앙일보. 2009. 1. 16일자(시리즈)기사 : ‘두 번 버려진 아이들’<下> 아파도 병원 못 가요.

부 록

1. 설문지
2. 세미나 일정

부록 1. 설문지

설문지 NO.



안녕하세요?

2008년 하반기부터
경제위기가 심각해짐에 따라
국민들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청소년의 편안한 삶을 위한
복지정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응답내용은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이며, 또한 익명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비밀이 보장됩니다. 단, 모든 질문에
대해 최근(2008년 2학기 이후)의 상황을
생각하며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시 서초구 우면동
142번지(137-715)
공동연구원 : 모상현, 김영지, 김희진

TEL: 02.2188.8846, 8875)

2009. 2.

한 국 청 소 년 정 책 연 구 원



최근 경제위기에 따른 여러분들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국가의 경제위기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	항	구	분
1)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위기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①	잘 알고 있다
		②	어느 정도 알고 있다
		③	잘 알지 못한다
		④	전혀 알지 못한다
2)	어떤 경로를 통해 경제위기를 알게 되었습니까?	①	부모님
		②	학교 선생님
		③	친구들
		④	TV, 신문, 라디오, 인터넷
		⑤	부모, 선생님, 대중매체 모두

2.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여러분 자신의 생각을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하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상황에서 나는 내가 썩 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6
2)	지금은 힘들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6
3)	지금은 힘들더라도 머지않아 나는 내 또래의 다른 아이들만큼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1	2	3	4	5	6
4)	지금은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실행에 옮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5)	나는 지금의 경험이 미래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6)	나는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더라도 나와 우리 가정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5	6

3.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부모님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하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상황에서 부모님은 우리 가족이 썩 잘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	2	3	4	5	6
2)	부모님은 지금은 힘들더라도 상황이 나아질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을 생각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2	3	4	5	6
3)	부모님은 지금은 힘들더라도 머지않아 다른 가정처럼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2	3	4	5	6
4)	지금은 힘들더라도 부모님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많은 방법들을 만들어내고 실행에 옮길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2	3	4	5	6
5)	부모님은 지금의 경험이 미래에 반드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2	3	4	5	6
6)	부모님은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서 포기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1	2	3	4	5	6

4.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부모님과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질문입니다. 솔직하게 답해 주세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1	2	3	4	5	6
2)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1	2	3	4	5	6
3)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1	2	3	4	5	6
4)	부모님과 나는 대화를 자주 나누는 편이다.	1	2	3	4	5	6
5)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1	2	3	4	5	6
6)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1	2	3	4	5	6
7)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1	2	3	4	5	6

5.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국가의 경제위기로 인한 여러분의 걱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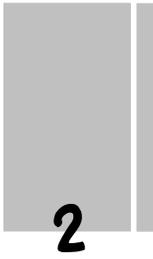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앞으로 가정경제형편이 어려워질 것이 걱정된다.	1	2	3	4
2)	앞으로 아버지가 직업을 잃을까봐 걱정된다.	1	2	3	4
3)	앞으로 어머니가 직업을 잃을까봐 걱정된다.	1	2	3	4
4)	앞으로 부모님 사이가 나빠질까봐 걱정된다.	1	2	3	4
5)	앞으로 가족이 떨어져 살게 될까 봐 걱정된다.	1	2	3	4
6)	앞으로 나에 대한 부모님의 관심이 줄어들까봐 걱정된다.	1	2	3	4

6.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여러분 가정의 수입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을 한 가지만 고른다면?

- ① 수입이 많이 증가했다.
- ② 수입이 약간 증가했다.
- ③ 수입이 똑같다.
- ④ 수입이 약간 줄었다.
- ⑤ 수입이 많이 줄었다.

7.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여러분 가정의 경제상태에 대해 가장 잘 설명한 것을 고른다면?

- ① 아무 문제도 없다.
- ② 우리 가정의 경제상태는 사소한 문제가 있다.
- ③ 최근 우리 가정의 경제상태는 심각한 문제이다.
- ④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여러분의 의식주, 의료·보건 및 건강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8.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다음과 같은 질병을 앓은 경험은? (모두 고르세요)

- ① 감기나 독감 등 호흡기질환
- ② 중치 및 잇몸질환
- ③ 위장 및 내과질환
- ④ 피부질환(아토피, 습진, 부스럼 등)
- ⑤ 결핵 및 폐질환
- ⑥ 성 관련 문제나 질병
- ⑦ 백혈병, 암 혹은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장혈관 질환 등)
- ⑧ 각종사고(교통사고, 부주의사고)로 인한 질병
- ⑨ 없음 (→ 9번으로 가세요)

8-1. 치료를 받았나요?

- ① 예
- ② 아니요

8-2. 무슨 이유로 치료받지 않았나요?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증세가 가벼워서
- ② 치료비가 없어서
- ③ 거리가 멀어서
- ④ 의료보험이 없어서
- ⑤ 의논할 사람이 없어서
- ⑥ 치료가 무서워서
- ⑦ 귀찮아서
- ⑧ 몸이 불편해서(움직일 수 없어서)
- ⑨ 기타_____

9.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국가의 경제위기가 심해진 이후 변화된 여러분의 상황에 가장 가까운 항목을 선택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더 외롭다고 느낀다.	1	2	3	4
2) 나는 걱정이 많아졌다.	1	2	3	4
3) 나는 자신감이 없어졌다.	1	2	3	4
4) 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차별받거나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1	2	3	4
5) 나는 가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든다.	1	2	3	4
6) 나는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1	2	3	4
7) 나는 식사를 거르거나 도시락을 못 싸 갈 때가 많다. (학교 급식을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 포함)	1	2	3	4

☞ **앞 문항에서(9번) 계속**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8) 나는 준비물, 학용품, 생활용품 등을 사고 싶을 때 사지 못 한다.	1	2	3	4
9) 나는 학원이나 과외교습을 즐기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1	2	3	4
10) 나의 문화체험·수련활동 등의 여가활동이 줄었거나 중단하게 되었다.	1	2	3	4
11) 나의 용돈이 줄어들었다.	1	2	3	4
12) 나는 부모님 대신 집안일(청소, 밥하기, 빨래 등)을 더 많이 하게 되었다.	1	2	3	4
13) 우리집은 옷이나 신발에 지출하는 비용이 줄어들었다.	1	2	3	4
14) 우리집은 아픈 사람이 있어도 병원에 못 간다.	1	2	3	4
15) 우리집은 집을 줄여 이사하여 생활하기가 너무 불편하다.	1	2	3	4
16) 우리집은 이웃이나 친척, 공공기관(동사무소, 사회복지관, 복지재단 등)의 도움을 받고 있다.	1	2	3	4
17) 우리집의 수입이 줄어 부모님 사이가 나빠졌다.	1	2	3	4
18) 나와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아졌다.	1	2	3	4
19) 우리집은 가족 간에 폭력을 쓰며 다투는 일이 많아졌다.	1	2	3	4
20) 부모님이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 하신다.	1	2	3	4

10.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여러분의 상황에 해당되는 것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나는 용돈과 생활비가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되었다.	1	2
2) 경제적인 문제로 가족이 헤어지게 되었다(가출, 별거, 이혼 등).	1	2
3) 최근 부모님이 일자리를 잃었다.	1	2
4) 나는 용돈과 생활비가 필요해서 인터넷 성매매 사이트에 접속 해볼까 생각해본 적이 있다.	1	2

11.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다른 사람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2) 내가 좋은 자질(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3) 대체로 내가 실패한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4) 나는 남들이 하는 만큼 일을 잘 할 수 있다.	1	2	3	4
5) 내가 자랑스러워할만한 것이 별로 없다.	1	2	3	4
6) 나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1	2	3	4
7) 대체로 나 자신에 만족한다.	1	2	3	4
8) 나 자신을 존중하는 것이 부족하다.	1	2	3	4
9) 때때로 나 자신이 쓸데없는 사람이라고 느낀다.	1	2	3	4
10) 때때로 나는 전혀 능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1	2	3	4

12.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자신과 비슷한 상태를 나타내는 정도에 응답해 주십시오.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외롭다고 느낀다.	1	2	3	4
2) 잘 운다.	1	2	3	4
3) 내가 나쁜 생각이나 나쁜 행동을 할까봐 두렵다.	1	2	3	4
4) 스스로 완벽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느낀다.	1	2	3	4
6) 남들이 나를 해치려한다고 생각한다.	1	2	3	4
7) 나는 가치가 없고 남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8) 신경이 날카롭고 긴장되어 있다.	1	2	3	4
9) 지나치게 겁이 많거나 불안해한다.	1	2	3	4
10) 지나치게 죄책감을 느낀다.	1	2	3	4
11) 자신을 너무 의식하고 쉽게 무안해진다.	1	2	3	4
12) 의심이 많다.	1	2	3	4
13) 자살에 대해 생각한다.	1	2	3	4
14) 걱정이 많다.	1	2	3	4
15) 주변 사람들은 내가 부유하지 않아서 나를 무시하거나 차별하는 것 같다.	1	2	3	4



3 여러분의 가족, 학교, 동네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13.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다음의 일들이 얼마나 자주 일어났나요?

문항	전혀 없었다	6개월에 1-2번 정도	1달에 1-2번 정도	1주일에 1-2번 정도
1) 부모님의 발에 차이거나(혹은 주먹으로 맞거나) 몽둥이로 맞았다.	1	2	3	4
2) 부모님이 위험한 도구로 나를 위협했다.	1	2	3	4
3) 내가 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정도로 부모님이 꾸짖은 적이 있다.	1	2	3	4
4) 부모님이 나에게 “너만 없으면 속이 편할 것이다” 와 같은 말을 하셨다.	1	2	3	4
5) 부모님이 외출하여 어두워질 때까지 나 혼자 집을 본 적이 있다.	1	2	3	4
6) 나는 깨끗하지 않은 옷을 입고 지내거나 더러운 이부자리에서 잠을 잔 적이 있다.	1	2	3	4
7) 부모님이 내가 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1	2	3	4
8) 부모님은 내가 이유 없이 학교에 결석해도 나에게 아무 말 안 하신다.	1	2	3	4
9) 집안 내에서 부모님 중 한 분이 다른 한 분을 때리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	2	3	4
10) 부모님끼리 서로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있다.	1	2	3	4

14. 다음의 문항에 얼마나 동의하시나요?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다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우리 학교 선생님(들)을 존경한다.	1	2	3	4
2) 우리 학교에는 나를 이해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선생님이 있다.	1	2	3	4
3) 나는 학교생활에 만족한다.	1	2	3	4
4)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나를 차별대우 한다.	1	2	3	4
5) 선생님께 맞은 적이 있다.	1	2	3	4
6) 선생님께 모욕을 받은 적이 있다.	1	2	3	4

15. 여러분의 동네에 대한 생각과 다음을 경험한 적이 있나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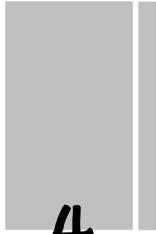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우리 동네가 아이들에게 안전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2)	우리 동네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기꺼이 서로 도와려고 한다.	1	2	3	4
3)	나는 동네에서 돈을 빼앗기거나 심하게 맞은 적이 있다.	1	2	3	4
4)	나는 동네에서 칼이나 흉기로 위협받거나 다친 적이 있다.	1	2	3	4

16.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생활비나 용돈을 주로 어떻게 마련했나요?

문	항	전혀 없음	가끔	자주	거의 항상
1)	부모님(보호자)에게 받는다.	1	2	3	4
2)	이전에 모아 둔 돈을 사용한다.	1	2	3	4
3)	친구나 아는 사람에게 빌리거나 얻는다.	1	2	3	4
4)	다른 사람의 돈을 훔치거나 빼앗는다.	1	2	3	4
5)	원조교제나 성매매를 한다.	1	2	3	4

17.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해보셨습니까? (해보았다면) 얼마나 자주 해보았습니까?

문	항	전혀 없음	1-2번	3-4번	5번 이상
1)	담배를 피운 적이 있다.	1	2	3	4
2)	술을 마신 적이 있다.	1	2	3	4
3)	남의 돈이나 물건을 슬쩍 훔친 적이 있다.	1	2	3	4
4)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다.	1	2	3	4
5)	남의 돈이나 물건을 뺏은 적이 있다.	1	2	3	4
6)	학교를 이유 없이 맘대로 결석한 적이 있다.	1	2	3	4
7)	가출을 한 적이 있다.	1	2	3	4
8)	인터넷 성인사이트를 본 적이 있다.	1	2	3	4



4 여러분의 교육, 문화 및 정보활동, 여가 및 취미활동, 지역사회서비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18.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학교생활에 어느 정도 적응하고 있나요?

- ① 전혀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 ② 잘 적응하지 못하는 편이다.
③ 잘 적응하고 있는 편이다. ④ 매우 잘 적응하고 있다.

19.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학교에 가지 않은 날이 며칠입니까?

- ① 없다 (→ 20번으로 가세요)
② 1-2번 ③ 7일 정도 ④ 보름 정도 ⑤ 한 달 정도 ⑥ 한 달 이상
(②~⑥ 중 한 곳에 응답한 사람)

19-1. 학교를 결석한 이유는 무엇인가요?(하나만 고르세요)

- ① 학비를 못 내서 ② 가사를 돕기 위해(집안일, 생활비 마련 등)
③ 부모님이 못 가게 해서 ④ 몸이 아파서
⑤ 귀찮아서 혹은 아침에 못 일어나서 ⑥ 선생님이 싫어서
⑦ 가출을 해서 ⑧ 괴롭힘이 무서워서

20. 자신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 ① 예 ② 아니오

20-1.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나만 고르세요)

- ① 성적이 안 좋아서 ② 경제적인 이유로 ③ 부모님의 무관심으로
④ 대학이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필요가 없어서)
⑤ 기타 _____

21. 집에 인터넷이 가능한 컴퓨터가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22. 개인 휴대폰을 가지고 있나요?

- ① 있다 ② 없다

23.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아래의 <보기>에서 자신이 방과 후 혹은 주말 등의 자유 시간에 실제로 많이 하고 있는 활동을 **3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보 기>			
1) 집안일 돕기(청소, 설거지 등)	2) 집에서 휴식	3) 독서	4) TV시청
5) 예술 활동(그림, 사진, 연주 활동 및 관람)	6) 음악·영화감상	7) 스포츠 활동	
8) 친구 만나기	9) 인터넷·컴퓨터 게임	10) 아르바이트	11) 종교 활동
12) 동아리 활동	13) 공부	14) 여행	15) 쇼핑하기
16) 길거리 돌아다니기	17) 자원봉사		

23-1. 위의 <보기>에서 앞으로 하고 싶은 활동 **3가지**만 선택하여 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_____, _____, _____

24.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여가, 여행, 취미생활을 하는데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비용 부담 | ② 시간 부족 |
| ③ 함께 할 사람이 없음 | ④ 적절한 장소 및 시설이 없음 |
| ⑤ 정보 획득의 어려움 | |

25.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아래의 활동이나 서비스에 참여해 본적이 있습니까?(있다면) 얼마나 만족스러웠습니까? 아래 해당되는 내용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문	항	가) 참여여부		나) 만족도 (가)에서 '1.참여했다'는 경우만 응답			
		참여했다	참여하지 않았다	매우 불만족	불만족	만족	매우 만족
1)	고민이나 문제에 대한 상담	1	2	1	2	3	4
2)	학습지도(숙제, 문제집 풀이 등)	1	2	1	2	3	4
3)	생활을 도와주기 위한 자원봉사자 방문 (청소, 빨래, 식사 등)	1	2	1	2	3	4
4)	심리, 언어, 음악, 놀이치료 등	1	2	1	2	3	4
5)	캠프 등 1박 이상의 수련활동	1	2	1	2	3	4
6)	견학, 문화체험 방문 등의 당일 활동	1	2	1	2	3	4
7)	성격이나 친구관계 향상을 위한 집단프로그램	1	2	1	2	3	4

26. **최근(2008년 2학기 이후)** 학교나 동사무소, 사회복지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예: 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행사참여,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를 제공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27번으로 가세요)

26-1. 여러분이 학교나 동사무소, 사회복지기관에서 여러 가지 서비스(예: 도시락 및 급식지원, 상담, 행사참여, 후원금 지원, 결연후원 등)를 제공받았을 때 드는 생각은 어떠한가요?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대체로 그렇다	매우 그렇다
1) 현재 내 생활에 도움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2) 도움 받는 사실이 부끄럽고 자존심 상한다.	1	2	3	4
3) 가능하면 다음부터는 도움을 받고 싶지 않다.	1	2	3	4

부록 2. 『경제위기가 아동과 청소년에게 주는 고통』 세미나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09년 2월 27일(금) 오후 2:00 ~ 5:00
- 장소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관 2층 대회의실

○ 주최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세부일정

(사회자 : 김현철/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2:00-2:30 등록

2:30-2:40 개회식

- 인사말 : 이명숙 원장(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40-3:00 주제발표 1. 1929년 대공황 위기의 고통 : 40년 이후 나타나는
결과의 종단적 연구

- 발표자 : 김광웅 교수(숙명여대 아동복지학과)

3:00-3:20 주제발표 2. 경제위기와 아동발달 : 아동의 경제위기 인식과
심리적 적응

- 발표자 : 박금주 교수(서울대 심리학과)

3:20-3:35 주제발표 3. 경제위기에 따른 아동·청소년의 고통 심층취재:
‘두 번 버려진 아이들’

- 발표자 : 김은하 기자(중앙일보 사회정책팀)

3:35-3:50 주제발표 4. 2008년 경제위기에서 빈곤아동·청소년의 실태

- 발표자 : 모상현 연구위원(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3:50-4:10 휴식

4:10-4:50 지정토론 : 경제위기 하 빈곤아동·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대책
구인회 교수(서울대 사회복지학과)
운영득 사무관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이철섭 과장(경기도청 복지건강국 복지정책과)
이향란 소장(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 아동정책연구소)
유낙준 회장(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4:50-5:00 종합정리

연구에 도움을 주신 분들

◆ 자문·협력진 ◆

곽금주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구인회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김광웅 숙명여자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김은하 중앙일보 사회정책팀 보건복지가족부 출입기자
박금렬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과장
박현선 세종대학교 정책과학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교수
유낙준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 소장
윤영득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과 사무관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이향란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부설한국아동정책연구소 소장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집필진 ◆

이용교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연구보고 09-R20

경제위기에서 빈곤 아동·청소년의 생활실태 연구

인 쇄 2009년 4월 30일

발 행 2009년 4월 30일

발행처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서울특별시 서초구 대봉로 114

발행인 이 명 숙

등 록 1993. 10. 23 제 21-500호

인쇄처 문영사 전화 02)2263-5087 대표 김희자

사전 승인없이 보고서 내용의 무단전재·복제를 금함.

구독문의 : (02) 2188-8844(학술정보팀)

ISBN 978-89-7816-776-5(93330)